

전발연 2005-R-17

전라북도 가족실태 조사
- 건강한 가정과 가족기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2005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공동책임 조경옥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재규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한승주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연구자문 김미숙 • 전주여성의전화 운영이사

이성희 •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교수

홍달아기 •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교수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 이혼의 급증, 가족 내 부양과 돌봄의 공백 증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가출과 가족원간의 유기 및 학대 등 심각한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가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완충과 보완의 제도, 갈등예방의 장치가 미비한 상태임
- 가족현실에 대한 이해와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한 가족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가족정책은 요보호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족문제를 직시하고 변화와 욕구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인 개입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함
- 전라북도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가치관 및 태도, 가족관계, 가족의 역할 및 갈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통해 가족의 현실을 파악하고 변화를 예측하며 나아가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지지 체계 및 가족개입 프로그램 개발방향에 관한 정책 제언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 가족실태 및 문제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한 분석틀과 질문지 구성
- 조사대상은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기혼자로 시부에서 600명, 군부에서 400명을 각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해 할당표집 함
- 다양한 계층의 가족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을 전체표집 가운데 20%를 할당하여 유의표집 함

3. 연구결과 요약

1) 전라북도 가족구성의 특성

- 가족형태에 있어 전북은 핵가족의 비율은 낮고 1세대 부부가족, 3세대가족, 1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취업이나 취학으로 부모와 떨어져 노부모가구, 형제자매가구로 사는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음을 의미 함
- 실업과 고용불안, 만혼 등의 영향으로 1인가구가 감소하는 전국적인 추세와 달리 전북은 농촌지역의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이혼가구주와 미혼가구주의 증가로 인해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조혼인율의 감소, 조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음. 합계출산율은 1.64(97년)에서 1.26(2003년)으로 인구감소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음

2) 전라북도 가족실태 조사 결과

- 경제생활실태: 응답자 전체 가구의 약 45%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었으며 월평균 가계비 지출 규모는 평균 183.3만원, 저축액은 60.1만원, 응답자의 약 45%가 가정 경제생활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어려움을 느끼는 가계비 지출항목으로는 교육비(53.0%)가 가장 많았고 이는 도시중간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노후대비는 적금이나 저축(46.3%), 각종연금(25.8%) 등이며 노후에 대한 별다른 준비가 없다도 20.2%나 됨
- 자녀출산: 자녀출산 이유에 대해 남아선호와 같은 가부장적 인식은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남. 자녀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특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19.9%)와 같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고비용의 일로 생각되어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 저출산 현상이 경제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음.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지원으로는 보육비의 무상지원(19.9%)과 같은 현실적인 요구가 보육인프라 구축보다 높게 나타남
- 자녀양육: 자녀보호 및 양육에 대한 역할이 과도하게 가족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이는 군부지역과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에서 보호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남. 자녀양육에 대한 대체기능으로서의 조부모의 역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자녀양육 부담을 완충할 수 있는 가족이외의 대체역할이 부재하며 특히 젊은 여성의 양육부담은 취업의 단절과 출산기피와 연결될 가능성이 큼

- 요보호 가족원에 대한 돌봄노동: 돌봄노동은 외부의 도움 없이 주로 가족이 수발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주로 딸(13.4%), 며느리 (28.2%), 어머니 (0.7%) 등 여성이 돌봄 노동의 중심에 있었음. 수발상의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부담(34.7%)>육체적 피로나 수면부족(28.4%)>가족간갈등(14.9%)>직장일 수행곤란(6.8%) 등으로 육체적 피로 및 직장생활 제약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경험하고 있었음.
- 가사노동: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은 주로 시장보기와 자녀돌보기였으며 음식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과 같은 ‘여성중심형 과업’(female-typed tasks)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있음. 가사노동에 대한 부부간의 갈등은 23.4%로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미취업여성보다는 취업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남
- 부부관계 만족정도: 부부만족도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아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함. 연령별로는 20대는 애정친밀한 관계로 부부만족도가 높으며 양성평등한 태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부부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방과의 성격 및 생각차이, 가족공유 시간이 적음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저소득층은 생활비, 농촌저소득층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불만이 많음
- 부부의 성 평등성: 가족내 의사결정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56.2%)하는 등 양성평등관계를 지향하고 있으나 재산소유여부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75.9%)이어서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부부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평가하는 경향은 여성(29.2%)보다 남성(37.2%),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 성차와 세대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남
- 부부갈등: 이혼은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많으나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주로 여성, 연령이 낮은 집단, 교육수준이 높고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응답율을 보임. 이혼에 대한 허용정도는 여성, 도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이혼을 하게 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부부간의 심리적, 애정적 문제보다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한 응답율이 높아 결혼적응 및 가족관계에 친족관계가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에 와서도 힘들 때가 많다고 자녀 양육과 가족을 돌보는 문제로 경제활동을 그만 둘 생각을 해보았다고 같은 가정생활이 직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응답은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남.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족은 여성이 취업을 지속하는데 있어 위협요인과 출산기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 여가활동: 주5일제 실시 등으로 가족의 여가활동은 확대하는 추세이나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음. 여가활동에 대한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가 현저하게 나타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함
- 가정갈등 및 결속력: 가족의 건강성이나 결속력은 비교적 높아 가족의 정서적 친밀감이나 상호협력은 잘 이루어지나 가족원의 대화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사소통에 대한 통로와 환경조성이 필요함
- 가정지원 정책 및 복지욕구: 가족생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는 낮으나 향후 필요성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 됨. 가족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욕구 가운데 가족부양지원에 대한 응답율이 가장 높았음. 구체적으로는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 확대 및 자녀양육비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음

II. 정책건의

1. 가족복지정책의 추진 방향

1) 보편적·예방적 차원의 가족복지정책

- 취약계층의 잔여적서비스 보다는 대상을 전체가족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서비스와 가족이 위기를 경험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하는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둠
- 가족의 변화가 단 기간안에 일어나고 있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도록 함

2) 생애주기 단계별로 차별화된 가족복지정책

- 가족형성 시기는 늦어지고 자녀출산기는 단축, 부부만 남는 축소완료기는 점차 연장되는 등 가족주기 각 단계를 구분하는 사건이 발생될 때 가족욕구에 부합하는 차별화 된 가족복지정책 필요

3) 여성친화적 가족복지정책

- 가족안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과중한 역할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는 가족위기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경감시키기 위한 자녀보호와 양육 및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2. 가족기능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1) 지역사회 가정복지자원 연계망 구축

- 지역사회내의 가족복지서비스 관련기관의 서비스 전달체계 및 기능상의 중복을 피하고 복지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가족지원센터와 여타 가족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및 통합이 중요함.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파악, 상호연계망 형성,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됨

2) 전문적 가족상담 서비스 강화

-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서비스, 가족지원과 같은 상담 인프라 구축이 현재의 서비스에서 충분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있지 못해서 이에 대한 보완과 개발이 시급 함. 또한 전문적 가족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의 훈련과 양성도 병행되어야 함

3) 남성직장인 대상의 이동식 교육 강화

- 양성평등한 부부관계 및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식과 가치관

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경험적인 훈련이 필요함. 여성에 비해 가부장적 의식과 성 편견이 강고하나 양성평등 교육과 학습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직장인 남성을 대상으로 이동식 교육이 강화 될 필요 있음

4) 정규교과 및 생애학습 과정으로서의 건강가족문화 도입

-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은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평생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함.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가치관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적응방식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정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이해와 훈련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함

3. 건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방향

1)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 가족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변수는 부부관계임.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족형태 및 가족생활 주기에 부합되는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및 부부참여·부부활동 프로그램이 개발 및 확산 보급되어야 함

2) (조)부모와 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 세대간의 교류를 통하여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을 완화 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 가족세대 통합 프로그램은 가족원 개별접근보다는 전체가족의 상호작용에 대한 증진을 목표로 접근함

3) 가족여가문화 증진 프로그램

- 가족의 기능강화를 통한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가족단위의 여가정책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저소득빈곤가정, 모부자가정, 저소득노인가족

등 여가취약계층의 가족여가는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 됨

4) 가정경제 기능향상 프로그램

- 가족의 재무전략과 전자가계부 작성, 절세전략, 알뜰소비전략, 노후대책 재테크 등에 관련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도울 수 있는 가정경제 기능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7
제 2 장 자료 및 연구의 방법	9
제1절 조사대상자와 표본추출방법	11
제2절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12
제3절 자료 분석방법	15
제 3 장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현황	17
제1절 한국가족의 변화	19
1. 가족구성 및 형성의 변화	20
2. 가족기능의 변화	24
제2절 가족정책 및 건강가족 사업현황	27
1. 가족정책 현황과 문제점	27
2. 건강가족 사업현황	30
제 4 장 전라북도 가족의 특성	33
제1절 가족의 구조적 특성 및 변화	35
1. 가족구조 변화의 현황	35
2. 가족형태의 다양화	41
제2절 사회조사통계로 본 전북가족, 복지의 특성	43
1. 부모부양	43
2. 가족관계 만족도	49
3. 결혼에 대한 가치관	51
4. 자녀양육과 가사분담	55

제 5 장 가족실태 조사 결과	61
제1절 조사대상 및 가구의 일반특성	63
1. 조사대상의 일반특성	63
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특성	65
제2절 경제생활 실태	68
1. 수입·지출·저축·부채의 규모	68
2. 경제생활 어려움	70
제3절 출산 및 자녀양육	75
1. 자녀 출산	75
2. 자녀 양육	82
제4절 돌봄 및 가사노동	88
1. 요보호 가족원에 대한 돌봄 노동	88
2. 가사노동	94
제5절 부부관계 만족도 및 가치관	100
1. 부부관계 만족 정도	100
2. 부부갈등 및 해결 노력	109
3. 부부간 성 평등성	124
제6절 가정과 직장의 양립	129
1.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따른 어려움	130
2. 취업과 가정생활과의 상호영향	133
제7절 가족여가활동	141
1. 여가활동 참여 및 만족도	141
2. 주5일제 실시 이후 시간변화	146
제8절 가족갈등 및 결속력	147
1. 가족의 갈등	147
2. 가족의 결속력	151
제9절 가족지원 정책 및 복지욕구	155
1. 가족 문제	155
2. 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159

제 6 장 요약 및 정책과제	167
제1절 주요결과 요약	169
1. 전라북도 가족구성의 특성	169
2. 경제생활 실태	169
3. 출산 및 자녀양육	170
4. 돌봄 및 가사노동	172
5. 부부관계 만족도 및 가치관	174
6. 가정과 직장의 양립	177
7. 가족여가활동	178
8. 가족갈등 및 결속력	178
9. 가족지원 정책 및 복지욕구	179
제2절 가족기능 강화 방안	180
1. 가족복지 정책의 추진 방향	184
2. 가족기능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183
3. 건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방향	186
■ 참고문헌	191
■ 부 록	195
1. 가정복지 프로그램개발 예시	197
2. 대학부설 및 기타 건강가정지원센터 목록	205

표 목 차

<표 2-1> 표본 지역 및 표본의 크기	12
<표 2-2> 전북지역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기능관련 조사항목	14
<표 3-1> 가구구성의 변화	21
<표 3-2> 가족형성의 변화	23
<표 3-3> 가족기능의 변화	24
<표 3-4> 가족의 욕구에 따른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및 내용	28
<표 3-5> 가족복지정책의 수혜대상별 분류	29
<표 3-6> 각 기관별 가족지원 서비스 내용	31
<표 4-1> 세대별 가구 구성의 변화	36
<표 4-2> 전국 가족형태별 가구의 변화	37
<표 4-3> 전북가족형태별 가구의 변화	38
<표 4-4> 전국 혼인수 및 이혼수	39
<표 4-5> 이혼율의 변화	40
<표 4-6> 전북지역 합계출산율	40
<표 4-7> 세대별 가구구성의 변화	41
<표 4-8> 단독가구 수	42
<표 4-9> 모자세대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43
<표 4-10> 부모의 동거자	44
<표 4-11> 부모 생계부양자	45
<표 4-12>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46
<표 4-13> 향후 자녀와 동거 여부	47
<표 4-14> 가구원의 노후준비 방법	48
<표 4-15> 배우자와의 관계	49
<표 4-16> 자녀와의 관계	50
<표 4-17> 결혼에 대한 견해	52
<표 4-18> 이혼에 대한 견해	53
<표 4-19> 재혼에 대한 견해	54
<표 4-20> 만 10세 이하 자녀 양육실태	55
<표 4-21> 여성취업 장애요인	56

<표 4-22> 평소 가사분담 실태	57
<표 4-23> 가사분담 견해	59
<표 4-24> 생활여건의 변화-문화, 여가생활	60
<표 5-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63
<표 5-2> 응답자의 직업 및 종사상의 지위	64
<표 5-3>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66
<표 5-4> 비동거인의 비동거 사유	67
<표 5-5> 가구의 월평균 총수입규모	68
<표 5-6> 월평균 가계비 지출규모	69
<표 5-7> 월평균 저축액 규모	70
<표 5-8> 가정 경제생활의 어려움 정도	71
<표 5-9>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가계비 항목	72
<표 5-10> 지역계층별 부채액 규모	73
<표 5-11> 지역계층별 부채의 주된 이유	74
<표 5-12> 노후생활 대비	74
<표 5-13> 자녀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그 이유	76
<표 5-14> 자녀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	77
<표 5-15> 자녀출산에 대한 의견	78
<표 5-16>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	79
<표 5-17>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	80
<표 5-18> 자녀 입양에 대한 의견	81
<표 5-19>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요구	81
<표 5-20> 가장 어린자녀 연령	82
<표 5-21> 가장 어린 자녀가 주로 다니는 곳	83
<표 5-22> 가장 어린자녀가 머무는 시간	84
<표 5-23> 가정에서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84
<표 5-24>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 대한 사례비용의 규모	85
<표 5-25>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 대한 사례비의 부담 정도	86
<표 5-26> 방과 후 아동지도프로그램 인지 및 이용여부	87
<표 5-27> 요보호 가족원의 연령 및 성별분포	89
<표 5-28> 요보호 가족원의 수발에 따른 어려움	91
<표 5-29> 보살핌을 위한 외부시설 이용하지 않은 이유	93

<표 5-30> 가사노동시간	95
<표 5-31> 부부간 역할분담 정도	97
<표 5-32> 가사분담으로 인한 부부 갈등경험여부	98
<표 5-33> 배우자와의 대화정도	100
<표 5-34> 배우자와의 대화내용	101
<표 5-35> 부부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103
<표 5-36> 배우자 만족도	106
<표 5-37> 부부싸움 정도	110
<표 5-38-1> 부부싸움 주된 이유(1)	111
<표 5-38-2> 부부싸움 주된 이유(2)	112
<표 5-39> 이혼에 대한 생각	114
<표 5-40> 이혼을 고려한 경험	116
<표 5-41> 이혼에 대한 일반적 태도	118
<표 5-42> 상황에 따른 이혼관	120
<표 5-43> 가족내 의사결정	124
<표 5-44> 재산소유여부	125
<표 5-45> 부부권력관계	127
<표 5-46> 부부문제 상담 여부	128
<표 5-47> 직종별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따른 어려움	130
<표 5-48> 가정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	132
<표 5-49> 취업활동과 가정생활과의 관계에 대한 성별비교	134
<표 5-50> 취업이 가정생활에 주는 영향	136
<표 5-51> 가정생활이 직장에 주는 영향	139
<표 5-52> 일과 가정생활 병행을 위한 제도	140
<표 5-53> 여가문화 활동 참여도	142
<표 5-54> 여가활동참여정도(전체평균)의 집단간 차이	143
<표 5-55> 여가활동 만족정도	144
<표 5-56> 주 5일근무제 실시이후 시간변화	147
<표 5-57> 가족의 중요한 기능	149
<표 5-58> 가족의 폭력정도에 관한 집단간 차이	150
<표 5-59> 가족의 건강성 문항별 빈도분포	152
<표 5-60> 가족의 건강성 정도(평균)의 집단간 차이	153

<표 5-61> 가족의 화목 정도	154
<표 5-62> 가족생활주기별 교육 인지도, 참여도, 필요도	159
<표 5-63> 가족생활 지원에 대한 욕구	160
<표 5-64> 가족문화지원에 대한 욕구	162
<표 5-65> 가족부양지원에 대한 욕구	165
<표 5-66>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욕구	166
<부표-1> 가족생활주기별 프로그램	197
<부표-2>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199
<부표-3>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프로그램	200
<부표-4>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프로그램	200
<부표-5> 서울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교육 프로그램	201
<부표-6> 서울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상담 프로그램	201
<부표-7> 서울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문화 프로그램	202
<부표-8>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상담사업	202
<부표-9>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생활교육	203
<부표-10>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기관 연계 공개강좌	203
<부표-11>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읍면동 방문교육	203
<부표-12>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문화사업	203
<부표-13>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교육사업	204
<부표-14>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문화사업	204

그림 목 차

<그림 4-1> 전라북도 세대별 가구구성의 변화	36
<그림 5-1> 조사가구의 가족구성형태	67
<그림 5-2> 부채발생의 원인	74
<그림 5-3> 가구의 출산자녀수 분포	75
<그림 5-4> 야간보육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86
<그림 5-5> 야간보육시설 이용의사 및 이용희망 횟수	86
<그림 5-6> 방과 후 아동지도에 필요한 사항	88
<그림 5-7> 요보호 가족원을 보살피는 이유	89
<그림 5-8> 요보호 가족원을 주로 돌보는 사람	90
<그림 5-9> 가족원 보살핌이 이직의사에 미친 영향	92
<그림 5-10> 정부의 지원정책	93
<그림 5-11> 주 5일제 실시이후 가사노동의 변화	99
<그림 5-12> 부부문제 상담여부	129
<그림 5-13> 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	145
<그림 5-14> 가족에서 잘 수행되고 있는 기능	149
<그림 5-15> 한국 가족의 문제	155
<그림 5-16> 가족기능 약화에 대한 책임	157
<그림 5-17>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158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가족은 단기간에 걸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해체,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등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가족의 기능은 전통적으로 담당해 온 기능들이 약화되거나 상실되고, 가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사회적 불황은 가족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출산, 자녀양육 및 사회화, 구성원의 보호 등 전통적인 가족기능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 이혼의 급증, 가족 내부양과 돌봄의 공백 증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가출과 가족원간의 유기 및 학대, 배우자와 자녀살해를 동반한 자살의 빈발 등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가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완충과 보완의 제도, 갈등예방의 장치가 미비한 상태이다. 다만 최근에 정부는 이러한 가족의 총체적인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 공포하였다¹⁾.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의 취약성을 보완하며,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

1) 2004년 1월 1일 발효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원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가족의 기능강화 및 가족문제의 예방이라는 긍정적 취지와 목적을 담고 있으나 ‘건강가정’이라는 법안의 명칭과 ‘건강가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법안의 내용이 ‘건강가정’과 ‘비 건강가정’으로 구분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또한 이법은 “가족위기”를 담론을 바탕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출산과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전형적인 가족형태와 기능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가정법기본법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양성평등 가족정책”, “성인지적 가족정책”,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한 가족정책” 등의 대안적 가족정책을 모색하려는 다양한 주장들이 일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본 연구에서는 건강가족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한 논란과 이에 대한 합의된 결론이 과도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연구시각으로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

며, 이 법은 또한 매 5년마다 가족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가족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보다 앞서서 근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경험한 서구의 여러 국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인 가족조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특히 여성부에서는 지난 2003년 「전국가족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등 한국 가족의 현실과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후속인 조사와 연구들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가족조사는 현 단계 한국가족의 기본 특징을 총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다양화되는 가족유형과 변화하는 가족의식에 따른 가족문제의 변화 및 복지수요의 상이성에 따라 보다 현실 적합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가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출산력과 가족보건에 관련된 조사이거나 가족에 대한 현황 및 가족가치관과 같은 의식과 태도 조사에 한정됨으로써 복잡, 다양해지는 가족의 변화와 성인지적 관점에서 가족내의 남녀지위, 친족관계의 양계성 등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의 변화를 알아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여성부·한국여성개발원, 2003, 2004).

또한 기존의 여러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주로 가구주만을 대표로 하거나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 남녀의 의식과 태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나 문제점을 포착하지 못하여 성역할 변화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요성을 간과해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한계점이 시사 하는 바는 기존의 모든 조사와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실시하게 될 가족조사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양성관계와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최근의 ‘가족위기’는 기존의 ‘남성가장과 여성주부’의 성역할구조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문화적으로 급변하는 가족가치관 및 그것의 성별격차 등 양성관계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데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여성부·한국여성개발원, 2003)²⁾.

2)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인

특히 양성관계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여성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다. 남녀 모두를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주체로 상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과 지원이 없이는 성공적인 가족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³⁾).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족구조와 관계, 가족의식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 가족현실에 대한 이해와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한 가족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가족정책은 방향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성이 있다.

즉, 지금까지 저소득 가족만을 정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후치료적인 면에만 개입해왔던 요보호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족문제를 직시하고 변화와 욕구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인 개입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의 전 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성인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가족구성원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의식과 태도의 상이성과 일치정도를 알아보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과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최근의 가족변화와 양상을 양성관계의 관점에서 파악 할

ISSP(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국제적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가족과 젠더역할 변화”에 대한 주제로 연구해왔으며 이는 성역할 변화라는 것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에 대해 연구 참여 국가들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여성부, 2003).

3)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재정의 위기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요구 할 것이고 그 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공백상태가 되는 가족내 양육과 부양의 돌봄 노동을 대체할 사회적 안정망이 요구 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확보하는 과제가 가족정책의 핵심과제로 제기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특히 여성들의 돌봄노동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9회 세계여성학 대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장 핵심적 사항으로 부각되었으며 여성들의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에 관련된 인구정책 및 사회정책으로서 재조명되고 있다.

수 있는 문헌 및 연구가 부재하고 다양한 계층의 가족현실과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 당면한 갈등과 문제 등에 대해 다각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한 연구결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정책수혜자와 지역 실정에 맞는 가족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가치관 및 태도, 가족관계, 가족의 역할 및 갈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통해 가족의 현실을 파악하고 변화를 예측하며 나아가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지지 체계 및 가족개입 프로그램 개발방향에 관한 정책 제언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북도의 사회지표 및 관련통계를 통하여 가족 구성과 가족관계, 가족 가치관 등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 전북가족의 변화양상과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한다.

둘째,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가족 가운데 세대주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구성, 경제생활, 가족가치 및 태도, 가사 및 돌봄 노동, 가족결속력, 가족생활 문제 등에 관한 일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전국의 가족조사와 비교하여 전북의 특수성 등을 분석한다.

셋째, 가족생활 문제에 관련된 세부 연구주제에 대하여 성(sex), 세대, 가족배경, 계층적 지위 등 주요 사회적인 변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가족 기능상의 문제점과 욕구, 강화방안에 대한 각 집단 간의 차이점을 도출하여 이들 집단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넷째, 전 분석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양성평등하며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지지 체계 및 가족개입 프로그램 개발방향에 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가족기능 전반에 걸친 실태와 문제점 욕구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조사내용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가족의 변화양상과 그 원인, 문제점 등에 대한 문헌검토를 하였다. 아울러 중앙의 가족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건강가족의 사업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회지표 및 관련통계를 통하여 전라북도의 가족구성과 가족관계, 가족가치관 등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 현 단계의 전북가족의 특성을 알아보고 향후 전북가족의 변화양상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가족 가운데 세대주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구성, 경제생활, 가족가치 및 태도, 가사 및 돌봄노동, 가족결속력, 가족생활 문제 등에 관한 일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전국의 가족조사와 비교하여 전북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하였다. 특히 가족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족생활문제에 관련된 세부 연구주제에 대하여 성(sex), 세대, 가족배경, 계층적 지위 등 주요사회적인 변인들을 중심으로 가족기능상의 문제점과 욕구 등에 대한 각 집단간의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전북지역 가족의 실태 및 복지욕구 등에 관한 현상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지지 체계 및 가족개입 프로그램 개발방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자료 및 연구의 방법

- 제 1 절 조사대상자와 표본추출방법
- 제 2 절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 제 3 절 자료 분석방법

제 2 장 자료 및 연구의 방법

제 1 절 조사대상자와 표본추출방법

본 연구는 전북지역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구조 및 출산과, 양육, 부부관계,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직장 과 가정생활의 양립, 여가와 가족생활, 가족정책에 대한 의식 등 가족기능상의 일반적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과 욕구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기혼자이며, 표집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의 시부에서 600명, 농촌지역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정읍 등 6개 군부에서 400명을 각각 할당하여 표본지역의 인구비례에 의한 할당표집을 하였다. 해당 시부에서는 상가 지역, 아파트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등 주거지역의 성격으로 하위 표집단위를 설정하여 무작위 표집을 하였으며, 군부에서는 읍·면 소재지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까운 마을과 상대적으로 먼 마을을 임의 설정하고 해당마을에서 무작위 표집을 행하였다.

특히 가족기능상의 실태와 문제점, 정책적 욕구는 가족의 경제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층적으로 중간층에 속하는 일반가족과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표본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저소득층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각각 20%내외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종표집 단계에서 할당하여 유의표집 하였다. 또한 가족기능에 관해서는 부부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면접원의 지역별 가구방문시 남성과 여성의 응답자가 4:6의 비율을 갖도록 할당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조사는 2005년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으로 수행하였으며, 한 가구에는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 한 사람만이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조사 표 가운데 불성실한 조사표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이용된 가구수는 999가구가

다. 이들 최종집계에 포함된 표본수는 도시지역(시부)에서 599가구, 농촌지역(군부)에서 400가구이며, 면접에 응한 남자가구주는 406명, 여성배우자는 593명이다.

<표 2-1> 표본 지역 및 표본의 크기

지역구분	응답자의 성별		
	전체(N=999)	남자(N=406)	여자(N=593)
진안	71(7.1)	37(9.1)	34(5.7)
무주	50(5.0)	13(3.2)	37(6.2)
장수	46(4.6)	16(3.9)	30(5.1)
임실	50(5.0)	20(4.9)	30(5.1)
순창	83(8.3)	39(9.6)	44(7.4)
정읍	100(10.0)	39(9.6)	61(10.3)
농촌지역 소계	400(40.0)	164(40.4)	236(39.8)
전주	300(30.0)	118(29.1)	182(30.7)
군산	150(15.0)	58(14.3)	92(15.5)
익산	149(14.9)	66(16.3)	83(14.0)
도시지역 소계	599(60.0)	242(59.6)	357(60.2)

제 2 절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1.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전라북도 가족의 일반현황은 기존의 통계자료 및 선행조사연구에서 실시된 데이터에 대한 이차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주요 활용자료는 통계청인구센서스, 전북 통계연감, 전라북도 내부자료 등이다.

전라북도 가족생활과 기능 전반에 걸친 실태 및 욕구에 대한 기초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다만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가족문제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가 제한적으로 행하여져 왔다. 본 연구는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기존의 연구 문헌의 검토를 통하여 지역의 가족생활 실태와 문제점 및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2) 실태조사

설문조사는 가족생활과 기능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가족복지 정책과 향후 사업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발,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는 가족 및 복지연구 전문 자문위원과 전라북도 가족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검토를 통하여 조정, 완성하였으며 완성된 질문지를 토대로 20여명의 가구주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조사문항을 결정하였다.

본 조사의 표집과정에서는 응답자의 거주 지역, 성, 연령 및 경제생활 상태 등을 고려한 유의적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가족복지 정책의 수립은 빈곤가구 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들의 가족생활상의 문제와 상이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일반가구(중간층)와 저소득층가구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하였다. 다만, 조사내용의 성격상 조사대상을 배우자가 있는 가족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혼이나 사별에 의한 가족, 미혼모 가족, 노인 홀로가족 등 소수가족은 포함되지 않았다.

3) 자문회의

연구의 전체 진행과정에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집단의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내용의 구성에서부터 조사 설계, 표본설계, 그리고 정책개발과정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4) 조사내용 및 항목

본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내용은 크게 9가지로 분류하였고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다음의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9가지의 조사내용과 구체적인 조사항목을 정함에 있어서 가족의 일반적인 생활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몇몇 문항들은 2004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했던 『전국 가족실태조사 척도개발』의 기본적인 항목을 참고하였다. 또한 가족에 대한 성인지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3년 여성부가 실시한 『2003년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이 두 가지 보고서는 최근 가족의 다양한 현실과 변화를 체계

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정기적으로 가족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만들어진 조사항목에 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가족실태와 전북의 현실을 비교함으로써 전라북도 가족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에 타당한 가족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내용

<표 2-2> 전북지역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기능관련 조사항목

항 목	조 사 내 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 연령, 교육수준, 주거형태, 혼인기간
경제생활	취업 및 경제상황(취업여부, 직업, 종사상의 지위, 소득), 가계비지출 규모 및 저축액, 부채, 경제생활상의 어려움 등
가족사항 및 출산:	가족구조(가족구성형태, 가구원수, 자녀수, 출산자녀수, 비동거가족 유무,), 자녀출산에 대한 계획, 입양, 출산지원 정책 요구 등
돌봄노동(자녀양육, 가족보살핌)	자녀양육 형태, 자녀양육의 가계부담 정도, 야간보육과 아동지도 프로그램 인지 및 이용실태, 자녀양육 역할 분담, 어린이 보호노동의 가족의존성,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보호노동에 대한 부담실태 및 가계부담, 요보호자의 여성의존성 실태와 정책적 요구
부부관계	부부간 대화의정도과내용, 부부관계 유지/불만 요인, 부부관계 갈등의 내용과 정도, 이혼에 대한 가치관, 각 상황에 따른 이혼허용 정도, 가족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성생활 및 부부관계 만족도
가사노동	가사노동의 주 담당자 및 가사노동 시간, 가사분담의 실태, 가사분담에 따른 부부갈등의 정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적용여부 및 가사분담과 가족생활의 변화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행	일과 가사병행의 어려움, 일과 가사의 상호영향, 일과 가사 병행을 위한 제도 욕구
여가와 가족생활:	여가문화활동의 참여도, 만족도, 가족기능에 관한 의견, 가족관계 및 개인생활 만족도
사회보장 및 가족정책	한국가족의 문제와 책임, 가족정책(가족생활, 가족문화, 가족부양, 자녀양육 등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 필요도 및 우선 순위 등 정책 욕구

제 3 절 자료 분석방법

조사원에 의해 회수된 조사표를 편집하고 코딩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조사표를 제외시키고 최종 999명의 응답 자료를 유효 자료로 결정하였고, 자료 분석은 윈도우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과정은 먼저 모든 변수에 대한 응답자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족관계 및 의식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차이검정(ANOVA)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및 차이검정에서는 주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구성형태, 자녀구성형태, 지역별 계층, 혼인기간, 취업여부 및 직업 등 응답자 및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이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연령은 20대부터 50대의 4구간으로, 교육수준은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이상의 3구간으로, 가구구성형태는 부부가족, 부부+자녀가족, 부부+자녀+노인/기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녀구성형태는 자녀가 없는 가구,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학교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3가지 유형으로, 지역별계층은 월평균가구소득 150만원 미만을 저소득층으로 보고 지역을 추가하여 도시저소득층, 도시중간층, 농촌저소득층, 농촌중간층의 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혼인기간은 10년미만, 10-19년, 20-29년, 30년 이상의 4집단으로, 그리고 취업여부는 6개월 이상 동일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취업으로 보고 취업, 미(비)취업으로 구분하였다. 취업으로 분류된 응답자 및 그 배우자의 직업은 전문직/관리자,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종사자, 사무직, 판매직/서비스직 종사자, 농어업종사자, 기타로 재분류하였다.

제 3 장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현황

- 제 1 절 한국가족의 변화
- 제 2 절 가족정책 및 건강가족 사업현황

제 3 장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현황

시대적 흐름과 맞물린 사회·경제·문화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족은 변화의 주체이자 동시에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세계화, 정보화 등 과거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외부환경은 가족이 갖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오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가족구조자체를 변모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약화, 가족의 기능 및 역할약화, 가족갈등 및 가정폭력의 증대, 이혼 및 별거와 재혼의 보편화 등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가족구성원의 가치관 및 행동양식의 변화는 가족과 그 구성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환경의 변화 영역은 얼마나 다양하고, 각 영역에서의 변화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그 변화는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변화로 인한 영향은 얼마나 강력한가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가족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가족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몇몇 지표들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의 가족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이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사회변동 및 가족변화에 알맞은 향후 가족정책의 방향 및 세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가족의 변화

가족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특히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해 온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특정지표에 국한되지 않으며, 많은 요인에 기인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가족변화의 제반 요인을 김승권(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산업화, 도시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 정보화 등을, 인구학적 요인에는 초혼령의 상승, 출산율의 저하, 평균수명의 연장, 중년기 남성의 조기사망 등을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에는 결혼가치관, 가족가치관, 자녀가치관, 부모부양가치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의 변화과정을 정리하는 작업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가족은 같은 사회 안에서도 계급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적 특성, 종교적 배경, 인종이나 민족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마련이며, 같은 가족성원들이라 해도 성과 연령 그리고 가족주기 등에 따라 가족경험에는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게 마련이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2001). 본 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한국가족의 구성 및 형성과정에서의 변화를 주목해보고 그에 따른 가족기능의 축소 및 전이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가족정책의 현황과 최근 우리사회의 가족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족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1. 가족구성 및 형성의 변화

가족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를 갖고 있는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준은 가구구성, 가족의 크기, 가족형태 등의 3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정경희, 1998). 가족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가구 구성의 경우 총 가구수는 지난 20년간 약 2배 증가하여 2000년 현재 1431만 2천 가구인 반면 평균 가구원수는 1980년 4.5명에서 3.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출산력의 저하와 도시로의 이동에 의한 가구분할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가구의 형태별 분포를 보면 단독가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 현재 총가구의 15.5%이며 5인 이상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3.4%에 불과하다. 정의 상 가족에 속하지 않는 단독가구의 증가는 가족의 해체를 보여주는 한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동거하는 가족원수와 자녀수를 통하여 살펴볼 때 가족의 크기 또한 지난 20년간 급속히 감소하여 2000년 현재, 평균 출생아수는 1.7명이다. 또한 가족형태는 세대의 구분, 가족의 형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지난 20년간 가

장 팔목할 만한 변화를 보인 것은 1세대 가족의 증가와 3세대 가족의 감소이다. 1980년에 8.3%에 불과하던 1세대 가족은 20년 후인 2000년 14.2%로 급증하고 있다. 한편 부부가 부모와 미혼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3세대 가족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16.5%에서 절반수준인 8.2%로 감소하였다.

<표 3-1> 가구구성의 변화

단위 : %

가구구성영역의 개별지표		1980	1985	1990	1995	2000
가구구성						
총가구수(천가구)		7,969	9,571	11,355	12,958	14,312
평균가구원수(명)		4.5	4.1	3.7	3.3	3.1
가구의형태별 분포	단독가구	4.8	6.9	9.0	12.7	15.5
	2인가구	10.5	12.3	13.8	16.9	19.1
	3인가구	14.5	16.5	19.0	20.3	20.9
	4인가구	20.3	25.3	29.5	31.7	31.1
	5인가구이상	49.8	39.0	28.6	18.4	13.4
가족크기(명)						
평균 동거 가족원 수		4.8	4.4	4.0	3.6	3.1
평균 출생아수		3.0	2.3	2.2	1.8	1.7
가족의 형태(%)						
가족의세대수 별분포	1세대 가족	8.3	9.6	10.7	12.7	14.2
	2세대 가족	68.5	67.0	66.3	63.3	60.8
	3세대 가족	16.5	14.4	12.2	9.8	8.2
	기타	6.8	9.0	10.8	14.3	16.8
가족의형태별 분포	핵가족	74.0	75.3	76.0	79.8	82.0
	직계가족	11.2	10.7	10.3	9.1	7.9
	기타가족형태	14.8	14.0	13.8	11.2	10.1

자료: 1)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세대 가족의 증가는 무자녀 가족의 증가 및 결혼 후 첫 번째 자녀출산까지의 기간확대, 노인부부의 증가, 형제들만으로 구성된 가족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권태환 외, 1995). 가족의 형태별 분포를 보면 핵가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2%에 달하고 있고 기타 가족형태는 감소하여 10.1%에 머물고 있으며 직계가족의 비율에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가 2000년을 기준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직계가족 비율의 감소는 결혼 시 부모

를 모시고 살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의 개별지표를 통해 살펴본 가구구성의 변화는 가구 및 가족크기의 감소에 의한 총가구의 급증, 노인부부의 증가에 기인하는 1세대 가족의 증가 및 단독가구의 급증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의 가구구성의 변화 이외에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 가족의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을 살펴보면 가족은 일생동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변화한다. 그 변화의 계기를 이루는 것이 결혼과 자녀의 출산, 배우자의 사망과 자신의 사망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족주기의 개념으로 (Glick and Parke, 1965; WHO, 1986; 정경희, 1998에서 재인용) 가족의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 해체기로 구성되어 진다.

가족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를 혼인, 자녀출산,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로 볼 때, 다음의 각 개별지표를 통하여 가족형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사자에게는 생식가족(Family of Orientation)형성의 출발점이 되며 지향가족(Family of Orientation)으로부터의 분리가 되는 시기인 결혼의 경우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0년 현재 남자는 29.3세, 여자는 26.5세이다. 이는 20년 전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2년 정도 높아졌으나 남녀 간의 연령 차이에 있어 큰 변화는 없다.

초혼인율 또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2000년 현재 7.0이다. 한편 조재혼율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⁴⁾.

가족생활주기의 다음 단계인 자녀출산의 경우 첫 자녀 출산연령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결과를 보면 결혼의 연기와 더불어 첫 자녀출산시기 또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86년에 조사한 가족생활주기조사자료에 의하면 추계된 첫 자녀 출산연령을 살펴보면 1935-44년에 결혼한 부인의 평균 첫 자녀출산연령은 20.2세, 1955-64년에 결혼한 부인의 평균 첫 자녀출산연령은 22.3세, 1975-85년에 결혼한 부인의 평균 첫 자녀출산연령은 23.8세로 젊은 연령층에서 첫 자녀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의

4) 그러나 혼인유형의 변화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2000년도 인구동태자료에 의하면 전체 결혼 중 초혼인 남성과 재혼여성과의 결혼이 10년 사이에 1.8%에서 2.6%로 증가한 반면, 초혼여성과 재혼남성간의 결혼은 3.8%에서 2.8%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부부가 초혼인 경우는 90.3%에서 89.7%로 감소하였으나 부부가 모두 재혼인 경우는 4.1%에서 4.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확대기가 끝나는 시점을 기대자녀수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기대자녀수는 1980년대 이후 안정화되어 2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2> 가족형성의 변화

단위 : %

가족형성영역의 개별지표	1980	1985	1990	1995	2000
1)혼인(평균초혼연령)					
남자	27.3	27.8	27.8	28.4	29.3
여자	24.1	24.8	24.8	25.4	26.5
조혼인율(천명당)	10.6	9.2	9.3	8.7	7.0
조재혼율(천명당)	0.3	0.4	0.4	0.4	0.4
2)자녀출산					
기대자녀수(명)	-	2.2	2.2	2.1	2.0
3)가족해체					
조이혼율(천명당)	0.6	1.0	1.1	1.5	2.5
결혼에 대한 이혼율비	5.9	10.3	11.4	17.1	35.9

자료: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2)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한편 가족의 해체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에 의하여 발생한다. 조이혼율을 보면 지난 20년간 4배가 증가하여, 2000년 현재 2.5이다.

이혼의 경우, 1990년의 45,694건에서 1995년 68,279건 그리고 2003년 167,096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혼인율은 1990년 1.1에서 1995년 1.5로 증가하고 2003년은 1990년과 비교하여 인구 1,000명당 이혼하는 건수가 5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흔히 이혼율의 증가는 여성취업 증가와 정적인 관계가 있고, 여성의 지위향상의 측면으로 이해 할 수도 있으나, 이혼 후 대부분의 여성들은 곤궁한 삶으로 인하여 여성의 빈곤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박영란, 2003)가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상의 개별지표로 살펴본 가족형성에 있어서의 변화는 결혼과 자녀출산이 연기되고 있으며 자녀의 수 또한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조이혼율과 이혼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가족기능의 변화

가족의 기능은 시대, 문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의 유형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족기능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및 행위로서 ‘가족행동’을 의미한다.

한국의 가족은 산업화의 영향을 받아 서구의 가족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일부 기능론적 시각에서 주장해왔다(최재석, 1983; 한남제, 1994).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가족의 기능은 전통적 요소와 서구적 요소의 충돌, 사회구조적 변화속도와 가족의 변화속도간의 괴리 등으로 인

<표 3-3> 가족기능의 변화

가족기능	기능의 변화
경제공동체기능	생산기능의 상실/약화, 소비기능 강화
성행위와 출산통제기능	성과 출산통제 기능 약화, 부부간의 성생활 기능 강화
자녀양육과 사회화 기능	자녀양육기능강화, 국가와 공유 사회화 기능왜곡, 성차별적 사회화
정서적 유대 및 여가기능	정서적 유대 및 여가기능강화
사회보장 기능	기능왜곡(핵가족 책임론) 사회보장기능 국가와 공유
지위계승(계급재생산)기능	지위계승기능 강화
가사노동	가사노동의 사회화상품화기계화

자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2001),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해 서구의 가족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가족의 특수한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표 3-3>은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2001)에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가족기능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가족에 관련된 기능은 과거에 비하여 축소 및 확대되거나 타 기관으로의 전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각각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산업화로 인하여 가족과 일터가 공간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생산기능은 약화 혹은 상실되고 소비기능은 강화되었다. 가족의 소비

기능이 강화되었다 함은 가장이나 가족성원의 직업 및 수입정도에 따라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생활기회(life chance)나 생활양식(life style)이 결정됨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러한 소비생활수준이 가족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현대사회에서도 가족은 정상적인 규범 하에서 성적 욕구 외 종족유지의 본능을 가능케 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임신, 출산의 자유, 다양한 피임법의 개발로 인한 성생활의 자유, 향락산업 및 성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산업의 발달 등은 가족의 성 규제기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성에 대한 규범 및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성은 출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수동적 의미에 머물기보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의 표현으로, 만족스런 성생활이 곧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이란 자녀의 성장과 인격형성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지도하는데 있어서의 가족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산업화 초기단계에서는 이 기능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나 산업화 이후 사회가 다원화, 이질화, 전문화 되면서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 및 사회화에 있어서 제3자적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자녀양육과 사회화 기능은 가족 보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 예를 들면 정규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으로 많이 이전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가족의 정서적 유대기능은 사회·경제적 활동시간이 증가하고 직장 및 학교 생활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점차 중요시 되고 있는 가족기능 중의 하나이다. 가족 내에서 독점적 경제생산자로서의 도구적 역할이 남성에게 부과되고, 여성은 경제생산 영역에서 배제되어 가족성원들을 보살피는 정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양육과 보호 등의 가족을 보살피는 가족원의 역할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부부의 이혼·별거 등에 의한 가족해체로 버려지는 자녀들이 점점 늘고 있어 이는 부모책임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사랑과 보호와 양육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가족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가는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

이 자아(自我)가 확대되고 삶의 의미를 중시하게 된 사회에서는 일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별히 가족단위의 여가가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등장하면서 부부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보고와 더불어 여가를 둘러싼 가족성원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다.

다섯째, 가족의 사회보장 기능은 공적인 부조제도가 미약한 한국을 비롯한 유교문화권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급속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보장기능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노인과 환자 등을 보살피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은 가족구성원이 수행하여 왔으나, 더 이상 가족이 사회보장 기능을 담당할 인적자원 및 시간적 여유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족의 사회보장기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극복은 노인에 대한 공적 부양체계의 확립과 노인 스스로 노후에 대한 보다 계획적인 가족생활계획 등으로 극복되어야 한다고 보며, 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노인에 대한 심리적 부양이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부양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노인이 겪는 심리적 고립감, 외로움 등 정서적 지지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는 가족이 담당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가족의 기능변화에 있어서 최근 가족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가족이 기능적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현저하게 약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제 2 절 가족정책 및 건강가족 사업 현황

1. 가족정책 현황과 문제점

가족복지나 가족정책에 대한 개념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가족정책은 분류방식에 따라 매우 포괄적이거나 협소하게 정의될 수 있는 신축적인 개념이면서 이에 대한 역사가 우리사회에서 일천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가족정책의 개념, 범주, 수혜대상 및 문제점에 대해 변화순의 연구(2001, 2004)를 요약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가족복지는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거지 확보, 고용 안정, 교육보장, 생계보장 등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의 주체가 되는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 및 만족감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조홍식 외, 1997; 최경석 외, 2001; 변화순 2001에서 재인용). 즉 개별 가족의 복지는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재생산 기능이 온전하게 수행되는가의 여부를 넘어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의 내용성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차원의 가족복지욕구를 담아 내면서 가족원 모두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어왔는데 대체적으로 합의된 것을 살펴보면, ‘가족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데 있어 가족에게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개입적 활동(김성천외, 2000)으로 가족의 구조, 기능적 역할을 보호하고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족구성원 및 전체 가족의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변화순 외, 2000)이다.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는 넓게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와 연결된 사회복지정책의 하위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족생활을 지원해 나가는 데 필요로 되는 양육 및 보호, 정서적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하는 데, 안정된 소득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부조나 현물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보호가 있다. 동시에 지속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한 고용안정

도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가족복지 정책의 주요한 범주로 포함된다.

둘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주택관련 정책은 가족원이 생활해 나가는 거주지 및 생활터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가족복지정책 내용의 한 축을 이룬다.

넷째, 가족구성원의 보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주요한 가족복지정책으로 간주된다. 아동양육과 교육을 통한 사회화 과정이나 고령화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부양은 대부분의 가족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다섯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화는 물론 생활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 간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손상된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각종 정서심리적 지원책도 가족복지정책의 한 범주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나 법, 제도 등은 현존하는 사회구조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족유형이 무엇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의 기준잣대를 제시하기도 한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고려여부나 개방성, 융통성 정도에 따라서 특정 유형의 가족형태는 가족복지정책 대상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발견된다(<표 3-4>).

<표 3-4> 가족의 욕구에 따른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및 내용

가족의 욕구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및 내용
소득안정	소득보장, 소득공제, 고용안정, 부가급여, 가족(아동)수당
건강 및 보건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주거보장	주거안정 및 주택관련 급여
보호 및 양육	아동양육, 노인부양 및 보호
심리정서적 안정	가족상담 및 치료서비스
가족가치관 및 인식	가족에 대한 사회적 법제도, 규범의 인식

자료: 변희순(2001), 『가족유형에따른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가족복지정책의 수혜대상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가족구성원 전체를 위한 정책과 개별 가족구성원을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개별 수혜대상이 되는 경우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복지정책이외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필요로 하는 데 대부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개별 수혜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동, 노인, 여성, 등이 포함되는데 위의 내용별 범주구분의 네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보호 및 양육’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것은 기존에 가족 내에서 여성들이 수행해왔던 기능들이거나 가족 내부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와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아동과 노인을 고려한 가족복지정책은 상대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면 여성들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은 상대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면 여성들을 위한 가족복지정책과 중첩된다고 볼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수혜대상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가족복지정책의 수혜대상별 분류

정책 대상	정책 내용
가족을 단위로 한 정책	사회보장(연금, 국민건강, 고용, 산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공제 제도, 주택정책, 가정폭력방지책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	보육 및 교육, 입양위탁시설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경로연금, 취업알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의료보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직업훈련

자료: 변희순(2001), 『가족유형에따른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우리나라는 체계이고 포괄적인 가족복지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잔여적 소득 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 보장은 생활보호법(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보편적인 권리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계층의 문제발생 후의 복지와 사

후대응을 위한 수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가족복지정책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 수준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보호대상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정책수혜자들 스스로 위축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이나 노인, 아동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가족구성원 간의 역할관계에 따른 상호작용이나 가족전체를 고려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전체 복지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점차 다양해져가는 가족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가족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2. 건강가족 사업현황

최근 가족자살, 높은 이혼율 등 가족해체 현상과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가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러 학문분야에서 가족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고 있다. 특히 2003년 12월 ‘건강가정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몇몇 지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범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복지의 역할에 대한 해석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다⁵⁾. 즉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기존의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5년 6월에는 ‘가족지원법’이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발의된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가족지원서비스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가족지원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족지원사업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⁶⁾, 그리고 대상은 여성이지만 결국 가족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회관을 분석하였다. 가족의 욕구에 대응하는 각 기관의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의 <표 3-6> 과 같다.

5) 이러한 갈등은 두가지 관점에서 문제시 되었다. 첫째, 사회복지계의 개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후 개입이므로 일반가계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방, 증진(육성)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실천적 프로그램개발이나 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며 특히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접근하는 프로그램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6) 현행 각 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복지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상세내용은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표 3-6> 각 기관별 가족지원서비스 내용

가족의 욕구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관
가족의 경제적 지원	*지역사회조직 -자활지원사업 *교육문화사업 -취업관련 교육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경제적지원(후원금지원) -급식지원사업(식사배달 등)	*가정생활교육 -새테크 교육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 *일자리 창출 교육사업 *정보화교육, 기술교육
가족의 출산 및 양육부담	*가족기능강화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방과 후 아동 보호 및 보육,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신체적 장애관련프로그램 (장애아동 조기교실, 특수치료센터)		*장애아동 조기교실(일부)
가족의 부양부담	*가족기능강화사업 -부양가족지운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일시보호서비스(주간보호/단기보호) -정서서비스 -급식서비스 *일상생활지원		
가정과 직장의 양립	*가족기능강화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방과 후 아동보호 및 보육, 청소년공부방운영 등)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가족기능강화사업 -가족관계 증진사업 (교육·훈련프로그램, 상담 및 검사) *지역사회조직사업 -주민편의제공(가족페스티벌, 가족캠프 등)	*가정상담사업 -부부및 가족상담 *가정생활교육사업 -부부관계증진교육, 결혼준비, 부모교육 등 -가족문화홍보사업 -가족행사 (가족건강대회, 가족캠프 등)	*교육사업 -문화교양교육
가족상담 인프라	*가족기능강화사업 -가족관계증진사업(상담 및 검사) -가정문제 해결 및 치료 -(신체 및 정신장애관련 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 위기가정문제 폭력, 학대) *지역사회보호사업 -사례관리 *지역사회조직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가족상담사업 -아동상담, 집단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등	*상담사업 -여성, 청소년, 가족상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자원개발(인적·물적자원개발) -주민편의제공 (가족페스티벌, 가족캠프) -주민조직화 -주민이 주체되어 지역문제 해결하기	*가족상담사업 -자조모임운영 *가족문화홍보사업 -가족자원봉사활동 -가족행사 (가족건강대회, 가족캠프 등)	*문화서비스 제공 -공연, 전시회 등 문화활동제공

전체적으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서비스 내용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항목들이 가족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함께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들이다. 특히 가족의 경제적 지원, 가족의 출산 및 양육부담, 가족의 부양부담, 가정과 직장의 양립 등은 직접 서비스 지원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이다(정순돌 외,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적절성 측면에서 사업의 내용유무에 따라 비교해보면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에 근거하는 사업내용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가정의 출산과 양육부담, 가족의 부양부담,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필요한 사업내용이 다소 부족했으며 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도 간접적인 교육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여성회관의 경우에도 가족의 부양부담, 가정과 직장의 양립욕구에 해당하는 사업은 실시되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가족의 경제적 지원, 가족의 출산 및 양육부담, 가족의 부양부담,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관련한 서비스의 내용은 3기관 모두 취약하여 앞으로 가족지원서비스로 더 개발이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서비스들을 가족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자원의 개발과 연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제 4 장

전라북도 가족의 특성

- 제 1 절 가족의 구조적 특성 및 변화
- 제 2 절 사회조사통계로 본 전북가족, 복지의 특성

제 4 장 전라북도 가족의 특성

제 1 절 가족의 구조적 특성 및 변화

근대화 이후 한국 가족의 변화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1세대 가구의 증가와 3세대 가구의 감소, 직계가족의 감소와 핵가족의 증가,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비혼 및 이혼, 재혼이 늘어났으며 결혼이 선택 사항이 되는 등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도 상당히 많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 양상은 산업화 도시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리며 동시에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변화순 외, 2001).

전북지역의 경우도 전국의 경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몇 가지 지역적인 특성에 기초한 변화를 볼 수 있는 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구조 변화의 현황

1) 확대가족 감소와 1인가구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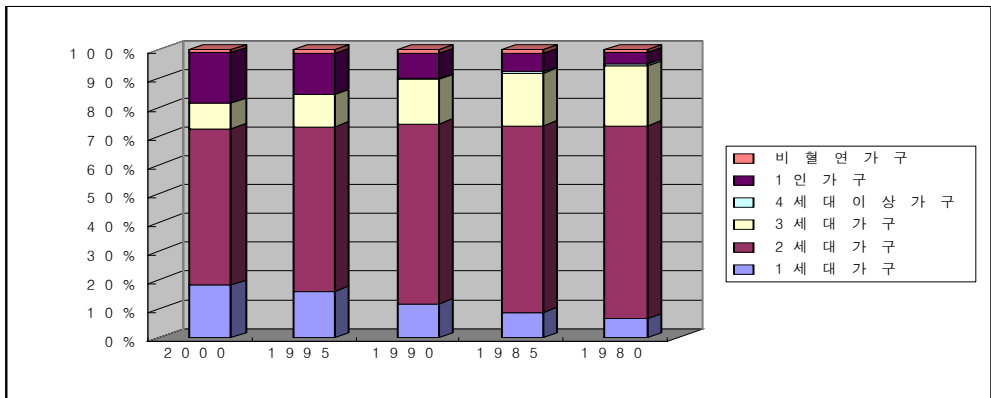
전라북도 가족의 세대별 가구구성의 변화는 아래 <표 4-1>과 <그림 4-1>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지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가장 뚜렷한 변화는 2세대 가구와 3세대 가구의 현저한 감소와 1세대 가구와 1인가구의 증가로 설명할 수가 있다.

<표 4-1> 세대별 가구 구성의 변화

전라북도	2000년		1995년		1990년		1985년		1980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총 가구수	601,965	100.0	556,985	100.0	517,181	100.0	489,567	100.0	451,763	100.0
□ 1세대가구	110,318	18.3	89,896	16.1	60,554	11.7	43,081	8.8	29,605	6.6
□ 2세대가구	326,249	54.2	318,964	57.3	323,091	62.5	316,999	64.8	303,177	67.1
□ 3세대가구	53,177	8.8	61,173	11.0	79,803	15.4	89,461	18.3	93,453	20.7
□ 4세대이상가구	1,184	0.2	1,448	0.3	2,123	0.4	2,716	0.6	2,956	0.7
□ 1인가구	104,780	17.4	78,676	14.1	44,712	8.6	30,806	6.3	18,221	4.0
□ 비혈연가구	6,257	1.0	7,098	1.3	6,898	1.3	6,504	1.3	4,351	1.0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80년과 2000년을 비교해 보면 3세대 가구의 경우 20.7%에서 8.8%로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하고, 4세대 가구는 0.7%에서 0.2%로 감소한 반면, 1세대 가구는 6.6%에서 18.3%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세대 가구는 67.1%에서 54.2%로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에서 보면 전국에 비해서 1세대 가구와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1세대 가구와 1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의 젊은 연령층이 취업과 교육 및 결혼 등을 이유로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노인부부와 노인1인가구의 증가에 기인한다.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그림 4-1> 전라북도 세대별 가구 구성의 변화

이와 같이 1인가구 및 1세대가구가 증가하는 것과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은 가족형태 변화에 대한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3세대 이상의 대가족이 감소하는 만큼의 비율이 1세대와 단독가구의 증가비율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가족의 감소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로 가족의 형태가 점차 다양화해 지는 추세를 잘 나타내고 있다(이재경, 2004).

2) 가족형태별 가구구성의 변화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가구수는 14,312천 가구로 가구구성을 보면 핵가족은 82.0%, 직계가족 7.9%, 기타가족 10.1%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가족형태별 가구구성을 보면 부부+미혼자녀가구가 57.8%로 가장 많고 부부가구 14.8%, 편부모+미혼자녀 가구 9.4%의 순이다. 가구구성비의 변동을 보면 1995년에 비해 핵가족의 부부가구가 2.2% 포인트, 편부모 자녀 가구가 0.8% 포인트 높아지고 그 외 가구들은 전부 낮아져 지속적인 핵가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의 가구구성에 비해 전북의 경우를 보면 부부와 자녀가 사는 가구가 41.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부가구 16.8% 편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가 7.6%의 순이다.

<표 4-2> 전국 가족형태별 가구의 변화

전 국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전체가구수		100.0	100.0	100.0	100.0
핵가족	부부	7.8	9.3	12.6	14.8
	부부, 자녀	57.8	58.0	58.6	57.8
	편부모, 자녀	9.7	8.7	8.6	9.4
직계가족	부부, 양친	0.8	0.9	1.1	1.1
	부부, 자녀, 양친	9.9	9.4	8.0	6.8
기타가족		14.0	13.8	11.2	10.1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가구구성비의 변동을 보면, 1995년에 비해 핵가족은 2.3%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부모를 모시고 사는 직계가족도 1.3% 포인트 줄어들었다. 전북지역 가족형태별 가구의 변화 중 가장 큰 특징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이 증가하고,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가 전국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젊은 연령층이 취업과 교육 및 결혼 등을 이유로 대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부부와 노인1인가구의 증가함에 기인한다. 전체적인 가구구성비의 변동을 보면 1995년에 비해 핵가족의 부부가구가 11.4% 포인트 높아지고, 그 외 가구들은 전부 낮아져 전북지역도 핵가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3> 전북가족형태별 가구의 변화

전라북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전체가구수		100.0	100.0	100.0	100.0
핵가족	부부	7.2	9.2	14.7	16.8
	부부, 자녀	50.5	47.3	43.8	41.1
	편부모, 자녀	9.8	8.4	7.6	7.6
직계가족	부부, 양친	0.2	0.2	0.2	0.2
	부부, 자녀, 양친	2.5	2.2	1.5	1.2
기타가족		29.8	32.7	32.2	33.1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3) 혼인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

최근 우리사회에서 나타난 가족의 변화 중 주목할 만한 현상은 혼인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이다. 인구동태 통계<표 4-4>에 의하면 우리나라 혼인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이혼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 조혼인율이 9.3에서 6.3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혼의 경우는 1990년의 45,694건에서 1995년 68,279건 그리고 2003년 167,096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혼인율은 1990년 1.1에서 1995년 1.5로 증가하고 2003년은 1990년과 비교하여 인구 1,000명당 이혼하는 건수가 5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표4-4> 전국 혼인수 및 이혼수

단위: %

년도	혼인수	조혼인율	이혼수	조이혼율	결혼에 대한 이혼율비
1980	403,031	10.6	23,662	0.6	5.9
1985	376,847	9.2	38,838	1.0	10.3
1990	399,312	9.3	45,694	1.1	11.4
1995	398,484	8.7	68,279	1.5	17.1
2000	334,030	7.0	119,982	2.5	35.9
2002	306,573	6.4	145,324	3.0	47.4
2003	304,932	6.3	167,096	3.5	54.8

주:*혼인수/해당년도인구×1,000

*이혼수/해당년도인구×1,000

*이혼수/혼인수×100

자료: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한편, 전북지역의 경우, 이혼의 경우는 1997년의 3,270건에서 2003년 6,295건으로 불과 6년 사이에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2003년 조이혼율도 3.2로 전국 평균 3.5보다는 낮은 편이나 1997년에 비해 두 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북지역도 이혼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2000년까지는 전북지역은 이혼율이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해왔으나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흔히 이혼율의 증가는 여성취업 증가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혼 후 여성들의 곤궁한 삶은 여성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4-5> 이혼율의 변화(전북, 1997-2003)

단위: %

년도	혼인수	이혼수	이혼율	조이혼율
1997	14,337	3,270	22.8	1.6
1998	13,306	4,145	31.2	2.1
1999	13,183	4,239	32.2	2.1
2000	11,362	4,200	37.0	2.1
2001	10,281	4,550	44.3	2.3
2002	10,687	5,179	48.5	2.6
2003	10,246	6,295	61.4	3.2

주: *이혼율은 이혼건수를 혼인건수로 나눈 것임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의 이혼건수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1997-2003)』, 전북여성통계연감, 2003

4) 출산율의 저하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출산율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가임기간 동안 여성 1명이 낳은 자녀수는 1.17명이다. 독신여성의 증가와 만혼 등으로 인해 합계출산율⁷⁾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여성은 가임기간 동안 1980년(2.83명) 가임기 여성과 비교하여 1.6명의 자녀를 적게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지역의 합계출산율의 경우, 97년에는 1.64의 수준이었으나, 2003년의 경우 1.26명으로 떨어져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수준까지 되었다.

<표 4-6> 전북지역 합계출산율

연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출산율	1.64	1.61	1.52	1.58	1.41	1.26	1.26

이러한 합계 출산력의 감소 요인으로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유배우 부인의 출산

7) 합계출산율이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력 감소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자녀교육의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양육과 취업이 갈등하는 현실적 조건에서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최근의 일반적 추세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변화순 외, 2001).

2. 가족형태의 다양화

가족형태의 다양화는 한부모가족, 1인가구, 1인가구중 미혼독신가구, 노인1인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재혼가족, 맞벌이가족 등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1) 한부모 가족

<표 4-7> 세대별 가구 구성의 변화

전라북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전체가구수	451,763	489,567	517,181	556,985	601,965
편부모, 자녀	46,269	47,765	43,701	42,178	45,746
	(10.2)	(9.8)	(8.4)	(7.6)	(7.6)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한부모가족은 사별, 미혼모, 이혼, 그리고 유기·가출·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인한 배우자와의 비동거에 의해 발생한다. 한부모+미혼자녀의 가구구성은 해마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경우, 1980년 보다 2000년의 경우 조금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별 이외에 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족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가족유형에 대한 정책적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2) 1인가구

1인가구는 1980년 4.0% 포인트에서 2000년 17.4% 포인트로 매우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인 1인가구의 증가와 취업, 학업 등으로 인한 1인가구의 형성, 미혼독신가구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다. 노인 1인가구의 증가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관련되는데, 평균수명은 영양상태의 개선, 의료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1970년 63.1세이던 평균수명은 2000년 78.0세로 상승하였다. 이 같은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가족의 증가와 특히 사별 후 혼자 사는 여성노인 1인가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표 4-8> 단독가구 수

전라북도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가구수	451,763	489,567	517,181	556,985	601,965
단독가구(1인가구)	18,221 (4.0)	30,806 (6.3)	44,712 (8.6)	78,676 (14.1)	104,780 (17.4)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3) 모자세대와 소년소녀가장세대

한부모가족 중 엄마와 자녀가 함께 사는 모자세대는 여성의 경제적인 능력이 남성에 비해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한 가족이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 가구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및 경제적 능력의 상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가족으로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족 중의 하나이다. 모자세대와 소년소녀가장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북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9> 모자세대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단위 : 세대, %

구	분	모 자 세 대 계	소년소녀 가장세대 계
	계	1,994(100.0)	1,152(100.0)
1997	거택보호	552(27.7)	846(73.4)
	자활보호	1,442(72.3)	306(26.6)
	계	5,293(100.0)	1,649(100.0)
1998	거택보호	1,511(28.5)	1,370(83.1)
	자활보호	3,782(71.5)	279(16.9)
	계	1,682(100.0)	904(100.0)
1999	거택보호	489(29.1)	778(86.1)
	자활보호	1,193(70.9)	126(13.9)

자료 : 전북여성통계연보 2000.

제 2 절 사회조사통계로 본 전북가족, 복지의 특성

1. 부모부양

1) 부모의 동거자

사회통계조사 결과 부모의 동거자를 살펴보면 2002년 전국의 경우 가족 중 장남의 비율이 24.6%로 가장 높고, 장남 이외의 아들(14.5%), 딸(3.6%)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에는 장남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23.0%였고, 장남이외의 아들(18.3%), 딸(4.2%)의 순서였다.

1998년도와 비교해보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은 줄고, 가족과 따로 사는 비율이 늘어나 점점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동거자에 대하여 교육수준별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초졸 이하의 학력 집단에 비해 대졸이상의 학력층에서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비율이 2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10> 부모의 동거자

단위 : %

	가구주	부 모 안계심	부 모 계 심	가구주 부모의 동거자						
				가 족	장 남	장 남 이외의 아 들	딸	따 로 살 고 있 음	기타	
1998										
전 국	100.0	34.0	66.0	54.6	30.8	19.4	4.3	44.9	0.5	
전 북	100.0	44.1	55.9	53.0	28.1	21.9	3.0	46.7	0.2	
2002										
전 국	100.0	38.0	62.0	42.7	24.6	14.5	3.6	56.7	0.6	
전 북	100.0	45.2	54.8	45.5	23.0	18.3	4.2	54.3	0.3	
연 령										
15 ~ 29세	100.0	3.6	96.4	25.6	13.1	8.2	4.4	73.5	0.9	
30 ~ 39세	100.0	8.8	91.2	36.7	20.1	13.2	3.4	62.8	0.5	
40 ~ 49세	100.0	26.2	73.8	45.5	26.7	15.5	3.4	53.9	0.6	
50 ~ 59세	100.0	54.2	45.8	61.3	37.8	20.1	3.3	38.0	0.8	
60세이상	100.0	89.8	10.2	72.1	44.8	22.0	5.3	26.6	1.3	
교육정도										
초졸이하	100.0	75.7	24.3	62.6	37.5	20.3	4.8	36.2	1.2	
중 졸	100.0	47.8	52.2	53.7	32.2	17.8	3.7	45.8	0.5	
고 졸	100.0	28.6	71.4	43.1	24.7	14.7	3.6	56.3	0.7	
대졸이상	100.0	18.3	81.7	33.6	18.7	11.7	3.2	65.9	0.5	

자 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2002.

2) 부모 생계부양자

가구주 부모의 생계부양자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과 전북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전국의 경우 1998년도와 2002년도 조사에서 가족이 부양하는 비율은 58.2%에서 53.3%로 줄어든 반면에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41.6%에서 46.3%로 늘어났으나, 전북의 경우 그러한 변화의 차이가 없이 가족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경우 가족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84.9%나 되었고,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상의 고학력 계층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11> 부모 생계부양자

단위 : %

	부 모 계 신 가구주	가구주 부모의 생계부양자					스스로 해 결	기타
		가족	장남	아들들	딸들	아들과 딸 들		
1998								
전 국	100.0	58.2	27.0	19.8	1.8	9.6	41.6	0.2
전 북	100.0	59.6	26.1	22.6	2.0	8.9	40.0	0.5
2002								
전 국	100.0	53.3	22.7	17.5	1.7	11.4	46.3	0.5
전 북	100.0	59.7	23.5	19.8	1.9	14.5	39.9	0.5
연 령								
15 ~ 29세	100.0	19.4	7.6	4.5	1.2	6.0	80.3	0.3
30 ~ 39세	100.0	42.0	16.2	13.8	1.4	10.6	57.8	0.3
40 ~ 49세	100.0	64.5	26.9	22.6	1.9	13.2	35.0	0.5
50 ~ 59세	100.0	80.3	39.3	25.7	2.0	13.4	18.8	0.9
60세이상	100.0	84.9	42.6	24.9	2.6	14.8	13.9	1.2
교육정도								
초졸이하	100.0	77.5	37.3	24.4	3.5	12.4	21.1	1.4
중 졸	100.0	67.6	31.0	21.3	1.9	13.4	31.8	0.6
고 졸	100.0	54.1	22.8	18.1	1.7	11.5	45.6	0.3
대졸이상	100.0	41.3	16.1	13.7	1.1	10.3	58.3	0.5

자 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2002.

3)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노부모를 누가 부양해야 하는가의 견해를 보면 대부분이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응답율은 전국에 비해 전북의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부양에 있어서 부양의 주체는 자식 중 능력 있는 자가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높게 나타났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율은 10% 미만이었으며 2002년에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응답한 결과 응답율이 전국 18.2%, 전북 14.5%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의 책임’은 줄어든 반면에 ‘가족과 정부사회’의 책임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부모부양에 대해 연령별 집단간의 차이를 보면 60세 이상은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율이 높았고 그 중 장남이 해결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3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가족과 정부사회의 역할에 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남보다는 자식 중 능력 있는 자가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으로 갈수록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가 높았으며,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가족과 정부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이 높았다.

<표 4-12>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

	15세 이상 인구	스스로 해결	가족	장남	아들들	딸(들)	아들과 딸	자식중 능력 있는자	가족과 정부사회	정 부 사회	기타 ¹⁾
1998											
전 국	100.0	8.1	89.9	22.4	7.0	0.5	14.5	45.5	-	1.9	0.1
전 북	100.0	5.9	93.3	26.3	9.3	0.2	11.6	45.9	-	0.8	0.1
2002											
전 국	100.0	9.6	70.7	15.1	13.9	1.0	19.5	21.2	18.2	1.3	0.2
전 북	100.0	7.0	77.1	16.2	15.0	1.0	23.3	21.5	14.5	1.1	0.3
연 령											
15~19세	100.0	11.2	67.5	9.4	8.6	2.2	21.1	26.2	19.3	1.8	0.3
20~29세	100.0	9.0	66.5	10.8	11.1	1.4	21.4	21.8	23.0	1.3	0.2
30~39세	100.0	7.9	68.3	12.3	14.2	0.9	20.7	20.2	22.5	1.1	0.1
40~49세	100.0	7.5	74.0	13.4	16.0	0.7	21.2	22.7	17.1	1.2	0.2
50~59세	100.0	11.0	73.7	17.3	15.9	0.5	17.3	22.7	14.0	1.2	0.2
60세이상	100.0	13.6	74.8	28.5	15.5	0.7	13.9	16.1	9.8	1.6	0.2
교육정도											
초졸이하	100.0	11.2	77.1	27.1	15.7	0.7	15.3	18.2	10.1	1.4	0.2
중 졸	100.0	9.9	73.4	14.1	13.6	1.2	20.0	24.5	15.1	1.4	0.2
고 졸	100.0	8.7	70.7	12.2	14.0	1.0	20.8	22.7	19.4	1.1	0.2
대졸이상	100.0	9.8	62.9	11.0	12.1	1.0	20.2	18.5	25.5	1.5	0.2

자 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2002.

4)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향후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대해 같이 살고 싶다는 응답은 전국 53.0%, 전북 52.7%였으며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45.8%, 46.6%로 나타났다. 같이 살지 않는 대신에 자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전국 24.9%, 전북 25.2%였고 가끔 만나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전국 20.1%, 전북 20.4%였다. 한편, 왕래 없이 살고 싶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국 0.8%, 전북 1.0%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초고령 일수록 자녀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단위 : %

	60세이상 인 구	같이살고 싶 다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기 타
				자주 만나식사, 이야기 함	가끔 만나 이야기 함	왕래없이 살고싶다	
2002 전 국	100.0	53.0	45.8	24.9	20.1	0.8	1.2
전 북	100.0	52.7	46.6	25.2	20.4	1.0	0.7
연 령							
60~64세	100.0	43.5	55.5	31.6	23.3	0.6	1.0
65~69세	100.0	49.7	49.3	27.1	21.2	1.0	1.0
70~79세	100.0	60.3	38.5	19.1	18.4	1.0	1.3
80세이상	100.0	75.9	21.6	11.8	8.8	0.9	2.4

자 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2002.

5) 가구원의 노후준비 방법

가구원의 노후준비 방법에 대한 응답으로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응답율이 1998년에 비하여 2002년도에의 경우는 조금 높아졌다. 전국의 응답율에서 보면 노후준비를 하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고 있으나 전북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노후준비방법으로는 2002년 결과에서 보면 21.1%가 공적 연금, 13.4%는 사적 연금, 그리고 11.9%는 예금 및 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부동산, 퇴직금, 주식채권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율은 비교적 낮았으며 전국과 전북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14> 가구원의 노후준비 방법

단위 : %

	15세이상 인 구	준비 있음									준비 없음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부동산 운 용	주식 채권	계	기타		
1998												
전 국	100.0	32.9	7.7	9.6	2.0	11.5	1.9	0.0	0.1	0.0	67.1	
전 북	100.0	33.2	8.8	9.1	1.8	11.8	1.6	-	0.1	0.1	66.8	
2002												
전 국	100.0	51.4	21.2	13.4	1.7	11.9	2.8	0.1	0.1	0.1	48.6	
전 북	100.0	48.4	20.0	11.8	2.2	12.2	1.9	0.2	0.1	0.1	51.6	
연 령												
20~29세	100.0	33.0	13.6	8.7	0.5	9.8	0.2	0.1	0.0	0.1	67.0	
30~39세	100.0	65.7	26.9	21.9	1.6	13.4	1.4	0.2	0.1	0.1	34.3	
40~49세	100.0	70.2	31.1	20.6	2.4	12.3	3.4	0.2	0.1	0.1	29.8	
50~59세	100.0	69.0	31.1	12.8	2.9	15.5	6.1	0.3	0.3	0.2	31.0	
60세이상	100.0	42.8	13.1	5.1	2.0	15.3	6.6	0.1	0.3	0.3	57.2	

자 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2002.

2. 가족관계 만족도

1)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중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시기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다. 2002년도 결과를 볼 때 만족한다는 비율은 전국은 60.7%, 전북은 61.9%로 나타나 전북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불만이라는 비율은 전국 7.5%와 전북 5.9%로 배우자의 만족도에서는 전북의 경우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는 낮았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49세로 8.3%가 응답하였다.

<표 4-15> 배우자와의 관계

단위: %

	15세이상 인 구	만 족			보통	불 만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매우	
1998								
전 국	100.0	58.8	27.3	31.5	32.8	8.5	6.4	2.1
전 북	100.0	58.7	23.5	35.2	33.7	7.6	6.1	1.5
2002								
전 국	100.0	60.7	34.6	26.1	31.8	7.5	5.2	2.3
전 북	100.0	61.9	32.5	29.4	32.2	5.9	4.8	1.1
연 령								
15 ~ 19세	100.0	89.1	61.0	28.2	8.6	2.3	-	2.3
20 ~ 29세	100.0	74.5	50.6	23.9	20.0	5.5	3.9	1.6
30 ~ 39세	100.0	67.8	40.5	27.3	25.1	7.2	5.0	2.2
40 ~ 49세	100.0	57.8	32.5	25.3	33.9	8.3	5.6	2.7
50 ~ 59세	100.0	54.0	29.4	24.6	38.4	7.7	5.5	2.2
60세이상	100.0	53.5	25.2	28.3	39.2	7.3	5.1	2.2
교육정도								
초졸이하	100.0	50.1	21.9	28.2	41.0	8.9	6.3	2.6
중 졸	100.0	51.1	26.3	24.8	39.8	9.1	6.0	3.1
고 졸	100.0	61.7	35.7	25.9	30.7	7.6	5.3	2.3
대졸이상	100.0	74.2	48.5	25.7	20.9	4.9	3.4	1.5

자 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2002.

2) 자녀와의 관계

가족관계 만족도 중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정도는 전국보다는 전북지역의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1998년도 조사에서보다는 2002년도 조사에서 조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상의 학력층에서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자녀와의 관계

단위: %

	15세이상 인 구	만 족	만족		보통	불 만	불만	
			매우	약간			약간	매우
1998								
전 국	100.0	65.2	31.7	33.5	29.3	5.6	4.9	0.6
전 북	100.0	63.1	26.0	37.1	31.3	5.6	5.1	0.5
2002								
전 국	100.0	69.1	39.1	30.0	26.6	4.3	3.6	0.7
전 북	100.0	71.6	38.3	33.4	25.3	3.1	2.5	0.6
연 령								
15 ~ 19세	100.0	100.0	73.4	26.6	-	-	-	-
20 ~ 29세	100.0	87.2	69.0	18.2	12.0	0.8	0.6	0.2
30 ~ 39세	100.0	82.0	55.5	26.5	16.5	1.5	1.4	0.1
40 ~ 49세	100.0	68.8	37.5	31.2	27.1	4.1	3.6	0.5
50 ~ 59세	100.0	61.3	29.7	31.6	33.5	5.2	4.5	0.7
60세이상	100.0	56.9	23.1	33.8	35.5	7.6	6.1	1.5
교육정도								
초졸이하	100.0	57.7	23.6	34.1	35.1	7.2	5.9	1.4
중 졸	100.0	62.3	31.0	31.3	32.4	5.2	4.6	0.7
고 졸	100.0	73.3	45.0	28.3	23.7	3.0	2.7	0.4
대졸이상	100.0	81.3	54.1	27.1	16.8	2.0	1.7	0.2

자 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2002.

3. 결혼에 대한 가치관

1) 결혼에 대한 견해

결혼에 대한 견해로는 2002년 결과 전국 응답자의 25.6%, 전북지역 응답자의 30.4%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전국 응답자 43.5%, 전북지역 응답자 42.4% 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응답은 전국 27.2%와 전북 24.2%의 응답율을 보여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북지역이 약간은 보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1998년과 비교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율이 줄고, 반면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응답율이 늘어 전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은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에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의견에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어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 세대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반드시 해야한다에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표 4-17> 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

	15세이상 인 구	반 드 시 해야한다	하는것이 좋 다	해도 좋고 안해도좋다	하지않는 것이좋다	하지 말아야 한 다	잘 모르겠다
1998							
전 국	100.0	33.6	39.9	23.8	1.1	0.2	1.4
전 북	100.0	39.6	40.5	18.1	0.8	0.1	1.0
2002							
전 국	100.0	25.6	43.5	27.2	1.7	0.2	1.8
전 북	100.0	30.4	42.4	24.2	1.6	0.1	1.3
연 령							
15~19세	100.0	16.2	41.4	36.0	1.5	0.3	4.6
20~29세	100.0	17.7	47.0	32.1	1.4	0.2	1.6
30~39세	100.0	14.7	45.2	35.5	2.7	0.3	1.5
40~49세	100.0	20.8	46.2	29.5	1.8	0.2	1.4
50~59세	100.0	37.3	43.9	16.2	1.3	0.2	1.2
60세이상	100.0	54.0	33.6	9.5	1.0	0.2	1.7
교육정도							
초졸이하	100.0	47.1	34.8	14.2	1.3	0.2	2.3
중 졸	100.0	24.6	43.1	27.3	2.0	0.2	2.7
고 졸	100.0	19.2	44.8	32.1	2.1	0.3	1.6
대졸이상	100.0	19.7	48.9	29.2	1.2	0.2	0.8

자 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2002.

2) 이혼에 대한 견해

이혼에 대한 견해는 어떤 이유라도 안된다(19.1%)와 가급적 안된다(41.3%)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 따라 이혼을 선택 하겠다는 입장의 비율이 높았다.

이혼에 대한 견해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은 불가하다는 견해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이혼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에서 이혼은 안된다는 의견이 높았고 고학력층 일수록 이혼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8> 이혼에 대한 견해

단위: %

	15세이상 인 구	어 떤 이유라도 안 된 다	가 급 적 안 된 다	할수도있고 하지않을수 도 있다	이 유 가 있 으 면 하 는 것 이 좋 다	이 유 가 있 으 면 반 드 시 해 야 한다	잘 모르겠다
1998							
전 국	100.0	19.0	41.3	29.1	7.4	1.2	2.0
전 북	100.0	19.1	42.8	26.7	8.1	1.5	1.7
2002							
전 국	100.0	16.9	41.5	32.9	5.9	0.7	2.2
전 북	100.0	18.6	44.1	30.6	4.9	0.4	1.4
연 령							
15~19세	100.0	9.5	32.2	42.7	8.2	1.3	6.1
20~29세	100.0	8.9	35.3	45.2	7.2	1.0	2.4
30~39세	100.0	11.3	41.2	38.5	6.5	0.7	1.8
40~49세	100.0	14.4	46.8	30.7	5.8	0.7	1.6
50~59세	100.0	21.9	48.9	23.4	4.2	0.4	1.1
60세이상	100.0	38.7	42.3	13.5	3.3	0.4	1.8
교육정도							
초졸이하	100.0	33.2	41.5	18.4	3.9	0.6	2.4
중 졸	100.0	15.7	40.7	32.7	6.5	0.9	3.6
고 졸	100.0	12.7	41.1	36.8	6.5	0.8	2.0
대졸이상	100.0	11.3	42.9	38.1	5.9	0.6	1.2

자 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2002.

3) 재혼에 대한 견해

재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50%정도의 응답자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으나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 하지말아야 한다는 비율을 비교해볼 때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응답비율도 20%정도를 넘고 있다. 재혼에 대한 의견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좀 더 개방적인 분위기로 흐르고 있음을 1998년과 2000년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재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9> 재혼에 대한 견해

단위: %

	15세이상 인 구	반 드 시 해야한다	하는것이 좋 다	해도 좋고 안해도좋다	하지않는 것이좋다	하지 말아야 한 다	잘 모르겠다
1998							
전 국	100.0	2.5	17.4	52.2	14.8	4.4	8.7
전 북	100.0	2.9	19.6	50.5	17.2	3.2	6.6
2002							
전 국	100.0	1.8	18.9	52.0	12.8	3.9	10.6
전 북	100.0	2.1	20.5	48.7	15.3	4.5	8.8
연 령							
15~19세	100.0	1.3	12.8	57.7	9.0	2.3	16.9
20~29세	100.0	1.5	17.3	61.1	7.2	1.8	11.0
30~39세	100.0	1.2	16.8	56.4	12.0	2.7	10.9
40~49세	100.0	1.6	19.3	49.7	15.9	3.5	10.1
50~59세	100.0	2.1	22.6	46.4	15.4	4.7	8.9
60세이상	100.0	3.2	24.3	38.1	17.5	8.8	8.2
교육정도							
초졸이하	100.0	2.6	22.3	40.3	16.7	8.3	9.8
중 졸	100.0	1.8	18.0	49.3	13.5	3.7	13.6
고 졸	100.0	1.6	17.9	54.6	12.6	2.7	10.5
대졸이상	100.0	1.3	18.8	59.3	9.4	2.2	9.1

자 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2002.

4. 자녀양육과 가사분담

1) 자녀양육

만10세 이하 자녀의 양육실태를 보면 부모가 돌보고 있는 비율이 2002년 60%대로 가장 높고 그 외에는 가족 및 친인척이 돌보고 있는 경우가 전국 11.9%와 전북 11.2%, 학원에 보낸다는 응답은 전국 11.2%와 전북 9.6%의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는 주로 가족에 의해 분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은 보호자의 연령에 따라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20대의 경우 대부분이 어린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고 있었고, 35세 이상의 경우는 취학아동이 대부분이어서 학교 이외의 시설인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활동을 하는 부모일수록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는 적었으며 가족과 친인척 및 보육시설, 학원에서 돌보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0> 만10세 이하 자녀 양육실태

단위 : %

	10세 이하 자녀 ¹⁾	자녀의 부모	가족 친인척	파출부 가정부	유치원	보육 ²⁾ 시설	학원 ³⁾	집에 그대로 돌	기타 ⁴⁾
1998									
전국	100.0	52.6	9.7	0.9	17.0	12.6	4.7	0.6	1.9
전북	100.0	49.9	14.1	0.5	18.9	12.1	3.0	1.6	-
2002									
전국	100.0	62.6	11.9	0.7	4.3	6.3	11.2	2.8	0.1
전북	100.0	61.3	11.2	0.3	7.0	7.7	9.6	2.9	-
보호자연령									
25세미만	100.0	83.7	9.0	-	2.3	4.9	-	-	-
25~29세	100.0	71.6	11.4	0.5	3.1	9.4	3.7	0.3	-
30~34세	100.0	64.6	11.0	0.7	5.6	6.7	9.4	1.9	0.1
35~39세	100.0	60.7	7.8	1.0	3.2	5.0	17.2	5.0	0.2
40세이상	100.0	45.0	25.7	0.6	4.7	4.4	15.1	4.5	-
보호자활동상태									
취업	100.0	34.6	21.5	1.5	6.9	10.5	19.2	5.8	0.1
실업	100.0	52.0	9.5	-	16.0	2.5	15.0	5.1	-
비경제활동	100.0	84.5	4.5	0.1	2.2	3.1	5.0	0.5	0.0

주 : 1) 1998년조사는 취학전 자녀를 대상으로 함

2) 보육시설 : 어린이집, 놀이방, 직장내 보육시설 등

3) 학원 : 예체능학원, 태권도학원, 보습학원 등

4) 기타에 선교원 포함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2002.

2) 여성취업 장애요인

여성의 취업에 대한 장애요인으로서는 1998년도 응답에서는 사회적 편견관행과 육아부담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2002년도 조사결과에서는 사회적 편견관행의 비율은 줄어들고 육아부담에 대한 응답이 늘어나 여성의 직업생활에 육아가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표 4-21> 여성취업 장애요인

단위 : %

	15세 이상 인구	사회적 편견관행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일에대한 여성능력부족	구인정보 구하기 어렵다	육아부담	가사부담	기타	모름
1998										
전국	100.0	28.2	10.0	12.5	4.3	-	29.3	10.6	0.1	5.1
전북	100.0	27.6	9.0	12.7	5.2	-	26.5	13.3	0.1	5.6
2002										
전국	100.0	22.8	6.3	12.4	2.3	2.0	38.8	8.9	0.1	6.4
전북	100.0	24.6	5.7	11.8	2.4	2.7	36.8	10.3	-	5.7
연령										
15~19세	100.0	34.4	5.3	14.4	1.9	1.3	24.0	7.4	0.1	11.2
20~29세	100.0	27.3	6.8	15.3	1.6	1.5	38.3	5.4	0.1	3.7
30~39세	100.0	19.8	6.7	10.0	1.8	2.1	50.2	6.6	0.1	2.8
40~49세	100.0	22.4	7.5	13.8	3.1	2.9	34.1	11.8	0.1	4.2
50~59세	100.0	21.7	6.1	13.0	3.5	2.1	36.7	10.9	0.0	5.9
60세이상	100.0	16.3	3.9	8.6	2.3	1.7	39.0	12.4	0.0	15.9
교육정도										
초졸이하	100.0	17.4	3.5	10.1	2.6	2.1	35.9	13.1	0.0	15.3
중졸	100.0	26.0	5.2	13.5	2.7	2.1	30.8	10.9	0.0	8.7
고졸	100.0	24.1	6.7	13.1	2.2	2.1	39.9	8.0	0.1	3.8
대졸이상	100.0	22.6	8.7	12.0	2.0	1.8	45.6	5.5	0.1	1.8
활동상태										
취업	100.0	22.1	7.0	12.7	2.4	2.0	39.3	9.3	0.1	5.0
실업	100.0	27.3	6.6	15.2	2.6	2.4	31.5	6.9	0.1	7.4
비경제활동	100.0	23.7	5.0	11.7	2.1	2.0	38.4	8.4	0.1	8.7

자 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2002.

연령별로 보면, 취업의 진입연령인 10대와 20대 초반은 사회적 편견관행이 취업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는 연령인 30대는 육아부담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었다. 학력수준별로는 사회적 관행을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육아부담에 대한 비율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평소 가사분담 실태

함께 사는 부부 중 부인에게 평소의 가사분담 실태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부인이 주도한다는 응답이 1998년도에 전국의 경우 92.0%가 응답하였고, 전북의 경우 92.5%가 부인이 주도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에는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비율과 부인이 주로, 남편도 분담한다는 비율이 포함되어 있는데 남편도 어느 정도 분담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2> 평소 가사분담 실태

단위 : %

	함께사는 부부 중 부인	부인 주도	부인 이		공평하게 공분담	남편 주도	남편 이	
			전적으로 책임	주로 책임			전적으로 책임	주로 책임
1998								
전국	100.0	92.0	44.9	47.1	5.7	2.2	2.0	0.2
전북	100.0	92.5	47.0	45.5	5.1	2.3	1.9	0.4
2002								
전국	100.0	88.9	37.9	51.0	8.1	3.0	2.5	0.5
전북	100.0	89.7	34.6	55.0	7.1	3.2	2.8	0.4
연령								
15~29세	100.0	87.1	29.1	58.0	11.2	1.7	1.3	0.5
30~39세	100.0	91.5	40.7	50.9	6.7	1.7	1.4	0.4
40~49세	100.0	89.2	37.3	51.9	7.4	3.4	3.1	0.4
50~59세	100.0	86.7	36.8	49.9	9.0	4.3	3.6	0.7
60세이상	100.0	85.6	40.9	44.7	9.4	4.9	4.1	0.8
교육정도								
초졸이하	100.0	84.6	39.8	44.8	10.4	5.0	4.4	0.7
중졸	100.0	87.2	37.2	49.9	8.4	4.4	3.7	0.7
고졸	100.0	91.0	38.6	52.4	6.8	2.2	1.8	0.4
대졸이상	100.0	90.6	33.9	56.7	8.3	1.1	0.8	0.3
활동상태								
취업	100.0	86.3	33.3	53.1	10.1	3.6	3.3	0.3
실업	100.0	90.8	37.6	53.1	7.3	1.9	1.9	-
비경제활동	100.0	91.6	43.0	48.6	5.9	2.5	1.7	0.7

자 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2002.

1998년과 2000년도의 시간적인 변화를 비교해보면 부인이 주도한다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부인과 남편이 분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분담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함께 사는 부부중 부인에게 평소의 가사분담 실태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로는 부인이 주도한다는 응답이 1998년도에 90%가 넘어 전국의 경우 92.0%가 부인이 주도한다고 응답하였고, 전북의 경우 92.5%가 부인이 주도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에는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비율과 부인이 주로, 남편도 분담한다는 비율이 포함되어 있어 이 두 응답의 비율이 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2년의 결과를 보면 1998년에 비해 부인이 주도한다는 응답이 조금 줄어 전국과 전북이 88.9%와 89.7%의 응답율을 보인 반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이 조금 높아져 가사분담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4) 가사분담 견해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와는 달리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부부의 취업상태에 따라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표4-23>을 보면 맞벌이 부부와 남편만 취업한 경우, 부인만 취업한 각각의 경우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비율보다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남편만 취업한 경우는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90%에 달해 전업주부는 가사를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부인만 취업한 경우는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비율은 30%, 남편이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42.5%로 취업상태에 따라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3> 가사분담 견해

단위 : %

		15세이상 인구	부인이 주도	부 전적 이 로 임	부 주 남 편 이 로 도 담	공 평 하 게 담	남 편 이 도	남 주 부 편 이 로 도 담	남 편 이 로 임	
1998	맞벌이 부부	전국	100.0	47.0	3.3	43.7	51.2	1.8	1.6	0.2
		전북	100.0	40.7	2.8	37.9	58.1	1.2	1.1	0.1
	남편만 취업	전국	100.0	90.6	33.5	57.1	7.3	2.1	1.5	0.6
		전북	100.0	91.6	33.0	58.6	6.7	1.7	1.2	0.5
부인만 취업	전국	100.0	31.0	2.5	28.5	26.5	42.5	38.6	3.9	
	전북	100.0	30.1	1.8	28.3	23.0	47.0	44.5	2.5	
2002										
전국		100.0	65.9	7.2	58.7	30.7	3.3	2.8	0.5	
전북		100.0	64.0	6.2	57.8	32.3	3.7	3.2	0.5	
연령										
15~19세		100.0	33.9	1.2	32.7	64.6	1.5	1.3	0.2	
20~29세		100.0	50.4	2.0	48.5	47.8	1.8	1.6	0.2	
30~39세		100.0	74.2	5.8	68.3	23.2	2.6	2.0	0.6	
40~49세		100.0	74.9	7.6	67.3	20.2	4.9	4.0	0.8	
50~59세		100.0	73.2	9.2	64.0	21.5	5.3	4.6	0.8	
60세이상		100.0	74.1	17.5	56.6	22.0	3.9	3.4	0.5	
교육정도										
초졸이하		100.0	70.2	14.4	55.8	26.3	3.5	3.0	0.5	
중졸		100.0	58.9	6.1	52.8	36.9	4.2	3.5	0.7	
고졸		100.0	66.8	5.8	61.0	29.8	3.4	2.9	0.5	
대졸이상		100.0	66.0	4.5	61.5	31.6	2.4	1.9	0.6	
활동상태										
취업		100.0	68.5	7.6	61.0	27.6	3.8	3.2	0.6	
실업		100.0	60.9	5.5	55.4	35.7	3.4	2.7	0.7	
비경제활동		100.0	61.9	6.8	55.2	35.5	2.6	2.2	0.4	

자 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2002.

5) 생활여건의 변화 - 문화, 여가생활

생활여건의 변화와 관련해서 문화 여가생활의 변화는 좋아졌다는 응답이 전국 37.3%, 전북 39.4%로 전국에 비하여 전북이 약간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전국 42.4%, 전북 41.1%, 나빠졌다는 응답은 전국 13.5%, 전북 13.2%로 각 항목에 있어 전국과 전북지역이 비슷한 응답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문화와 여가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문화와 여가

생활이 취약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와 여가생활이 좋아졌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와 여가생활의 여건이 그대로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좋아졌다는 응답율이 가장 낮고 변화없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들의 3가지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무위와 관련하여 적절한 여가문화의 조성이 열악한 형편임을 추정할 수 있다.

<표 4-24> 생활여건의 변화 - 문화, 여가생활

단위 : %

	15세이상 인구	좋아짐	변화		변화 없음	나빠짐	모름		모르 겠음
			많이	약간			약간	많이	
2002									
전국	100.0	37.3	5.8	31.4	42.4	13.5	8.7	4.7	6.9
전북	100.0	39.4	5.3	34.1	41.1	13.2	8.0	5.2	6.3
연령									
15~19세	100.0	42.8	8.9	33.9	35.8	9.7	6.3	3.4	11.8
20~29세	100.0	48.5	8.4	40.0	36.1	11.5	7.9	3.6	4.0
30~39세	100.0	38.3	5.2	33.1	41.0	16.8	10.3	6.6	3.9
40~49세	100.0	34.2	5.2	29.0	44.9	15.6	9.3	6.3	5.4
50~59세	100.0	32.8	4.7	28.1	46.7	13.1	9.1	4.0	7.4
60세이상	100.0	26.0	3.4	22.5	49.6	10.5	7.7	2.8	13.9

자 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2002.

제 5 장

가족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 제 1 절 조사대상 및 가구의 일반특성
- 제 2 절 경제생활 실태
- 제 3 절 출산 및 자녀양육
- 제 4 절 돌봄 및 가사노동
- 제 5 절 부부관계 만족도 및 가치관
- 제 6 절 가정과 직장의 양립
- 제 7 절 가족여가활동
- 제 8 절 가족갈등 및 결속력
- 제 9 절 가족지원 정책 및 복지욕구

제 5 장 가족실태 욕구조사 결과

제 1 절 조사대상 및 가구의 일반특성

1. 조사대상의 일반특성

1) 응답자의 성별 연령분포

최종 분석된 999명(남자 406명, 여자 593명)의 전체 응답자 가운데 38%는 40대이며, 34%가 30대이다. 50대가 20.4%, 20대가 7.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성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5-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

	응답자의 성별		
	전체(N=999)	남자(N=406)	여자(N=593)
연령			
20대	7.4	5.9	8.4
30대	34.0	31.3	35.9
40대	38.1	40.9	36.3
50대	20.4	21.9	19.4
계	100.0	100.0	100.0
학력			
무학	.4	.0	.7
초등학교	6.0	3.4	7.8
중학교	12.9	8.1	16.2
고등학교	45.6	40.9	48.9
전문대학	14.2	18.5	11.3
대학교	17.8	23.6	13.8
대학원	3.0	5.4	1.3
계	100.0	100.0	100.0
취업상태 여부			
취업중	81.9	98.5	70.5
미(비)취업	18.1	1.5	29.5
계	100.0	100.0	100.0

2) 응답자의 학력

전체 응답자의 45.6%가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35%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6%에 지나지 않지만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1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고학력일수록 남성의 비율이 높고 저학력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응답자의 직업 및 종사상의 지위

<표 5-2> 응답자의 직업 및 종사상의 지위

단위 : %

	응답자의 성별		
	전체(N=818)	남자(N=400)	여자(N=418)
직업			
고위직 관리자	.4	.8	.0
전문가	2.3	1.8	2.9
기술공 및 준전문가	3.7	7.3	.2
공무원/교사	11.5	14.5	8.6
공공기관 종사자	2.7	4.0	1.4
사무종사자	7.6	11.0	4.3
서비스종사자	10.6	9.0	12.2
판매종사자	11.5	8.5	14.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7.2	30.0	44.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4.6	6.8	2.6
단순노무종사자	4.3	2.8	5.7
기타	3.7	3.8	3.6
계	100.0	100.0	100.0
종사상의 지위			
고용주	2.8	4.0	1.7
상용고	32.0	46.0	18.7
임시고/일용고	12.3	5.8	18.7
자영업자	46.0	44.3	47.6
무급가족종사자	6.8	.0	13.4
계	100.0	100.0	100.0

취업상태에 있는 응답자는 818명으로 81.9%이고, 미(비)취업상태에 있는 응답자는 181명으로 무직, 주부,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취업상태에 있는 응답자 818명

가운데 농림어업종사자 37.2%를 제외하면 공무원/교사, 판매직종사자가 각각 11.5%로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업 종사자가 10.6%, 사무직종사자가 7.7%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응답자 가운데서 농림어업종사자를 제외하면 공무원/교사가 1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사무직종사자, 서비스업 종사자, 판매직 종사자, 기능원 등의 순이다. 여성응답자 가운데서는 농림어업종사자를 제외하고 판매직종사자, 서비스업 종사자, 공무원/교사, 단순노무종사자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종사상의 지위는 자영업자가 46%, 상용고가 32%, 임시고/일용고가 12.3%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응답자의 경우에는 상용고와 자영업자가 각각 46%와 44.3%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여성응답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47.6%를 제외하면, 상용고가 18.7%로 남성에 비해 매우 낮고 임시고/일용고가 18.7%로 비율이 높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로 응답한 비율이 13.4%로 나타나 여성응답자의 경우에는 남편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특성

1) 주거형태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46.3%로 가장 많은데 여기에는 조사대상인 농촌거주 가구가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음으로는 45.4%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형태에서 기타에 8가구가 응답하였는데, 여기에는 오피스텔(2명), 비닐하우스나 움막(1명), 임시가건물(2명) 등에 주거하고 있는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2) 가구원수 및 자녀수

다음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4.33명이며, 가구의 평균자녀수는 2.18명이다. 자녀수 가운데 남아는 1.11명, 여아는 1.07명으로 남아가 약간 많다. 출

산자녀수는 가구평균 2.27명(남아 1.15명, 여아 1.11명)으로 영유아사망의 경우가 약간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자녀수는 출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기하고 있는 35가구를 포함하여 산출하였는데, 이들 35가구 가운데 응답자의 연령이 20대인 경우가 48.6%, 30대가 4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1명이 자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5-3>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전체	999	100.0
주거형태			
	단독주택	463	46.3
	다세대주택	16	1.6
	연립주택	31	3.1
	아파트	454	45.4
	점포주택등 복합용도주택	19	1.9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상가,공장 등)	8	0.8
	기타	8	0.8
가구원수			
	2명	34	3.4
	3명	113	11.3
	4명	503	50.4
	5명	240	24.0
	6명	70	7.0
	7명	30	3.0
	8명	9	0.9
자녀수(남)			
	0명	220	22.0
	1명	485	48.5
	2명	264	26.4
	3명	26	2.6
	4명	3	0.3
	6명	1	0.1
자녀수(여)			
	0명	274	27.4
	1명	448	44.8
	2명	225	22.5
	3명	41	4.1
	4명	7	0.7
	5명	4	0.4
비동거가족 유무			
	없다	733	73.4
	있다	266	26.6

3) 비동거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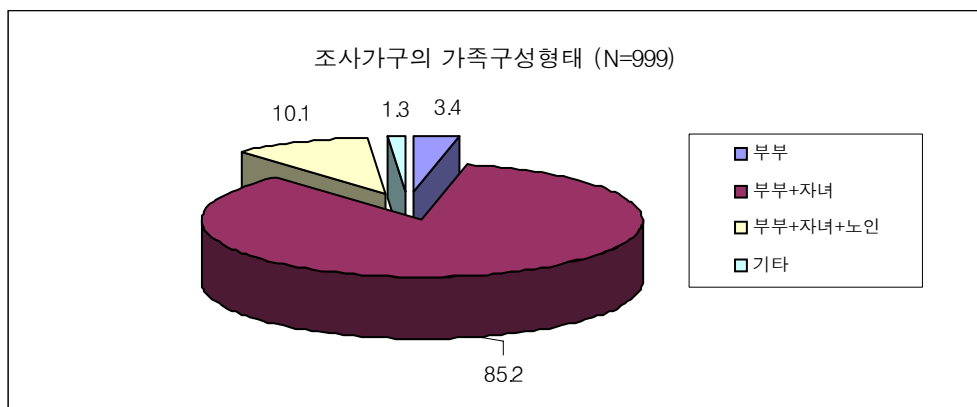
가구원중 비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는 266가구로 26.6%를 차지하고 있다. 비동거 인가운데 첫 번째에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비동거 사유를 알아본 결과, 29.3%는 혼인후 분가에 의한 것이었으며, 학교와 직장관계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25.9%와 24.8%를 차지하였다.

<표 5-4> 비동거인의 비동거 사유

구분	단위 : %, 명	
	빈도	백분율
학교관계	69	25.9
직장관계	66	24.8
군입대	42	15.8
혼인후 분가	78	29.3
가출	2	0.8
기타	9	3.4
계	266	100.0

4) 가족구성형태

조사가구 가운데 8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소위 핵가족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부와 자녀 및 노인으로 구성된 3세대가족이 10.1%, 자녀가 없는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3.4%(35가구)이다.



<그림 5-1> 조사가구의 가족구성형태

제 2 절 경제생활 실태

1. 수입·지출·저축·부채의 규모

1) 가구의 수입규모

가구의 월평균 총수입액을 알아본 결과, 99만원이하로 응답한 가구는 8.1%이고 100-199만원에는 36.8%가 응답하여 전체 가구의 약 45%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월평균수입액이 400만원이상인 경우는 12.9%가 응답하였다.

<표 5-5> 가구의 월평균 총수입규모

구분	빈도	단위 : %, 명 백분율
99만원이하	81	8.1
100-199만원	368	36.8
200-299만원	289	28.9
300-399만원	132	13.2
400만원이상	129	12.9
계	999	100.0

2) 가계비 지출규모

월평균 가계비 지출 규모는 무응답을 제외하면 평균 183.3만원이며, 지출규모로 구분하여 볼 때 100만원이하인 경우가 30.4%이며, 101-200만원이 42.9%로 가장 많다. 301만원이상인 가구는 8.3%에 지나지 않는다. 가계비 지출규모는 가구 수입 규모에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녀의 육아나 교육비, 생활용품구입비, 가구 원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족구성형태로 보면, 301만원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부부가족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100만원이하인 가구의 비율은 3세대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201-300만원인 경우는 자녀가 있는 부부+자녀가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별 계층구분으로 보면, 100만원이하인 가구의 비율이 농촌저소득층에서 78.4%로 압도적으로 많고, 농촌중간층이나 도시저소득층에서 모두 4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01만원이상 가계비 지출을 하는 가구는 도시중간층에서 13.6%로 높고 농촌중간층에서 4.9%를 차지하고 있다.

3) 저축액 규모

한편, 월평균 가구의 저축액은 60.1만원이다. 저축액을 규모별로 보면, 저축을 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10만원이하인 가구의 비율은 24.6%이고, 11-30만원 정도는 23.7%, 그리고 51만원이상을 저축하는 가구의 경우는 33.6%를 차지하고 있다.

<표 5-6> 월평균 가계비 지출규모

단위 : %

특성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계(명)
전체	30.4	42.9	18.4	8.3	100.0(999)
가구구성					
부부가족	36.4	39.4	9.1	15.2	100.0(34)
부부+자녀	28.5	44.2	19.3	8.0	100.0(851)
3세대/기타	43.6	33.6	14.5	8.2	100.0(114)
자녀구성					
자녀없음	36.1	38.9	11.1	13.9	100.0(37)
초등학생이하	25.2	46.1	20.6	8.1	100.0(547)
중고생이상	36.8	39.0	16.2	8.0	100.0(415)
지역별 계층구분					
도시저소득층	42.3	54.9	2.8	.0	100.0(72)
도시중간층	6.1	49.7	30.5	13.6	100.0(527)
농촌저소득층	78.4	20.1	1.0	.5	100.0(197)
농촌중간층	42.9	42.9	9.4	4.9	100.0(203)

부부가족의 경우는 51만원이상을 저축하는 가구의 비율이 58.8%로 매우 높은데 비해 3세대가구의 경우가 28.9%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 반면에 10만원이하를

저축하는 가구의 비율은 역으로 3세대가구에서 33.3%로 비율이 높다. 또한 51만원 이상을 저축하는 가구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56.8%로 높지만,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중학교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비율이 낮다. 반대로 10만원이하를 저축하는 가구의 비율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중학교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비율이 높다.

<표 5-7> 월평균 저축액 규모

단위 : %

특성	10만원 이하	11-30만원	31-50만원	51만원 이상	계(명)
전체	24.6	23.7	18.0	33.6	100.0(999)
가구구성					
부부가족	8.8	17.6	14.7	58.8	100.0(34)
부부+자녀	24.1	23.6	19.0	33.3	100.0(851)
3세대/기타	33.3	26.3	11.4	28.9	100.0(114)
자녀구성					
자녀없음	10.8	16.2	16.2	56.8	100.0(37)
초등학생이하	17.6	26.7	18.6	37.1	100.0(547)
중고생이상	35.2	20.5	17.3	27.0	100.0(415)
지역별 계층구분					
도시저소득층	45.8	20.8	20.8	12.5	100.0(72)
도시중간층	9.7	13.7	23.1	53.5	100.0(527)
농촌저소득층	58.9	32.5	5.1	3.6	100.0(197)
농촌중간층	22.7	42.4	16.3	18.7	100.0(203)

저축액의 규모는 계층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축액의 규모가 클수록 저소득층보다는 중간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저축액의 규모가 작을수록 중간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비율이 높다.

2. 경제생활 어려움

1) 가정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가정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5점척도로 평가하게 한 결과, 그저 그

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39.0%에 불과하였으나 매우 어렵다와 약간 어렵다에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약 45%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을 몇 가지 변수의 특성별로 보면, 가정 경제생활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부부가족보다 자녀가 있는 가족과 3세대가족에서 높고, 자녀가 없는 가족보다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 그리고 중고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만, 특히 도시저소득층에서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매우 높다.

<표 5-8> 가정 경제생활의 어려움 정도

단위 : %

특성	매우 어렵다	약간 어렵다	그저 그렇다	별로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계(명)
전체	8.9	36.0	39.0	13.6	2.4	100.0(999)
가구구성						
부부가족	2.9	17.6	44.1	29.4	5.9	100.0(34)
부부+자녀	9.0	36.4	38.8	13.3	2.5	100.0(851)
3세대/기타	9.6	38.6	39.5	11.4	.9	100.0(114)
자녀구성						
자녀없음	2.7	18.9	45.9	27.0	5.4	100.0(37)
초등학생이하	9.9	34.9	40.8	12.4	2.0	100.0(547)
중고생이상	8.2	39.0	36.1	14.0	2.7	100.0(415)
지역별 계층구분						
도시저소득층	33.3	54.2	12.5	.0	.0	100.0(72)
도시중간층	7.0	31.7	39.1	18.4	3.8	100.0(527)
농촌저소득층	8.1	45.7	41.1	5.1	.0	100.0(197)
농촌중간층	5.9	31.5	46.3	14.3	2.0	100.0(203)

2)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가계비 항목

또한 가정경제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가계비 지출항목으로는 자녀양육비와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이다. 자녀양육 및 교육비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5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생활용품구입비 및 공과금/보험료가 16.1%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에는 경조사비, 자동차유지비 및 교통비, 비동거 부양가족지원비, 농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영농자금이 포함되어있다.

가구구성형태로 볼 때, 부부가족의 경우는 생활용품구입비 및 공과금과 주거비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29.4%로 높은데 비해,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에 응답한 비율이 57.1%로 매우 높다. 의료비는 3집단 가운데 부부가족의 경우가 8.8%로 상대적으로 높고, 식료품비는 3세대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자녀구성형태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중학생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모두 55% 정도의 높은 비율로 자녀양육 및 교육비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지역별계층구분으로는 도시중간층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비에 응답한 비율이 59%로 가장 높고, 도시저소득층에서 38.9%로 가장 낮다. 도시저소득층의 경우는 생활용품구입비 및 공과금/보험료, 주거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에서는 농촌중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중간층의 경우 영농자금으로 응답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5-9>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가계비 항목

단위 : %

특성	자녀양육/ 교육비	생활용품/ 공과금/보 험료	식료품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계(명)
전체	53.0	16.1	2.5	2.9	12.3	13.1	100.0(999)
가구구성							
부부가족	2.9	29.4	5.9	8.8	29.4	23.5	100.0(34)
부부+자녀	56.9	14.9	1.7	2.5	11.7	12.3	100.0(851)
3세대/기타	39.5	21.1	7.9	4.4	11.4	15.8	100.0(114)
자녀구성							
자녀없음	2.7	32.4	5.4	8.1	29.7	21.6	100.0(37)
초등학교이하	55.7	14.9	2.6	1.6	14.5	11.0	100.0(547)
중고생이상	54.0	16.6	2.2	4.2	7.8	15.2	100.0(415)
지역별계층구분							
도시저소득층	38.9	23.6	2.8	4.2	19.4	11.1	100.0(72)
도시중간층	59.0	11.7	1.3	1.5	14.0	12.5	100.0(527)
농촌저소득층	48.7	22.6	4.6	4.6	8.2	11.3	100.0(197)
농촌중간층	46.8	18.7	3.4	4.4	9.4	17.2	100.0(203)

3) 부채의 규모와 부채의 이유

전체 응답자가운데 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36.7%에 이르나 부채가 있는 경우 100만원이하로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가운데 20.2%, 1001-3000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6.8%이다. 부채가 1억원이상으로 응답한 사람도 5.8%(58명)이 나 된다.

이를 지역계층별로 보면,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율은 도시중간층이 가장 높아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저소득층 가구가 가장 낮은 22.3%를 차지하고 있다.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부채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농촌저소득층에서 높지만, 1억원 이상 부채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농촌중간층에서 높다. 이것은 농촌중간층이 영농자금에 투여하는 금액이 많기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10> 지역계층별 부채액 규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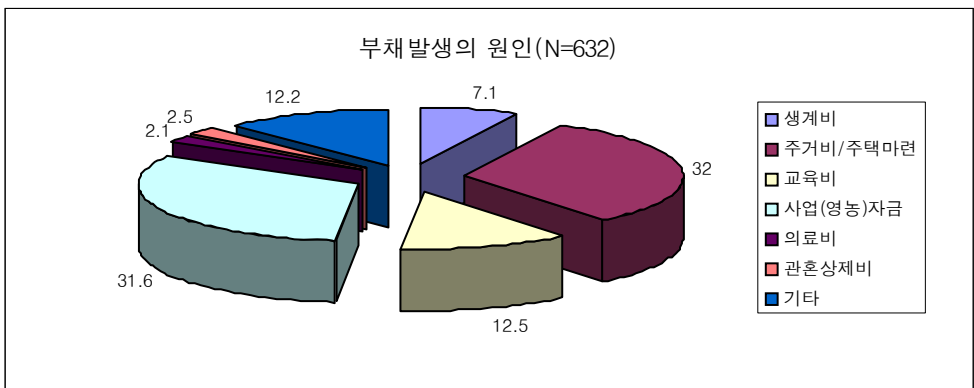
특성	부채 없음	1000만원 이하	1001-3000 만원	3001-5000 만원	5001-9999 만원	1억원 이상	계(명)
도시저소득층	30.6	18.1	30.6	11.1	5.6	4.2	100.0(72)
도시중간층	45.0	12.7	26.0	11.4	2.1	2.8	100.0(527)
농촌저소득층	22.3	36.0	31.0	4.1	2.0	4.6	100.0(197)
농촌중간층	31.5	25.1	23.6	3.0	1.5	15.3	100.0(203)
계	36.7	20.2	26.8	8.2	2.2	5.8	100.0(999)

부채규모와는 별개로 부채를 갖게 된 원인을 보면, 주거비나 주택구입비가 32%로 가장 높고 사업자금 또는 영농자금이 31.6%로 그 다음으로 높다. 생계비로 인한 부채의 발생은 도시저소득층에서 높고, 주거비나 주택구입비로 인한 부채의 발생은 도시중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사업자금이나 영농자금이 원인으로 부채가 발생한 가구의 비율은 도시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교육비가 원인이 된 가구의 비율은 농촌저소득층에서 높다.

<표 5-11> 지역계층별 부채의 주된 이유

단위 : %

특성	생계비	주거비/ 주택 구입비	교육비	사업 (영농) 자금	의료비	관혼 상제비	기타	계(명)
도시저소득층	14.0	28.0	10.0	40.0	4.0	.0	4.0	100.0(50)
도시중간층	6.9	48.3	7.9	30.3	.3	.0	6.2	100.0(290)
농촌저소득층	5.9	12.4	20.9	34.0	3.9	7.2	15.7	100.0(153)
농촌중간층	6.5	20.9	13.7	28.8	2.9	3.6	23.7	100.0(139)
계	7.1	32.0	12.5	31.6	2.1	2.5	12.2	100.0(632)



<그림 5-2> 부채발생의 원인

4) 노후생활 대비

<표 5-12> 노후생활 대비

단위 : %, 명

	응답자의 성별		
	전체(N=999)	남자(N=406)	여자(N=593)
적금/저축	46.3	48.0	45.2
사적 연금	10.7	11.1	10.5
공적 연금	15.1	17.2	13.7
자녀의 부양	2.0	1.7	2.2
배우자의 부양	.6	.0	1.0
부동산 임대, 처분	4.2	5.4	3.4
없음	20.2	15.3	23.6
기타	.8	1.2	.5
계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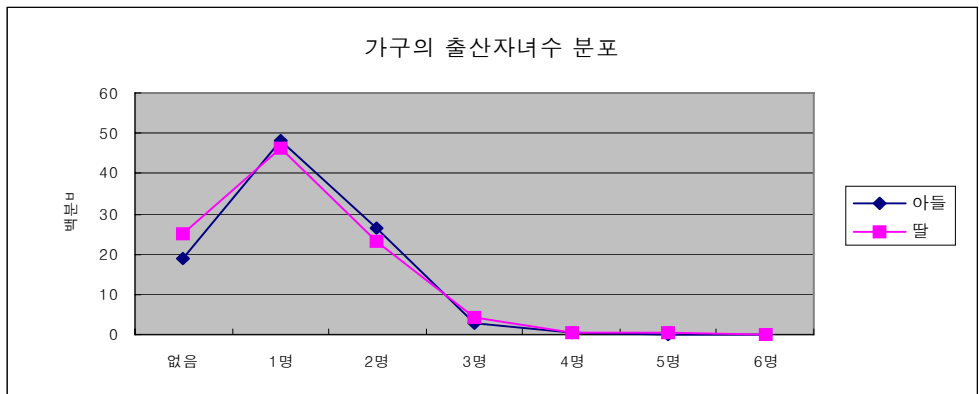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노후준비유무와 노후준비방법을 물어본 결과, 노후준비가 특별히 없다 20.2%를 제외하고 노후준비로는 적금/저축 46.3%, 공적연금 15.1%, 사적연금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에게서 특별한 노후준비가 없다는 응답율이 높았으며 공적연금의 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제 3 절 출산 및 자녀양육

1. 자녀 출산

1) 출산 자녀수

출산자녀수는 혼인상태에 있으나 임신을 한 경우에만 출산 자녀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혼인상태에 있으나 아직 임신을 하지 않은 경우나 입양을 한 경우 30가구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가구당 평균 출산자녀수는 2.27명이며, 그 가운데 남아 1.15명, 여아 1.11명으로 남아출산율이 약간 더 높다. 이다.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5-3>과 같다.



<그림 5-3> 가구의 출산자녀수 분포

2) 출산 계획 유무 및 그 이유

향후 자녀를 낳고자하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999명 가운데 13.3%만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그 이유로는

자녀의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3.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키우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서가 21.9%를 차지하고 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14.1%를 차지하고 있어 남아선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랜 정서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집안의 대를 잇거나 분신이 필요해서와 같은 항목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높고, 자녀의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어서에 응답한 비율은 여성에게서 더 높다. 출산계획의 이유를 연령별로 보면, 부부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에 응답한 비율은 20대와 30대에서 높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에 응답한 비율은 40대에서 높다. 자녀의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어서에 응답한 비율은 20대와 30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3> 자녀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그 이유

단위 : %

특성	자녀키우는 기쁨	자녀의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어	많은 자녀를 원해서	아들 낳기 위해	딸을 낳기 위해	부부관계 도움됨	집안의 대를 잇기위함	기타	계(명)
전체	21.9	43.8	6.3	14.1	3.1	4.7	4.7	1.6	100.0(128)
성별									
남성	25.5	34.5	9.1	16.4	3.6	5.5	5.5	.0	100.0(55)
여성	19.2	50.7	4.1	12.3	2.7	4.1	4.0	2.7	100.0(73)
연령									
20대	21.7	45.7	8.7	8.7	.0	8.7	4.3	2.2	100.0(46)
30대	20.0	47.1	5.7	14.3	4.3	1.4	5.7	1.4	100.0(70)
40대	27.3	18.2	.0	36.4	9.1	9.1	.0	.0	100.0(11)
50대	100.0	.0	.0	.0	.0	.0	.0	.0	100.0(1)
교육수준									
중학이하	.0	.0	50.0	.0	.0	.0	50.0	.0	100.0(2)
고등학교	25.5	41.8	1.8	20.0	3.6	1.8	3.6	1.8	100.0(55)
대학이상	19.7	46.5	8.5	9.9	2.8	7.0	4.2	1.4	100.0(71)
가구구성									
부부가족	54.5	15.2	3.0	.0	.0	12.1	15.2	.0	100.0(33)
부부+자녀	10.5	55.3	6.6	18.4	3.9	1.3	1.3	2.6	100.0(76)
3세대/기타	10.5	47.4	10.5	21.1	5.3	5.3	.0	.0	100.0(19)
자녀구성									
자녀없음	52.9	14.7	2.9	.0	.0	14.7	14.7	.0	100.0(34)
초등학생이하	8.8	56.0	7.7	19.8	3.3	1.1	1.1	2.2	100.0(91)
중고생이상	66.7	.0	.0	.0	33.3	.0	.0	.0	100.0(3)
지역별 계층구분									
도시저소득층	11.1	77.8	11.1	.0	.0	.0	.0	.0	100.0(9)
도시중간층	19.4	52.8	4.2	5.6	4.2	5.6	6.9	1.4	100.0(72)
농촌저소득층	33.3	19.0	9.5	28.6	.0	4.8	4.8	.0	100.0(21)
농촌중간층	23.1	26.9	7.7	30.8	3.8	3.8	.0	3.8	100.0(26)

가구구성형태별로 원인을 보면, 자녀키우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서에 응답한 비율은 부부가족에서 높고, 자녀의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어서에 응답한 비율은 부부+자녀 가구에서 높다. 또한 자녀구성의 형태로 보면, 자녀키우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서는 자녀가 없는 가구와 중학생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높고, 자녀의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어서에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높다. 계층구분과 관계없이 도시지역에서는 자녀의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어서에 응답한 비율이 높고, 농촌에서는 아들을 낳기 위해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4> 자녀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

단위 : %

특성	더이상 원치 않음	경제적 어려움	나의 일을 위해	말길곳이없음	육체적으로힘듦	건강이 좋지않음	나이가 많아	불임	출산고통	기타	계(명)
전체	41.9	19.9	2.3	2.1	1.5	1.7	28.3	1.2	.3	.7	100.0(863)
성별											
남성	50.1	20.3	1.1	3.2	1.1	.9	20.1	2.3	.3	.6	100.0(349)
여성	36.4	19.6	3.1	1.4	1.8	2.3	33.9	4	.4	.8	100.0(514)
연령											
20대	37.0	37.0	11.1	3.7	7.4	3.7	.0	.0	.0	.0	100.0(27)
30대	48.0	29.7	3.0	5.6	2.6	3.3	4.5	.4	.4	1.9	100.0(269)
40대	43.8	20.8	2.2	.5	1.1	.8	29.0	1.4	.0	.3	100.0(365)
50대	31.2	3.0	.5	.0	.0	1.0	62.4	2.0	.0	.0	100.0(202)
교육수준											
중학이하	36.8	11.1	2.1	.0	1.1	1.6	47.4	.0	.0	.0	100.0(190)
고등학교	41.1	25.7	2.0	1.0	2.0	2.0	24.2	1.5	.3	.3	100.0(397)
대학이상	46.7	17.8	2.9	5.1	1.1	1.4	21.0	1.4	.7	1.8	100.0(276)
가구구성											
부부가족	.0	.0	.0	.0	.0	.0	100.0	.0	.0	.0	100.0(1)
부부+자녀	42.4	20.7	2.5	2.3	1.3	1.7	26.7	1.2	.4	.8	100.0(767)
3세대/기타	38.9	13.7	1.1	0	3.2	2.1	40.0	1.1	.0	.0	100.0(95)
자녀구성											
자녀없음	66.7	.0	.0	.0	.0	.0	33.3	.0	.0	.0	100.0(3)
초등학생이하	47.8	30.2	3.3	4.0	1.5	2.2	9.0	4	4	1.1	100.0(454)
중고생이상	35.2	8.6	1.2	.0	1.5	1.2	49.8	2.0	.2	.2	100.0(406)
지역별계층구분											
도시저소득층	33.3	23.8	1.6	.0	1.6	6.3	28.6	3.2	1.6	.0	100.0(63)
도시중간층	41.6	19.9	3.3	2.7	1.1	1.5	27.2	1.3	.4	.9	100.0(452)
농촌저소득층	36.6	19.8	.6	.0	2.3	1.2	38.4	.6	.0	.6	100.0(172)
농촌중간층	51.1	18.8	1.7	3.4	1.7	1.1	21.0	.6	.0	.6	100.0(176)

한편 자녀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는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아와 나이가 너무 많아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9%와 2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는 19.9%가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에 응답하였다.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기출산 자녀수, 교육수준이나 가치관 등이다. 우선 연령별로 보면 자녀출산을 원치않는 이유로 나이가 많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경제적 여건이 되지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 나이가 많아서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출산계획이 없는 부부가족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연령과 자녀수에 제한을 받아서인지 더 이상자녀를 원치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저소득층의 경우에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3) 자녀출산에 대한 의견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63.7%는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없어도 된다 혹은 없는 것이 낫다에 응답한 비율은 2%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응답자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견해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없어도 된다 혹은 없는 것이 낫다에 응답한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표 5-15> 자녀출산에 대한 의견

단위 : %

	응답자의 성별		
	전체(N=999)	남자(N=406)	여자(N=593)
반드시 있어야 한다	63.7	64.5	63.1
있는 것이 좋다	34.3	33.3	25.1
없어도 된다	1.8	2.2	1.5
없는 것이 낫다	.2	.0	.3
계	100.0	100.0	100.0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부모가 되는 일은 가치 있는 일
이므로에 응답한 비율이 4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결혼하면 자녀를 두
는 것이 당연하므로에 응답한 비율은 23.8%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성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가 40대이상에 비해
부모가 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므로에 응답한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
다.

<표 5-16>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

단위 : %

특성	부모가 되는 일은 가치있는 일이므로	결혼하면 자녀를 두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녀는 가장 사랑스런 대상으로	높아서 지위 높기위해	집안의 대를 잇기위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족간 불화가 되므로	기타	계(명)
전체	45.9	23.8	14.8	4.3	8.1	2.3	.8	100.0(979)
성별								
남성	44.1	28.0	13.9	2.3	9.3	1.3	1.3	100.0(397)
여성	47.1	21.0	15.5	5.7	7.2	3.1	.5	100.0(582)
연령								
20대	50.7	23.3	16.4	4.1	2.7	2.7	.0	100.0(73)
30대	50.7	20.9	19.1	2.4	3.6	2.1	1.2	100.0(335)
40대	42.0	27.8	12.8	5.1	8.8	2.9	.5	100.0(374)
50대	43.1	21.3	10.7	6.1	16.2	1.5	1.0	100.0(197)
교육수준								
중학이하	31.8	24.5	9.4	9.9	20.8	2.6	1.0	100.0(192)
고등학교	45.6	27.1	14.9	3.1	6.7	2.0	.7	100.0(450)
대학이상	54.3	19.0	17.8	2.7	2.7	2.7	.9	100.0(337)
가구구성								
부부가족	54.5	18.2	9.1	3.0	6.1	9.1	.0	100.0(33)
부부+자녀	46.7	24.0	14.4	4.2	7.7	2.0	1.0	100.0(833)
3세대/기타	37.2	23.9	19.5	5.3	11.5	2.7	.0	100.0(113)
자녀구성								
자녀없음	58.3	16.7	8.3	2.8	5.6	8.3	.0	100.0(36)
초등학생이하	49.0	22.2	18.5	2.6	4.8	1.8	1.1	100.0(541)
중고생이상	40.5	26.6	10.4	6.7	12.7	2.5	.5	100.0(402)
지역별 계층구분								
도시저소득층	54.3	17.1	17.1	.0	5.7	2.9	2.9	100.0(70)
도시중간층	53.5	19.5	15.8	4.3	3.7	2.7	.4	100.0(512)
농촌저소득층	30.5	28.4	9.1	6.6	21.8	3.0	.5	100.0(197)
농촌중간층	38.5	32.5	17.0	3.5	6.5	.5	1.5	100.0(20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에 응답한 비율은 50대에서 높고, 중학교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 그리고 농촌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부모가 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므로에 응답한 비율은 자녀가 없거나 부부가죽인 경우가 다른 형태의 가구에 비해 높으며, 농촌거주자보다 도시거주자에게서 높다.

한편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의견을 가진 20명 가운데, 55%는 경제적 부담 등 여건이 안돼서라는 응답이 많아 자녀 출산에 경제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17>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

단위 : %, 명

구분	빈도	백분율
부부의 애정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4	20.0
경제적 부담 등 여건이 안돼서	11	55.0
내 일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4	20.0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1	5.0
계	20	100.0

4) 자녀입양에 대한 의견

한편 자녀가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남들이 입양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나는 꺼려진다는 의견에 39%가 응답했으며, 입양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26.7%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입양할 생각이 있다는 적극적인 응답은 9.5%였으며, 생각은 있지만 경제적인 여건 등 사정이 안되어서 못한다는 의견도 24.7%에 달한다. 따라서 많은 응답자들은 입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여건이나 주변 등의 사정 때문에 행동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5-18> 자녀 입양에 대한 의견

단위 : %, 명

구분	빈도	백분율
입양할 생각이 있다	95	9.5
생각은 있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입양 못함	202	20.2
생각은 있지만 자격이 안되서	45	4.5
남들이 입양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나는 꺼려진다	390	39.0
입양에 찬성하지 않는다	267	26.7
계	999	100.0

5)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적 지원 요구

개개인의 사정이 허락하여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사항이 무엇인지를 묻은 결과, 보육비의 무상지원(19.9%), 출산비용/산전, 산후 의료비 지원(19.1%), 자녀양육비 지원 및 세제혜택(16.7%), 사교육비 경감대책(15.1%) 등에 대한 지원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응답결과는 비교적 현물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며 보육환경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나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욕구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9>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요구

단위 : %, 명

구분	빈도	백분율
출산비용/산전,산후 의료비지원	191	19.1
출산축하금 지급	34	3.4
불임가족에 대한 지원	39	3.9
보육비의 무상지원	199	19.9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120	12.0
아동수당 지원	38	3.8
육아휴직제 확대 및 세제혜택	41	4.1
자녀양육비 지원 및 세제혜택	167	16.7
사교육비 경감대책	151	15.1
탄력적 시간근무제	6	0.6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2	0.2
주택지원 정책	7	0.7
기타	4	0.4
계	999	100

2. 자녀 양육

1) 자녀의 연령, 육아시설, 육아시간

초등학교이하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응답자의 가정에서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아동의 연령분포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저소득층에서 나이가 어린 아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저소득층에서 나이가 많은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표본의 구성에 따른 차이로 추정된다.

<표 5-20> 가장 어린자녀 연령

단위 : %

특성	3살이하	4살이상 6살이하	7살이상 9살이하	10살이상 13살이하	계(명)
전체	23.2	25.0	23.8	28.0	100.0(547)
연령					
20대	86.0	10.5	3.5	.0	100.0(57)
30대	22.3	36.8	24.8	16.1	100.0(310)
40대	5.3	9.5	30.2	55.0	100.0(169)
50대	.0	9.1	.0	90.9	100.0(11)
지역별 계층구분					
도시저소득층	29.4	32.4	20.6	17.6	100.0(34)
도시중간층	25.2	26.7	20.1	28.0	100.0(318)
농촌저소득층	13.5	23.0	28.4	35.1	100.0(74)
농촌중간층	22.3	19.8	31.4	26.4	100.0(121)

또한 가장 어린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 어디인가를 묻은 결과, 특별히 다니는 곳이 없다(집에서 돌본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는 것은 학원, 과외, 학교 등이 4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대부분 집에서 돌보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이 주로 다니는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20대 응답자의 자녀들은 특별히 다니는 곳이 없는데 응답한 비율이 61.4%이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28.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40대와 50대의 응답자 자녀들은 주로 학원, 과외, 학교 등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66.9%와 81.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곳을 거주지역으로 보면, 표본의 성격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도시중간층의 경우는 특별히 다니는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농촌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니는 곳이 없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여성응답자의 경우에 농촌지역거주자가 도시지역거주자보다 취업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농촌여성 90.7%, 도시여성 57.1%), 농촌지역 거주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표 5-21> 가장 어린 자녀가 주로 다니는 곳

단위 : %

특성	특별히 가는 곳 없음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관의 공부방	학원, 과외, 학교, 기타	계(명)
전체	25.2	11.9	16.3	2.2	44.4	100.0(547)
연령						
20대	61.4	.0	28.1	.0	10.5	100.0(57)
30대	23.5	17.4	20.3	1.6	37.1	100.0(310)
40대	17.2	5.9	5.9	4.1	66.9	100.0(169)
50대	9.1	9.1	.0	.0	81.8	100.0(11)
지역별계층구분						
도시저소득층	32.4	8.8	23.5	2.9	32.4	100.0(34)
도시중간층	18.9	14.8	15.7	.3	50.3	100.0(318)
농촌저소득층	33.8	6.8	20.3	6.8	32.4	100.0(74)
농촌중간층	34.7	8.3	13.2	4.1	39.7	100.0(121)

특별히 다니는 곳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를 맡아서 하는 기관에 맡기는 시간을 분석해보면,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맡기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맡기는 시간이 길며, 연령이 높을

수록 맡기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아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20대에서는 7-9시간에 응답한 비율이 47.6%로 가장 높고, 10시간 이상에 응답한 비율도 23.8%에 이른다. 그러나 40대와 50대에서는 3시간 이하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47.1%,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농촌지역 거주자가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자녀를 맡기는 시간이 3시간 이하에 응답한 비율이 높다.

<표 5-22> 가장 어린자녀가 머무는 시간

단위 : %

특성	3시간 이하	4- 6시간	7- 9시간	10시간 이상	계(명)
전체	32.1	38.0	24.3	5.6	100.0(547)
연령					
20대	4.8	23.8	47.6	23.8	100.0(57)
30대	24.5	42.2	27.4	5.9	100.0(310)
40대	47.1	32.9	17.1	2.9	100.0(169)
50대	60.0	40.0	.0	.0	100.0(11)
지역별 계층구분					
도시저소득층	26.1	52.2	8.7	13.0	100.0(34)
도시중간층	26.8	39.3	27.6	6.2	100.0(318)
농촌저소득층	51.0	36.7	8.2	4.1	100.0(74)
농촌중간층	39.2	30.4	27.8	2.5	100.0(121)

2) 자녀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

<표 5-23> 가정에서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 %, 명

구분	가장 어린 자녀		두 번째 어린 자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본인	194	35.5	124	36.5
배우자	151	27.6	104	30.6
본인의 부모	35	6.4	18	5.3
배우자의 부모	39	7.1	14	4.1
본인의 형제자매	9	1.6	3	0.9
배우자의 형제자매	3	0.5	1	0.3
자녀의 형제자매	17	3.1	9	2.6
파출부/가정부	1	0.2	0	.0
베이비 시터	1	0.2	1	0.3
이웃집(유료)	5	0.9	1	0.3
특별히 돌봐주는 사람 없음	86	15.7	58	17.1
기타	6	1.1	7	2.1
계	547	100.0	340	100.0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물었다. 가장 어린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사람은 응답자 547명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7.5%와 27.6%이다. 따라서 응답자의 2/3정도는 부부가 직접 자녀를 돌보고 있다. 이 비율은 두 번째 어린자녀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가장 어린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라고 응답한 경우는 가장 어린 자녀에서는 13.5%, 두 번째로 어린자녀에 대해서는 9.4%가 응답을 하였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자녀의 형제자매가 돌보는 경우, 가장 어린 자녀에서는 3.1%, 두 번째로 어린자녀에 대해서는 2.6%가 응답을 하여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3)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정도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사례비용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만원이하인 경우가 29.6%이고 41만원이상의 비율도 14.8%를 차지하고 있다.

<표 5-24>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 대한 사례비용의 규모

단위 : %, 명

구분	빈도	백분율
없음	34	31.5
1만원-20만원	32	29.6
21만원-40만원	26	24.1
41만원-60만원	16	14.8
계	108	100.0

자녀를 돌봐주는 사례비에 대한 부담정도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 가구를 포함하여 36.1%가 부담이 안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4.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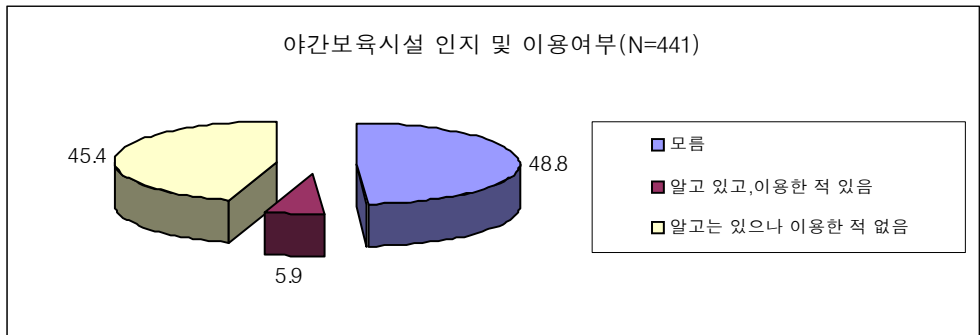
<표 5-25>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 대한 사례비의 부담 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부담이 안된다	39	36.1
보통이다/그저그렇다	43	39.8
부담이 된다	26	24.1
계	1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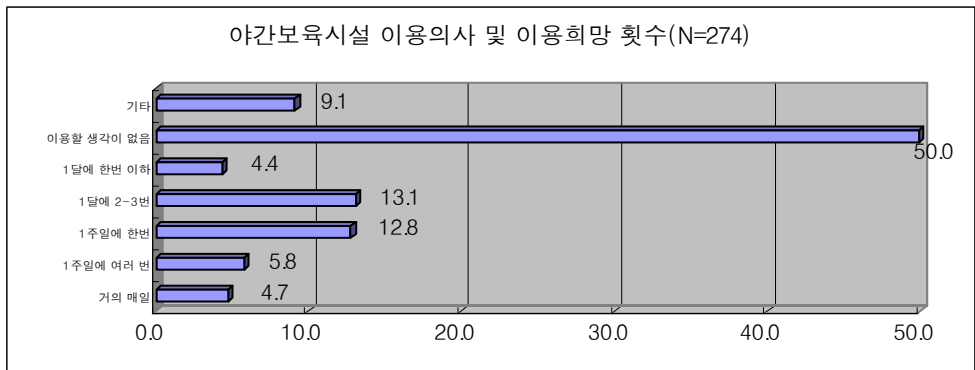
단위 : %, 명

4) 야간 보육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필요성

미취학 아동이 있는 441명의 응답자에 대해, 야간보육시설에 대해 알고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모른다는 응답한 비율은 48.8%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알고는 있으나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45.4%를 차지하여 실제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9%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 5-4> 야간보육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그림 5-5> 야간보육시설 이용의사 및 이용희망 횟수

미취학 아동이 있는 응답자에 대해 야간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74명으로 62.1%를 차지하고 있고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7.9%를 차지하였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274명에 대해, 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지를 물었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용할 의사가 없는 가구는 50%를 차지하며, 1주일에 한번 혹은 1달에 2-3번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한 사람은 각각 12.8%, 13.1%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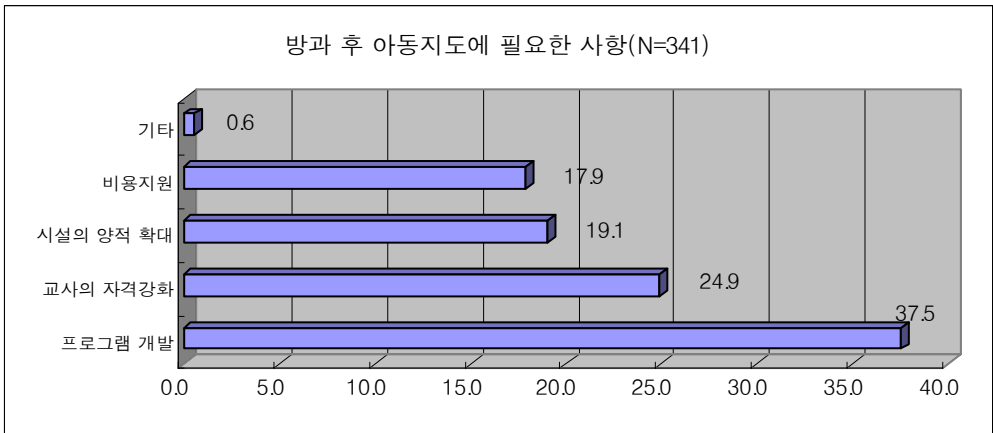
5) 방과 후 아동지도프로그램 인지 및 이용여부, 필요성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494명의 응답자 가운데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모른다는 응답한 비율은 18.8%로 비교적 모르는 경우가 적었다. 그러나 알고는 있으나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8.9%로 높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중인 경우의 비율은 23.1%를 차지하고 있다.

<표 5-26> 방과 후 아동지도프로그램 인지 및 이용여부

구분	단위 : %, 명	
	빈도	백분율
알고는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291	58.9
이용한 적 있음	64	13.0
현재 이용중임	50	10.1
모른다	89	18.0
계	494	100.0

방과 후 아동지도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4.2%이고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5.8%에 불과하였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341명에 대해, 방과 후 아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아동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37.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자격강화(24.9%), 시설의 양적 확대(19.1%), 비용지원(17.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5-6> 방과 후 아동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 4 절 돌봄 및 가사노동

1. 요보호 가족원에 대한 돌봄 노동

본 절에서는 장기간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및 장애자녀에 대한 돌봄 노동을 대상으로 하여 실태와 특색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요보호 가족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가족 중에 현재 같이 살지 않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속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가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22.6%에 해당하는 226명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분포와 성별을 알아 본 결과, 60세 미만은 11.9%이고 나머지 88.0%가 60세 이후의 노인으로 남자 37.6%, 여자 62.4%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다. 대부분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여자가 많은 이유는 여자노인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길고 유배우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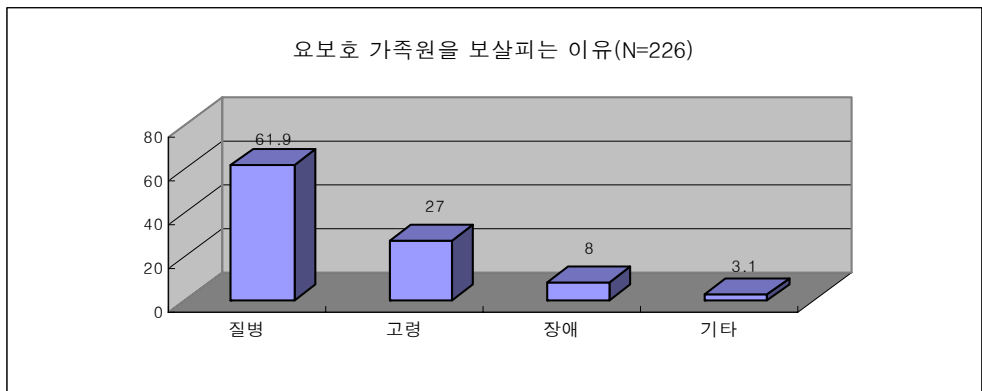
<표 5-27> 요보호 가족원의 연령 및 성별분포

단위 : %

	요보호 가족원의 성별		
	전체(N=226)	남자(N=85)	여자(N=141)
60세 미만	11.9	14.1	10.6
60-74세	37.6	38.8	36.9
75세 이후	50.4	47.1	52.5
계	100.0	100.0	100.0

2) 요보호 가족원에 대한 보살핌 이유 및 수발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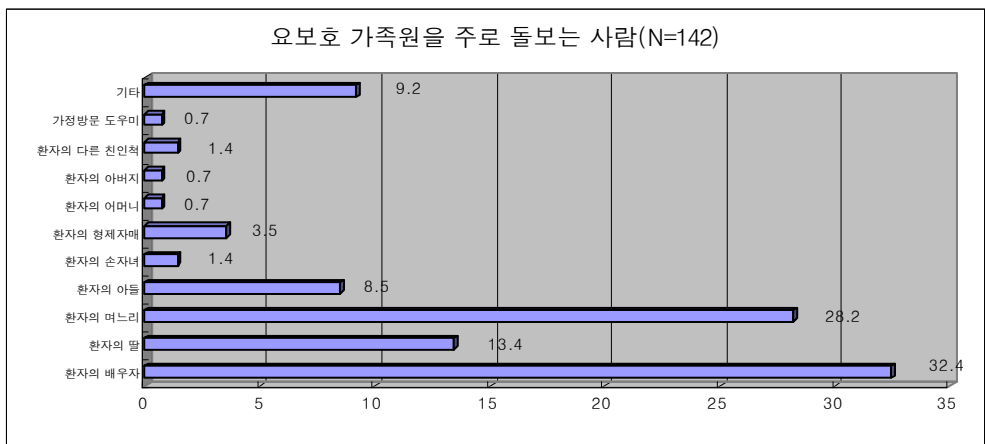
요보호 가족원을 보살피는 주된 이유로는 질병 61.9%, 고령 27.0%, 장애 8.0%, 기타 3.1% 등으로 응답하였다. 요보호가족원을 보살피고 있다고 응답한 226명 가운데, 응답자가 요보호 가족원을 직접 수발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는 37.2%(84명), 수발은 하지 않지만 수발비용을 부담하거나 병원에 같이 간다든가 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간접적인 수발을 하고 있는 경우는 62.8%(142명)에 해당하였다.



<그림 5-7> 요보호 가족원을 보살피는 이유

3) 요보호 가족원을 주로 돌보는 사람

요보호 가족원을 간접적으로 보살핀다고 응답한 142명을 대상으로 그분을 주로 보살피는 사람과의 관계를 물어 본 결과, 환자의 배우자 32.4%, 환자의 며느리 28.2%, 환자의 딸 13.4% 환자의 아들 8.5% 환자의 형제자매 3.5% 등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요보호 가족원을 주로 돌보는 일은 과출부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가족이 수발을 담당하고 있고 딸 19명(13.4%), 며느리 40명(28.2%), 어머니 1명 등 여성이 돌봄 노동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여성은 딸로서, 며느리로서, 배우자로서, 어머니로서 가족원을 보살피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을 본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8> 요보호 가족원을 주로 돌보는 사람

4) 요보호 가족원 수발에 따른 어려움

요보호 가족원을 수발하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부담(34.7%)> 육체적 피로나 수면부족(28.4%)>가족 간 갈등(14.9%)>직장일 수행곤란(6.8%)>사회생활에의 제약(5.0%)>요양 및 치료시설에의 부족(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수발에 따른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는 성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체적 피로나 수면에 있어 남자는 24.8%만이 그렇다라고 응답

했으나 여성은 이보다 많은 31.4%가 응답하였고 가족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남자는 20.8%가 응답하였으나 여자는 9.9%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직장일 수행 곤란에 있어서는 남자는 5.0%가 여자는 8.3%가 응답을 하여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가족원에 대한 직접적인 보살핌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및 직장생활에의 제약은 여성이 더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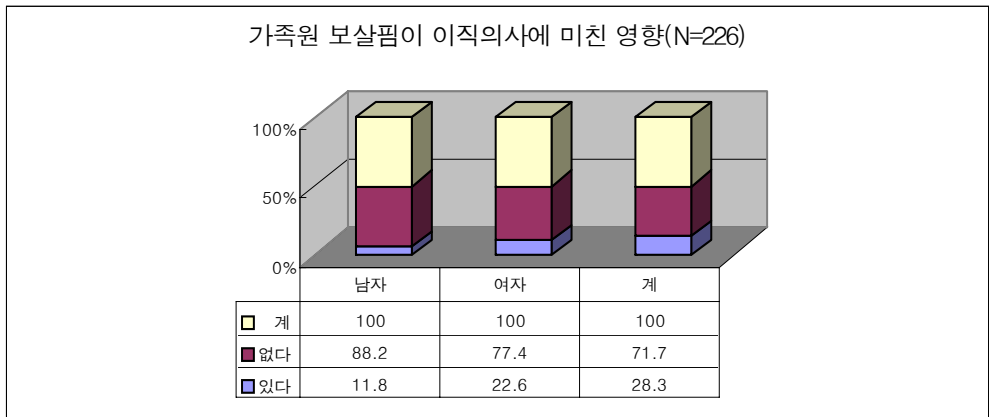
<표 5-28> 요보호 가족원의 수발에 따른 어려움

단위 : %

구분	전체(N=222)	남자(N=101)	여자(N=121)
경제적 부담	34.7	33.7	35.5
육체적 피로/수면부족	28.4	24.8	31.4
가족간 갈등	14.9	20.8	9.9
적절한 보상이 없는 것	1.8	.0	3.3
사회생활에의 제약	5.0	5.9	4.1
직장 일 수행 곤란	6.8	5.0	8.3
집안 공간의 부족	1.8	2.0	1.7
요양/치료시설의 부족	5.0	5.9	4.1
자녀교육 문제	1.8	2.0	1.7
계	100.0	100.0	100.0

5) 가족원 보살핌이 이직의사에 미친 영향

요보호 가족원을 수발하는 일로 인하여 수입활동이나 취업활동에 지장을 받아 그로인해 하던 일을 그만 두려는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있다 28.3%, 없다 71.7%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있다가 대하여 남자는 11.8%가 응답하였으나 여자는 이보다 약간 많은 22.6%가 응답하고 있어 가족원 수발에 따른 부담이 여성에게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9> 가족원 보살핌이 이직의사에 미친 영향

6) 보살핌을 위한 외부시설 이용하지 않은 이유

요보호 가족원이 있다고 응답한 226명에 대하여 요보호 가족원을 돌보기 위하여 집이 아닌 외부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 본 결과 있다 28.3%, 없다 71.7%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없다고 응답한 161명을 대상으로 그러한 외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 가족이 돌봐야한다고 생각해서 39.8%, 필요를 못 느껴서 19.9%, 비용이 부담돼서 16.8%, 따로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8.1%, 인근에 시설이 없어서 7.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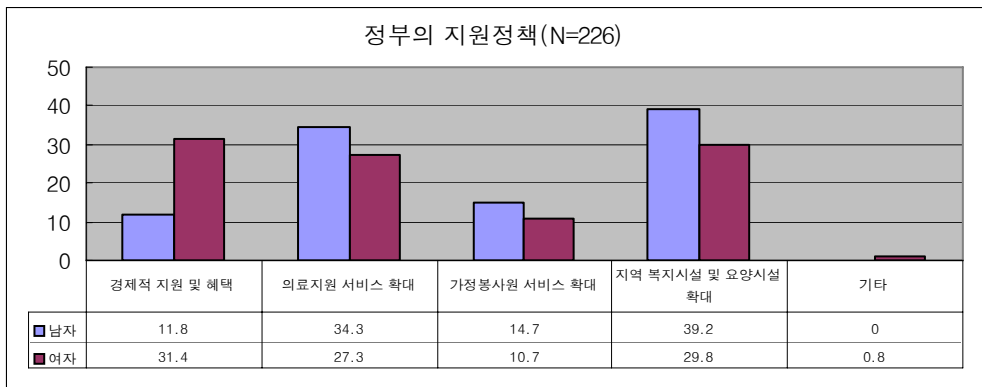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환자는 당연히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믿음이 강함을 의미하는 데 이와 같이 지나친 가족원의 책임의식은 때로는 가족원의 부담과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앞서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요보호 가족원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대상은 가족원 가운데에서도 주로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어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염려가 크다.

<표 5-29> 보살핌을 위한 외부시설 이용하지 않은 이유

구분	단위 : %, 명	
	빈도	백분율
인근에 시설이 없어서	12	7.5
따로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13	8.1
필요를 못 느껴서	32	19.9
서비스에 믿음이 안가서	4	2.5
가족이 돌봐야한다고 생각해서	64	39.8
환자가 싫어할까봐	3	1.9
가족, 친척의 반대로	3	1.9
비용이 부담돼서	27	16.8
기타	3	1.9
계	161	100.0

7) 정부의 지원정책

질병, 고령, 장애로 인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 정부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복지 시설 및 요양시설 확대 34.1%,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30.5%, 경제적 지원 및 혜택 22.4%, 가정봉사원(간병인)서비스 확대 3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지역복지 시설 및 요양시설 확대(39.2%)> 의료지원 서비스확대(34.3%)> 가정봉사원 서비스확대(14.7%)> 경제적 지원(11.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경제적 지원(31.4%)>지역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확대(29.8%)> 의료지원서비스확대(27.3%)> 가정봉사원서비스확대(10.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성은 현실적으로 열악한 지역 서비스의 확대와 같은 사회적 지원체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은 현물지원적인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5-10> 정부의 지원정책

2. 가사노동

오늘날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확대와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참여와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사노동 및 노인부양 등 재생산 노동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양적인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일에 따라서는 심화된 전문적 수준을 요하는 일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성별분업이 엄격했던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가사노동은 공적 영역으로부터 엄격하게 분리된 사적영역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노동으로 고착되어 주로 여성들의 책임으로 규정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은 부분노동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가사노동은 취업여성에게 있어서는 가정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고통'을 수반하고 있으며 이는 직장생활과 직업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김미경·주재선,2002) 여성들에게 편중적으로 전가됨으로써 이를 전담해야 하는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의 양 영역에서 주변적 위치를 점유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여성들의 가사노동 실태 및 가사노동에 대한 부부의 역할분담 정도, 가사노동을 둘러싼 부부간의 갈등 정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아울러 최근 실시되고 있는 주5일제의 영향에 의해 가사노동은 증가 혹은 감소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1) 평일가사노동시간

통계청(2000)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부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을 요일별로 구분해 보면 평일에는 5.48시간, 토요일에는 5.37시간, 일요일에는 4.54 시간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가사노동 시간은 연구들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다. 본 조사결과에서는 다음의 <표 5-30>에서 보는바와 같

이 가사노동 시간은 1시간 이하 28.6%, 3시간 이하 27.4%, 3-5시간 26.8%, 5시간 이상 17.2%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한편 취업의 경우에는 1시간 이하가 34.9%로 가장 많지만, 미취업의 경우에는 5시간 이상이 42.8%로 가장 많아 양 집단 간의 격차가 심하게 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남녀 모두의 응답결과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1시간 이하가 68.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자의 경우 취업인 상태나 미취업⁸⁾의 경우 가사노동 참여 시간에 거의 변화가 없으며 대다수는 1시간 미만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남성의 가사참여 시간은 아주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5-30> 가사노동시간

단위 : %

특성	1시간 이하	3시간 이하	3-5시간	5시간 이상	계(명)
남성					
취업	68.5	24.2	4.2	3.1	100.0(381)
미취업/비취업	33.3	.0	16.7	50.0	100.0(4)
소계	68.0	23.8	4.4	3.9	100.0(385)
여성					
취업	6.2	31.6	44.0	18.2	100.0(405)
미취업/비취업	.6	24.7	32.2	42.5	100.0(164)
소계	4.6	29.6	40.5	25.3	100.0(569)
전체					
취업	34.9	28.2	25.7	11.2	100.0(786)
미취업/비취업	1.7	23.9	31.7	42.8	100.0(168)
소계	28.6	27.4	26.8	17.2	100.0(954)

한편, 취업여성의 경우⁹⁾와 미(비)취업 여성의 경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여성의 경우 대부분 3시간 이하(31.6%)와 3-5시간(44.0%)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취업과 비취업 여성의 경우 3-5시간(32.2%)과 5시간 이상(42.5%)으로 응답하여 미취업 경우 가사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8) 남자의 미취업은 실질적으로 남자 전체조사대상자 가운데 2%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분석에서는 의미가 없다.

9) 본 조사에서 취업여성은 직종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수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취업상태로 보았다.

가사노동 시간이 2-3시간 정도 짧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가족원들의 가사분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취업주부의 시간압박으로 인한 제약이 증가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이기영/김외숙, 2002).

2) 부부간 역할분담 정도

① 남성의 경우

남성들은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표 5-31>에서 제시하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이를 배우자(여성)가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부가 함께 하는 가사노동으로는 시장보기/쇼핑이 가장 많아 34.7%, 자녀돌보기 34.6%, 집안청소 20.7% 등의 순이었다. 한편, 남편 스스로가 하는 항목으로는 배우자(여성)에 비하여 훨씬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집안청소 7.3%와 세탁 6.5%, 설거지 6.0%, 자녀돌보기 6.0% 순이었으며 이 가운데, 시장보기와 쇼핑이 4.2%로 가장 낮았다.

② 여성의 경우

여성들은 모든 가사노동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주로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식사준비(95.0%)였고 가장 응답율이 낮은 것은 자녀돌보기(65.1%)였다.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일은 시장보기 및 쇼핑(34.7%)과 자녀돌보기(34.6%)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 항목들에 대해 부부간에 동일하게 분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보기와 자녀돌보기와 같이 비교적 부부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가사분담이 되고 있어 가사노동에 있어 남자들의 참여는 '성편중적' 경향(이기영, 김외숙, 2002)을 띄고 있으며, 음식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과 같은 '여성중심형 과업'(female-typed tasks)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마저 나타나고 있다(박재규, 2003).

<표 5-31> 부부간 역할분담 정도

단위 : %

특성	주로 내가	부부 함께	주로 배우자	계(명)
식사준비				
남자	4.5	3.2	92.3	100.0(406)
여자	95.0	3.6	1.4	100.0(593)
전체	58.1	3.5	38.5	100.0(999)
설거지				
남자	6.0	9.0	85.0	100.0(406)
여자	90.2	8.3	1.6	100.0(593)
전체	55.8	8.6	35.6	100.0(999)
세탁				
남자	6.5	8.2	85.3	100.0(406)
여자	90.8	6.6	2.6	100.0(593)
전체	56.1	7.3	36.6	100.0(999)
시장보기/쇼핑				
남자	4.2	38.9	56.9	100.0(406)
여자	66.0	31.7	2.2	100.0(593)
전체	40.7	34.7	24.6	100.0(999)
집안청소				
남자	7.3	23.3	69.5	100.0(406)
여자	76.0	18.9	5.1	100.0(593)
전체	47.7	20.7	31.6	100.0(999)
자녀돌보기				
남자	6.0	41.0	53.0	100.0(406)
여자	65.1	30.1	4.8	100.0(593)
전체	40.9	34.6	24.5	100.0(999)

3) 부부간 역할분담에 관련된 갈등여부

가사노동을 둘러싼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55.7%는 없다, 보통이다 19.8%, 갈등이 있다 24.5%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을 둘러싼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23.4%)에 비하여 여성(25.3%)이 가사노동에 대해 불만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부에서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성별로는 여성들(19.5%)이 남성들(14.9%)에 비해 갈등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반면, 전체적으로는 '별로 없다'(39.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취업여부별로 (남성의 미취업은 소수이므로 분석의 의미가 없어 이를 제외하고) 여성만 비교해보면, 미취업여성(19.4%)보다는 취업여성(27.8%)이 가사노동을 둘러싼 부부

간의 갈등이 더 많다.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의 지원이 없는 취업여성은 직장의 업무와 가정의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김리진·윤종희, 2000; 전보윤, 1989) 나타나고 있는 데 본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32> 가사분담으로 인한 부부 갈등경험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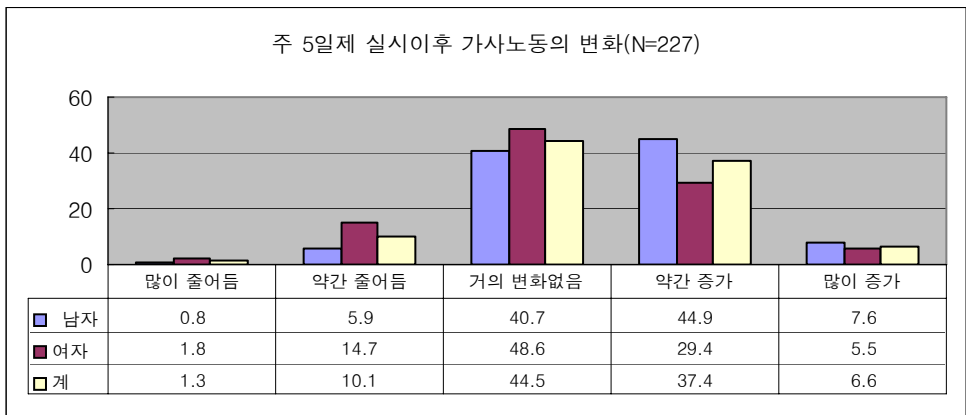
특성	없다	보통	있다	계(명)
남성				
취업	58.3	18.8	23.0	100.0(400)
미취업/비취업	50.0	.0	50.0	100.0(6)
소계	58.1	18.5	23.4	100.0(406)
여성				
취업	48.1	24.2	27.8	100.0(418)
미취업/비취업	68.0	12.6	19.4	100.0(175)
소계	54.0	20.7	25.3	100.0(593)
전체				
취업	53.1	21.5	25.4	100.0(818)
미취업/비취업	67.4	12.2	20.4	100.0(181)
소계	55.7	19.8	24.5	100.0(999)

4) 주 5일제 실시이후 가사노동의 변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취업남성들의 가정으로의 회귀를 유도하여 가족생활의 강화와 가사노동의 성 평등한 분담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도입 이후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 5일근무제의 도입이후 부부간의 가사분담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발표되고 있지는 않지만 단편적으로 발표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주5일제가 부부간의 가사분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징후는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여성부, 2003).

본 조사에서는, 주5일 근무제에 해당하는 227명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후 가사노동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응답결과, 주5일제 근무실시 이후 가사노동이 더 줄었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하였으며, 거의 변화

없다 44.5%,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44.1%로 응답하였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6.7%만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2.5%는 제도 실시 이후 더 늘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여성은 16.5%가 줄었다고 응답하여 가사노동의 부담의 경감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의 체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여성 응답자들은 거의 변화 없다 48.6%, 오히려 실시 이후 가사노동이 더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34.9%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주5일제의 실시는 여성에 있어 가사노동의 증가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앞서서도 살펴 본 것처럼 여성들은 가사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높고, 남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이 더 늘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주 5일제가 성 평등한 가사노동의 분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은 보이고 있다.



<그림 5-11> 주 5일제 실시이후 가사노동의 변화

제 5 절 부부관계 만족도 및 가치관

1. 부부관계 만족 정도

1) 부부간 대화정도와 내용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대화정도는 부부관계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즉 부부간의 대화정도가 많거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인천발전연구원, 2004).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대화정도와 그 내용을 응답자의 각 특성별로 살펴보고 대화정도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표 5-33> 배우자와의 대화정도

단위 : %

특성	자주하는 편임	보통	별로 안함	계(명)
전체	44.4	43.1	12.6	100.0(999)
성별				
남성	45.3	39.2	15.5	100.0(406)
여성	43.8	45.9	10.3	100.0(593)
연령				
20대	59.5	32.4	8.1	100.0(74)
30대	46.8	43.5	9.7	100.0(340)
40대	41.2	43.3	15.5	100.0(381)
50대	41.2	46.1	12.7	100.0(204)
교육수준				
중학이하	31.1	50.3	18.7	100.0(193)
고등학교	40.1	49.3	10.5	100.0(456)
대학이상	57.4	31.1	11.4	100.0(350)
가구구성				
부부가족	79.4	11.8	8.8	100.0(34)
부부+자녀	43.2	44.4	12.3	100.0(851)
3세대/기타	43.0	43.1	14.0	100.0(114)
자녀구성				
자녀없음	75.7	16.2	8.1	100.0(37)
초등학생이하	46.6	41.9	11.5	100.0(547)
중고생이상	38.8	47.2	14.0	100.0(415)
지역별계층구분				
도시저소득층	44.4	41.7	13.9	100.0(72)
도시중간층	50.5	38.0	11.6	100.0(527)
농촌저소득층	29.4	56.3	14.2	100.0(197)
농촌중간층	43.3	44.3	12.3	100.0(203)

위의 <표 5-33>는 평소에 배우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응답자의 44.4%는 자주하는 편, 43.1%는 보통이다, 12.6%는 별로 안한다고 응답하였다. 배우자와의 대화정도를 응답자의 각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배우자와 대화를 별로 안한다에 응답한 비율에 있어 아내 10.3%이나 남편의 경우 15.5%로 응답하고 있어 남편들이 아내에 비하여 대화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와의 대화를 자주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학력수준에 따른 배우자와의 대화정도에 있어서도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대화를 자주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가구구성별로는 부부가족이 대화를 자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9.4%로 가장 높으며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된 핵가족은 43.2%, 3세대 및 그 외 기타의 경우에는 43.0%로 응답하고 있어 부부가족에게서 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구성별로는 있어서는 자녀가 어릴수록 부부간의 대화가 자주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지역별 계층구분별로는 도시중간층이 50.5%로 가장 높았으며, 농촌저소득층이 29.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34> 배우자와의 대화내용

단위 : %

	응답자의 성별		
	전체(N=999)	남자(N=406)	여자(N=593)
자녀와 관련된 일	62.3	64.8	60.5
시집(친가)과 관련된 일	2.3	3.0	1.9
친정(처가)과 관련된 일	.5	.2	.7
직장과 관련된 일	7.0	6.7	7.3
하루의 일과	16.3	15.0	17.2
돈/경제에 관한 것	3.3	3.4	3.2
취미활동	.1	.0	.2
친구이야기	.3	.2	.3
정치/사회 문제	.3	.0	.5
종교	1.1	.5	1.5
부부 두 사람에 관한 것	6.4	6.2	6.6
기타	.1	.0	.2
계	100.0	100.0	100.0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대화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내보다는 남편,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대화가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부간의 대화내용은 주로 무엇인지를 알아 본 결과는 위의 <표 5-34>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대화내용에 있어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자녀와 관련된 일로 62.3%, 다음으로는 자하루의 일과 16.3%, 직장과 관련된 일 7.0%, 부부 두사람에 관련된 일 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대화내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시집과 관련된 일에 있어 남편의 비율이 아내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아내의 친정과 관련된 일은 남편의 대화내용이 시집의 대화내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부 두 사람에 관한 대화에 있어서는 여성의 13.2%에 비하여 남성이 약간 높은 15.9%를 나타내고 있다.

2) 부부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부부 관련문제는 자녀교육부터 부부의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생활을 둘러싼 배우자의 평소 생활태도에 대한 만족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그렇지 않다라는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자녀교육에 무관심하다 2.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것이 불만이다 3. 배우자의 외도로 문제 있다 4. 성생활에 불만이 있다 5. 배우자의 일방적인 대화방식이 못 마땅하다 6. 배우자와 종교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다 7. 배우자가 가사 일을 돕지 않아 불만이다 8. 배우자와의 성격, 생각의 차이로 인한 불만이 있다 9. 배우자가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 불만이다 10. 배우자가 생활비를 충분히 벌어들이지 못해 불만이다 11. 배우자가 돈 쓰는 문제에 일일이 간섭하여 화난다 등 11가지 문항이다.

<표 5-35> 부부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특성	1	2	3	4	5	6	7	8	9	10	11
전체	8.2	8.9	.7	2.5	8.4	3.4	8.5	10.2	8.8	6.3	2.4
성별											
남성	3.8	5.4	.0	2.0	4.2	4.2	2.2	4.9	2.2	2.7	2.0
여성	11.3	11.3	1.2	2.9	11.3	2.9	12.8	13.8	13.3	8.8	2.7
연령											
20대	8.5	10.8	.0	1.4	1.4	.0	8.1	5.4	5.4	5.4	2.7
30대	10.1	10.6	.9	1.5	9.1	2.6	8.2	10.9	9.4	7.4	2.1
40대	7.9	9.2	.8	3.4	8.7	4.7	9.4	12.1	9.2	7.3	2.9
50대	5.6	4.9	.5	2.9	9.3	3.4	7.4	7.4	8.3	2.9	2.0
교육수준											
중학이하	9.2	11.4	2.6	4.7	12.4	2.1	13.0	11.4	13.5	8.3	4.7
고등학교	7.9	8.8	.2	2.2	7.2	4.2	9.0	11.2	8.6	6.4	2.2
대학이상	8.1	7.7	.3	1.7	7.7	3.1	5.4	8.3	6.6	5.1	1.4
가구구성											
부부가족	.0	8.8	.0	2.9	2.9	.0	.0	.0	5.9	5.9	.0
부부+자녀	8.1	8.7	.7	2.5	8.9	3.4	8.5	10.5	9.2	6.2	2.4
3세대/기타	9.9	10.5	.9	2.6	6.1	4.4	11.4	11.4	7.0	7.0	3.5
자녀구성											
자녀 없음	.0	8.1	.0	2.7	2.7	2.7	.0	.0	5.4	5.4	.0
초등학생이하	9.0	9.7	.7	1.8	7.7	3.1	8.8	11.0	7.9	7.3	2.7
중고생이상	7.4	8.0	.7	3.4	9.9	3.9	8.9	10.1	10.4	5.1	2.2
지역별계층구분											
도시저소득층	14.3	18.1	.0	5.6	16.7	1.4	9.7	9.7	9.7	18.1	5.6
도시중간층	9.5	11.2	1.1	2.7	8.9	3.4	8.3	11.4	9.7	5.3	2.1
농촌저소득층	4.9	2.5	.5	2.0	6.6	4.1	8.6	7.1	10.2	6.1	1.5
농촌중간층	6.0	5.9	.0	1.5	5.9	3.4	8.4	10.3	4.9	4.9	3.0

*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을 표시

위의 <표 5-35>는 부부문제에 대한 11가지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합한 값이다. 부부 관련문제에 있어 문항별 문제인식이 높은 수준을 보면, 성격, 생각차이>가족공유시간 적음>지나친 음주>가사분담 불형평성>일방적인 대화방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결과와 유사한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문제인식 정도에 있어 다소의 우선순위 변화를 엿 볼 수 있다. 즉 동일한 질문으로 부부문제를 측정하고 있는 이성희(전라북도, 1999)연구결과에서는 기혼여성 1,198명을 대상으

로 질문한 결과, 문제인식이 높은 문항으로는 가족공유시간 적음>성격, 생각차이>자녀교육의 무관심>일방적인 대화방식>수입의 부족> 지나친 음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전국 조사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조사에서 부부문제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문항으로는 가사분담의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이 높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가정에서의 가사분담의 형평성에 대한 의식이 과거보다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바뀌어졌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부부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특성별로 각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로는 11개의 모든문항에 있어 남편들에 비하여 아내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개별문항에 있어서는 남편들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았으며(5.4%), 아내들은 남편과의 생각이나 성격차이로 인한 불만(13.8%)이 있다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가장 응답율이 낮은 문항으로는 배우자의 외도로 남편들은 아내의 외도로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나 아내들의 경우에는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부부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각 집단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대 집단에서는 배우자가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0대, 40대 집단에서는 배우자와의 생각이나 성격차이에 대한 불만이 50대 집단에서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대화방식이 못마땅하다는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이하의 집단에서는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문제에 대해 13.5%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 및 대학이상에서는 배우자와의 생각이나 성격차이에 대한 불만이 각각 11.2%, 8.3%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구성별로는 부부가족은 가족들과의 시간이 적다에 대한 불만이 8.8%였으며,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배우자와의 성격이나 생각에 대한 차이로 인한 불만이 것으로 10.5%, 3세대 이상의 가구에서는 배우자가 가사일을 돕지 않는다는 생각이나 성격차이에 대한 불만이 각각 11.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계층구분에 있어서는 각 집단별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 저소득층 집단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다와 생활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대한 불만이 각각 1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중간층은 배우자와의 생각이나 성격차이에 대한 불만이 11.4%, 농촌 저소득층은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에 대해 10.2%, 농촌중간층은 배우자와의 생각이나 성격차이에 대해 10.3%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부부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양성간의 차이와 계층간에 따른 차이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부부문제에 대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불만정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만사항도 여성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은 반면 남성들은 배우자보다는 가족원들과의 공유시간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층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각 계층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생활상의 문제를 반영한 사항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3) 배우자 만족도

배우자 만족도를 묻는 7개의 문항은 1. 친밀감 2.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여가) 3. 성생활 4. 가사의 양 5. 부부간의 대화 6. 문화생활 7. 부부관계 전반 등에 관하여 매우 만족한다부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5-36> 배우자 만족도

단위: %

특성	1	2	3	4	5	6	7
전체	54.3	44.7	47.5	44.9	44.4	28.0	46.7
성별							
남성	60.8	54.2	53.0	63.1	51.7	28.8	52.7
여성	49.9	38.3	43.8	32.5	39.5	27.5	42.7
연령							
20대	77.0	66.2	70.3	55.4	66.2	41.9	71.6
30대	62.9	50.3	58.8	42.9	50.6	33.8	53.5
40대	49.3	41.2	42.0	45.7	36.7	23.1	41.5
50대	41.2	34.3	30.9	43.1	40.7	22.5	36.3
교육수준							
중학이하	24.4	22.3	26.4	30.6	26.9	12.4	24.4
고등학교	54.6	41.7	44.1	41.4	40.4	23.9	42.3
대학이상	70.6	61.1	63.7	57.4	59.4	42.0	64.9
가구구성							
부부가족	91.2	82.4	85.3	70.6	85.3	64.7	85.3
부부+자녀	53.3	43.6	46.3	44.8	43.2	27.3	45.6
3세대/기타	50.9	42.1	45.6	38.6	41.2	22.8	43.9
자녀구성							
자녀없음	89.2	81.1	83.8	70.3	83.8	62.2	83.8
초등학생이하	61.2	50.6	55.4	47.7	49.0	31.4	53.6
중고생이상	42.2	33.7	34.0	39.0	34.9	20.5	34.5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51.4	45.8	48.6	34.7	36.1	22.2	43.1
도시중간층	65.3	53.7	56.7	51.8	53.5	37.0	56.7
농촌저소득층	26.4	20.8	24.4	29.9	23.9	7.6	21.8
농촌중간층	54.2	44.3	45.8	45.3	43.8	26.6	46.3
결혼기간							
10년 미만	71.7	58.1	67.1	48.1	60.5	38.4	61.6
10년-19년	55.5	45.2	47.4	47.4	42.5	28.0	48.9
20년-29년	40.9	36.5	35.3	40.5	33.7	21.0	32.1
30년 이상	35.4	25.6	24.4	36.6	36.6	17.1	34.1
취업상태							
취업	54.2	43.6	46.6	47.3	44.0	26.2	46.1
미취업/비취업	55.2	49.7	51.9	34.3	46.4	36.5	49.7

*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을 표시

<표 5-36>은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와 대체로 만족한다에 응답한 비율을 합한 값을 제시하고 있다. 배우자의 만족도를 묻는 7개의 문항 가운데 가

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문항은 부부간의 친밀도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3%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응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으로는 부부간의 문화생활로 28.0%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부부간의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의 특성별로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7개의 모든 문항에 대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점이다.

7개의 문항 가운데 남성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항으로는 배우자가 분담하는 가사의 양으로 응답자의 63.1%가 응답하고 있다. 이는 남편들이 아내가 분담하는 가사의 양을 물어 본 것에 해당하므로 아내들이 수행하는 가사의 양에 대한 만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아내들이 생각하는 남편의 가사의 양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응답자의 32.5%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만족도에 있어 가사분담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가 낮은 점은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부부가 상호 존중하는 양성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사분담에 대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들이 가장 만족하는 문항은 부부간의 친밀감으로 49.9%가 응답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의 만족도를 묻는 모든 문항에서 응답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연령상승에 따라 배우자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연령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부부간의 친밀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만족도가 낮은 문항으로는 부부간의 문화생활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배우자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문항에서 배우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이 가장 낮은 중학교 이하의 집단에서는 배우자가 분담하는 가사의 양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와 대학이상의 집단에서는 부부 친밀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문항으로는 부부간의 문화생활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생활 만족도에 대한 학력수준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구성별로는 부부가족> 부부+자녀> 3세대 및 기타 가족의 순으로 부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모든 문항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64.7%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구성별로는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의 만족율이 높았으며 자녀가 클수록 배우자에 대한 만족정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계층구분에 따른 배우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의 만족도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촌저소득층의 경우는 도시중간층에 비하여 반절 정도의 만족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농촌저소득층의 만족수준은 7%로 다른 계층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기간에 따른 배우자의 만족정도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에 대한 만족정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결혼기간이 30년 이상 된 집단의 경우는 부부간의 대화정도와 부부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에 있어 결혼기간이 20-30년 사이의 집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집단보다는 미취업 집단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7가지 영역 가운데 가사 분담의 경우는 취업 집단의 만족정도가 미취업 집단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배우자의 만족정도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만족정도가 낮아 성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가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취업집단보다는 미취업집단의 배우자 만족정도가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만족정도가 높아 경제적인 변수 역시 배우자의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우자의 만족정도를 묻는 각 문항 가운데에서도 배우자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특히, 농촌의 저소득층의 경우는 만족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생활에 대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가족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부부갈등 및 해결노력

1) 부부싸움 정도

다음의 <표 5-37>은 부부싸움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자주한다 4.9%, 보통이다 24.3%, 별로 안한다는 70.9%로 전반적으로 부부싸움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의 이러한 결과는 전국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부부싸움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국조사에서는 자주한다 3.9%, 가끔한다 56.1%, 거의 안한다 40.1% 등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조사 결과에서는 오히려 부부싸움을 거의 안하는 부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부싸움의 정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집단에서 부부싸움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응답자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싸움의 정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싸움의 정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싸움에 있어 연령이 많을수록 부부싸움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 30대까지는 자녀양육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로에게 적응하거나 일정 부분 포기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2003, 여성부). 지역별 계층구분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싸움을 자주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농촌 저소득층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부부싸움을 자주 안한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7> 부부싸움 정도

단위 : %

특성	자주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안한다	계(명)
전체	4.9	24.3	70.9	100.0(999)
성별				
남성	45.3	39.2	15.5	100.0(406)
여성	43.8	45.9	10.3	100.0(593)
연령				
20대	59.5	32.4	8.1	100.0(74)
30대	46.8	43.5	9.7	100.0(340)
40대	41.2	43.3	15.5	100.0(381)
50대	41.2	46.1	12.7	100.0(204)
교육수준				
중학이하	31.1	50.3	18.7	100.0(193)
고등학교	40.1	49.3	10.5	100.0(456)
대학이상	57.4	31.1	11.4	100.0(350)
가구구성				
부부가족	79.4	11.8	8.8	100.0(34)
부부+자녀	43.2	44.4	12.3	100.0(851)
3세대/기타	43.0	43.0	14.0	100.0(114)
자녀구성				
자녀없음	75.7	16.2	8.1	100.0(37)
초등학생이하	46.6	41.9	11.5	100.0(547)
중고생이상	38.8	47.2	14.0	100.0(415)
지역별 계층구분				
도시저소득층	44.4	41.7	13.9	100.0(72)
도시중간층	50.5	38.0	11.6	100.0(527)
농촌저소득층	29.4	56.3	14.2	100.0(197)
농촌중간층	43.3	44.3	12.3	100.0(203)

2) 부부싸움 주된 이유

부부싸움의 주된 이유로는 자녀문제가 2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생활 습관의 차이 18.0%, 경제적 문제 15.4%, 성격차이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각 항목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남편들의 늦은 귀가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여성들에게 있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38-1> 부부싸움 주된 이유(1)

단위 : %

특성	부모부양 문제	시집/처가와 의 갈등	가사노동 분담	육아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제사 모시기
전체	5.1	5.8	2.5	5.9	20.8	15.4	1.0
성별							
남성	6.2	5.3	2.1	7.4	18.4	16.3	1.2
여성	4.3	6.1	2.9	4.9	22.5	14.7	.8
연령							
20대	3.4	10.2	6.8	16.9	8.5	8.5	1.7
30대	4.4	9.3	2.6	10.4	18.5	17.0	.4
40대	4.3	4.0	1.8	3.1	26.5	14.2	.9
50대	8.1	2.3	2.3	.6	18.0	17.4	1.7
교육수준							
중학이하	7.4	3.4	1.7	1.1	21.0	17.0	.6
고등학교	3.5	5.6	2.7	5.1	20.5	20.5	1.1
대학이상	5.8	7.7	2.9	10.2	21.2	7.3	1.1
가구구성							
부부가족	3.4	10.3	3.4	.0	.0	17.2	3.4
부부+자녀	4.1	5.6	2.6	6.4	21.7	15.9	.7
3세대/기타	12.4	6.2	2.1	4.1	20.6	11.3	2.1
자녀구성							
자녀없음	3.1	9.4	3.1	.0	.0	18.8	3.1
초등학생이하	4.3	8.2	3.2	10.9	23.0	15.7	.2
중고생이상	6.2	2.5	1.7	.3	20.0	14.6	1.7
지역별계층구분							
도시저소득층	4.6	6.2	1.5	3.1	16.9	29.2	1.5
도시중간층	6.7	6.7	4.5	6.2	21.9	9.7	.7
농촌저소득층	2.6	4.2	1.1	4.2	20.6	20.6	1.1
농촌중간층	4.1	5.3	.0	8.2	19.9	17.5	1.2

부부싸움의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부부싸움은 부부들의 생활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표 5-38-2>에서 보는바와 같이 20대의 부부싸움의 주된 이유로는 생활습관이라는 응답이 25.4%를 차지하고 있으나 육아문제와 같은 사항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은 20대와 30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30대와 40대는 자녀문제가 각각 18.5%, 26.5%로 부부싸움의 주된 이유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50대의 경우에는 19.8%가 생활습관에 의한 차이를 부부싸움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학력수준에 따라 부부싸움의 주된 이유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5-38-2> 부부싸움 주된 이유(2)

단위 : %

특성	생활습관 차이	본인의 늦은 귀가	배우자의 늦은 귀가	배우자의 바람기	성격차이	기타	계(명)
전체	18.0	2.5	4.8	6	13.8	3.6	100.0(826)
성별							
남성	16.9	6.2	3.0	.3	13.4	3.3	100.0(337)
여성	18.8	.0	6.1	.8	14.1	3.9	100.0(489)
연령							
20대	25.4	1.7	3.4	.0	13.6	.0	100.0(59)
30대	14.8	2.2	6.3	.7	10.7	2.6	100.0(270)
40대	18.5	2.8	5.2	.9	14.8	3.1	100.0(325)
50대	19.8	2.9	2.3	.0	16.9	7.6	100.0(172)
교육수준							
중학이하	19.3	.6	2.3	1.1	17.0	7.4	100.0(176)
고등학교	17.0	2.4	5.9	.5	12.8	2.7	100.0(376)
대학이상	18.6	4.0	5.1	.4	13.1	2.6	100.0(274)
가구구성							
부부가족	31.0	3.4	3.4	.0	24.1	.0	100.0(29)
부부+자녀	18.0	2.3	4.9	.7	13.4	3.7	100.0(700)
3세대/기타	14.4	4.1	5.2	.0	13.4	4.1	100.0(97)
자녀구성							
자녀없음	28.1	3.1	3.1	.0	28.1	.0	100.0(32)
초등학생이하	12.8	2.7	4.8	.5	11.4	2.3	100.0(439)
중고생이상	23.7	2.3	5.1	.8	15.5	5.6	100.0(355)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16.9	.0	1.5	1.5	12.3	4.6	100.0(65)
도시중간층	14.5	4.2	7.7	.5	14.0	2.5	100.0(401)
농촌저소득층	21.7	1.1	2.1	.5	13.8	6.3	100.0(189)
농촌중간층	22.8	1.2	2.3	.6	14.0	2.9	100.0(171)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학력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 학력수준이 높은 대학이상의 집단에서는 경제적 문제와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싸움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가사노동 분담이나 육아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두 집단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관련된 노동의 분담에 있어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부부간 갈등이 더 많은 이유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양성평등적 관점을 더 견지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협상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2003, 여성부).

지역별 계층구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도시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문제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도시중간층의 경우에는 자녀문제, 농촌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생활습관에 의한 차이가 21.7%, 자녀문제와 경제적 문제에 각각 20.6% 응답하였으며, 농촌중간층의 경우에는 생활습관에 의한 차이가 22.8%, 자녀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각각 19.9%와 17.5% 정도로 나타났다.

3) 이혼에 대한 생각

부부의 갈등이 심할 경우의 이혼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물어 본 결과,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 30.5%, 되도록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51.9%,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좋다가 17.6% 등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경우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대한 생각을 응답자의 각 특성별로 살펴보면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보다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응답에 대하여 남성 11.8%, 여성이 21.6%로 응답하고 있어 이혼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에 대해서는 30대의 연령 집단에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기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구성에 있어서는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자녀를 둔 가족이나 3세대 가족보다 이혼에 대하여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녀가 어릴수록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는 불행한 결혼의 지속보다는 이혼이 더 낫다에 응답한 비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39> 이혼에 대한 생각

단위 : %

특성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	되도록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보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	계(명)
전체	30.5	51.9	17.6	100.0(999)
성별				
남성	37.2	51.0	11.8	100.0(406)
여성	26.0	52.4	21.6	100.0(593)
연령				
20대	29.7	51.4	18.9	100.0(74)
30대	22.1	54.7	23.2	100.0(340)
40대	29.1	55.1	15.7	100.0(381)
50대	47.5	41.2	11.3	100.0(204)
교육수준				
중학이하	38.9	50.8	10.4	100.0(193)
고등학교	29.6	53.1	17.3	100.0(456)
대학이상	27.1	50.9	22.0	100.0(350)
가구구성				
부부가족	38.2	35.3	26.5	100.0(34)
부부+자녀	29.1	52.3	18.6	100.0(851)
3세대/기타	38.6	53.5	7.9	100.0(114)
자녀구성				
자녀없음	37.8	35.1	27.0	100.0(37)
초등학생이하	25.4	55.0	19.6	100.0(547)
중고생이상	36.6	49.2	14.2	100.0(415)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25.0	56.9	18.1	100.0(72)
도시중간층	23.5	50.7	25.8	100.0(527)
농촌저소득층	40.1	56.9	3.0	100.0(197)
농촌중간층	41.4	48.3	10.3	100.0(203)
결혼기간				
10년 미만	27.1	52.3	20.5	100.0(258)
10년-19년	25.6	54.8	19.7	100.0(407)
20년-29년	32.5	52.0	15.5	100.0(252)
30년 이상	59.8	35.4	4.9	100.0(82)
취업상태				
취업	31.5	52.9	15.5	100.0(818)
미취업/비취업	26.0	47.0	27.1	100.0(181)

지역별 계층구분에 따른 각 집단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우선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에 대해 도시보다 농촌의 비율이 두 배정도

높아 전통보수 지향적인 농촌의 사고방식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과 이혼고려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결혼기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상태에 있어서는 취업 보다는 미(비)취업의 경우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이혼을 고려한 경험

다음의 <표 5-40>은 이혼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나 태도가 아닌 실제적으로 자신의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이에 대하여 없다가 73.8%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가끔 있다 23.7%, 자주 있다 2.5% 등으로 나타나 이혼에 대한 생각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의 이혼 고려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이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를 합하여 여성은 31.3%인데 비해 남성은 이보다 낮은 18.7%를 보이고 있다. 이혼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성들의 불만족이 더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이혼을 고려해본 적이 없다는 비율이 8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50대 이상에서 77.0%로 많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20대의 이혼고려경험은 결혼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상호에 대한 파악과정에서 생기는 불안정을 의미하고 있으나 50대의 경우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황혼이혼과 같은 유사한 성격을 갖을 수 있어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부부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없거나 어릴수록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계층구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농촌보다는 도시에서의 이혼 고려 경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에서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결혼기간이 길수록 이혼에 대한 고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상태별로는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

이 취업의 경우가 미(비)취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다소 크게 나고 있으며 농촌에서 없다는 비율이 높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은 성별과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주로 농촌의 저소득층에게서 이혼을 고려해본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40> 이혼을 고려한 경험

단위 : %

특성	없다	가끔있다	자주있다	계(명)
전체	73.8	23.7	2.5	100.0(999)
성별				
남성	81.3	17.5	1.2	100.0(406)
여성	68.7	27.9	3.4	100.0(593)
연령	73.8	23.7	2.5	
20대	83.8	16.2	.0	100.0(74)
30대	72.3	25.4	2.4	100.0(340)
40대	71.6	25.3	3.2	100.0(381)
50대	77.0	20.6	2.5	100.0(204)
교육수준				
중학이하	71.5	24.9	3.6	100.0(193)
고등학교	74.9	22.2	2.9	100.0(456)
대학이상	73.6	24.9	1.4	100.0(350)
가구구성				
부부가족	88.2	11.8	.0	100.0(34)
부부+자녀	71.7	25.3	2.9	100.0(851)
3세대/기타	85.1	14.9	.0	100.0(114)
자녀구성				
자녀없음	86.5	10.8	2.7	100.0(37)
초등학생이하	73.9	23.7	2.4	100.0(547)
중고생이상	72.5	24.8	2.7	100.0(415)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58.3	34.7	6.9	100.0(72)
도시중간층	68.4	29.7	1.9	100.0(527)
농촌저소득층	80.7	15.7	3.6	100.0(197)
농촌중간층	86.7	11.8	1.5	100.0(203)

특성	없다	가끔있다	자주있다	계
결혼기간				
10년 미만	75.6	23.3	1.2	100.0(258)
10년-19년	73.3	24.0	2.7	100.0(407)
20년-29년	71.4	24.6	4.0	100.0(252)
30년 이상	78.0	20.7	1.2	100.0(82)
취업상태				
취업	76.3	21.4	2.3	100.0(818)
미취업/비취업	62.8	33.9	3.3	100.0(181)

5) 이혼에 대한 일반적 태도

이혼에 대한 일반적 의식과 태도를 묻는 7개 문항 각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7개의 문항은 1)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있다 2)불행한 결혼생활을 참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 3)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비뚤어지기 쉽다 4) 만약 이혼을 하려거든 자녀가 다 성장한 후에 해야 한다 5)부모가 이혼한 사람은 자신들도 이혼하기 쉽다 6)내 자녀가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결혼한다면 반대 하겠다 7)좋은 부모라면 배우자가 문제 있어도 이혼은 하지 않는다 등이다.

위의 <표 5-41>는 그 결과로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찬성한다와 약간 찬성한다의 응답율을 합한 값이다. 먼저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는 것 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찬성의견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에 대해 다소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일한 문항에 대해 서울시민 7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찬성율이 70.0%(대한가정학회지, 1998)로 나타나 이혼에 대한 허용정도는 본 조사의 결과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미혼자를 포함한 10대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군이 표집 되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허용 정도가 다소 높을 수 있는 경향이 있다.

<표 5-41> 이혼에 대한 일반적 태도

단위 : %

특성	1	2	3	4	5	6	7
전체	55.9	53.2	75.4	54.7	44.6	35.8	39.4
성별							
남성	50.2	46.1	74.1	54.9	48.0	38.9	38.7
여성	59.7	58.0	76.2	54.5	42.3	33.7	40.0
연령							
20대	55.4	62.2	71.6	36.5	35.1	28.4	27.0
30대	55.3	65.3	73.2	53.8	47.9	34.4	32.9
40대	52.0	48.3	74.0	60.1	40.2	33.1	40.4
50대	64.2	38.7	82.8	52.5	51.0	46.1	52.9
교육수준							
중학이하	67.9	34.7	82.4	52.8	46.1	36.8	51.8
고등학교	50.0	52.4	70.4	56.4	39.3	33.3	37.7
대학이상	56.9	64.3	78.0	53.4	50.9	38.6	34.9
가구구성							
부부가족	64.7	64.7	82.4	50.0	47.1	50.0	26.5
부부+자녀	54.3	54.9	74.6	54.4	45.0	35.3	38.4
3세대/기타	64.9	36.8	78.9	57.9	41.2	36.0	50.9
자녀구성							
자녀없음	64.9	67.6	83.8	54.1	48.6	48.6	27.0
초등학생이하	53.7	58.9	74.2	52.5	43.9	32.2	33.8
중고생이상	57.8	44.3	76.1	57.6	45.3	39.5	48.0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54.2	63.9	70.8	55.6	47.2	31.9	26.4
도시중간층	51.4	70.6	75.7	52.4	50.3	38.9	32.8
농촌저소득층	70.6	19.8	80.2	59.4	25.4	29.4	53.3
농촌중간층	53.7	36.5	71.4	55.7	47.8	35.5	47.8
결혼기간							
10년 미만	60.1	65.9	74.8	48.1	46.1	33.7	31.4
10년~19년	50.6	54.8	74.9	58.5	42.8	34.6	36.9
20년~29년	54.8	44.4	73.8	56.7	43.3	34.9	44.8
30년 이상	72.0	31.7	84.1	50.0	53.7	51.2	61.0
취업상태							
취업	56.1	48.0	77.1	55.9	45.2	35.7	41.8
미취업/비취업	54.7	76.2	67.4	49.2	42.0	36.5	28.7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찬성”과 “약간 찬성”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을 표시.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 현실적인 견해가 반영되었다는 점¹⁰⁾을 고려한다면 본 조사결과에서도 2명 중 1명 정도는

10) 가족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가족 내 지위나 가족경험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가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뼈뿔어지기 쉽다(75.4%)고 생각하며 이혼을 하려거든 자녀가 다 성장한 이후에 해야한다는 견해가 54.7%로 질문이 구체화 될수록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표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좋은 부모라면 배우자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이혼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9.4%가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에 대한 허용정도는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해도 이혼은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주며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부부는 참고 살아야한다는 견해에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특히 자녀와 연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혼에 대한 허용정도에 있어 응답자의 각 특성별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는 것 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 응답에 대해서는 남성46.1%, 여성58.0%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녀와 관련해서 이혼을 묻는 2개의 다른 문항, 즉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뼈뿔어지기 쉽다’와 ‘내 자녀가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결혼한다면 반대 하겠다’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이혼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자녀와 관련된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이혼에 대한 허용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0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이혼허용 정도가 높다. 한편, 자녀와 관련된 이혼문제에 대해서는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력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이혼에 대한 허용정도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녀와 관련된 이혼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보다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계층구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더욱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점으로는 도시와 농촌간의 이혼허용 정도에 있어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불행한 결혼을 참는 것보다는 이

족을 현실 문제로 겪고 있는 사람과 막연한 이상과 규범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의 응답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여성부, 2004)

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문항에 대해 농촌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단지 19.8%만이 찬성하고 있어 도시 중간층의 70.6%와는 커다란 의식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이혼에 대한 허용정도가 높았으며 취업보다는 미(비)취업의 경우 이혼에 대한 허용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요약하면, 여성과 연령이 낮은 집단, 교육수준이 높고 결혼 지속기간이 짧을수록 이혼에 대한 허용정도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적인 차이가 커서 농촌의 경우 본인 스스로 보다는 자녀와 가족의 입장에서 이혼을 반대하는 전통보수적인 견해가 아직도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상황에 따른 이혼관

상황에 따른 이혼관은 이혼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응답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혼의 직/간접적 원인인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10가지 상황을 가정한 후, 각각의 상황에서의 이혼에 대한 허용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5-42> 상황에 따른 이혼관

단위 : %

특성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8.9	32.4	37.0	48.9	9.5	41.1	47.3	51.8	55.4	53.6
성별										
남성	20.9	28.8	32.5	42.9	10.6	38.9	38.2	47.5	48.8	46.1
여성	17.5	34.9	40.1	53.1	8.8	42.7	53.6	54.6	59.9	58.7
연령										
20대	18.9	35.1	37.8	47.3	6.8	47.3	55.4	58.1	63.5	60.8
30대	24.4	42.1	47.1	60.9	10.6	47.9	60.6	63.2	65.3	65.0
40대	15.7	27.0	30.7	42.5	8.9	36.0	41.2	46.7	51.4	48.8
50대	15.7	25.5	31.9	41.7	9.8	37.3	33.8	39.7	43.1	40.7
교육수준										
중학이하	15.5	22.8	24.9	32.6	7.8	29.5	33.2	35.2	38.3	36.8
고등학교	16.4	30.7	37.5	49.1	10.1	41.4	50.2	56.6	58.8	57.0
대학이상	24.0	40.0	43.1	57.7	9.7	47.1	51.4	54.6	60.3	58.3

가구구성

부부가족	17.6	26.5	35.3	52.9	8.8	55.9	44.1	44.1	58.8	64.7
부부+자녀	19.9	34.7	39.1	50.6	9.6	42.2	48.8	53.2	56.6	54.4
3세대/기타	12.3	17.5	21.9	35.1	8.8	28.9	37.7	43.0	44.7	43.9
특성	1	2	3	4	5	6	7	8	9	10
자녀구성										
자녀없음	21.6	32.4	40.5	56.8	13.5	56.8	48.6	48.6	59.5	67.6
초등학생이하	22.9	37.7	41.1	54.1	10.2	44.8	55.0	59.8	62.0	59.0
중고생이상	13.5	25.5	31.3	41.4	8.2	34.9	37.1	41.4	46.3	45.1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25.0	44.4	36.1	54.2	5.6	44.4	43.1	44.4	66.7	63.9
도시중간층	25.8	45.5	51.4	67.4	11.8	53.5	58.3	63.2	69.6	67.2
농촌저소득층	5.6	10.7	12.2	18.8	6.6	16.8	32.0	33.0	34.0	35.5
농촌중간층	11.8	15.3	24.1	28.6	7.9	31.5	35.5	42.9	35.0	32.0
결혼기간										
10년 미만	24.0	39.5	41.1	56.2	8.9	45.3	56.6	60.1	64.3	62.4
10년-19년	20.1	34.6	40.0	52.3	10.6	43.5	51.6	56.8	59.5	57.2
20년-29년	14.7	25.8	31.3	41.7	8.3	37.3	38.5	43.7	48.0	46.4
30년 이상	9.8	19.5	26.8	31.7	9.8	28.0	24.4	25.6	29.3	29.3
취업상태										
취업	18.6	28.6	33.1	46.1	9.9	38.0	44.5	49.4	52.2	50.5
미취업/비취업	20.4	49.7	54.7	61.9	7.7	55.2	60.2	62.4	69.6	67.4

*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찬성” 과 “약간찬성” 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을 표시.

이혼에 관한 상황으로 설정하고 있는 10가지 문항에 대해 살펴보면, 1)부부간에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이혼할 수 있다 2)배우자 때문에 가정에 경제적 파탄이 생긴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3)성격이나 가치관 등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4)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무시하는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5)어느 한 쪽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6)서로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7)남편이 바람 피우면 이혼할 수 있다 8)부인이 바람을 피우면 이혼할 수 있다 9)남편이나 부인이 시댁이나 친정식구를 괘시하거나 심한 학대를 한다면 이혼할 수 있다 10)시댁이나 처가에서 괘시나 심한 학대를 받는다면 이혼을 할 수 있다 등이다.

다음의 <표 5-42>는 10개 문항 각각에 대하여 매우 찬성한다와 약간 찬성한다에 응답한 비율을 합한 값이다. 응답결과를 알아보면, 이혼에 대한 허용정도는 부부만의 관계에서 보다는 배우자의 친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55.4%(9번 문항), 53.6%(10번 문항)의 높은 이혼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친족과의 관계가 아직은 결혼적용 및 가족관계에 영향력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 한국 가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대한가정학회지, 1998). 그러나 동일한 질문에 대한 서울시의 조사결과에서는 친족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혼의 허용정도 보다는 부부간의 심리적, 애정적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혼의 허용정도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서울시민의 조사결과에서는 4)번 문항의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무시하는 처사나 7)부인이 바람을 피우면 이혼하겠다 등에 있어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이 부부간의 애정, 심리적 유대를 중심으로 하는 결합이어야 하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고 있다.

본 조사 결과에서는 10가지의 이혼상황 가운데에서 배우자의 친족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혼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이혼 허용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의 조사결과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10가지의 이혼상황에 대한 응답 가운데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 문항으로는 5)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의 9.5%만이 동의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결혼에서 중시되어오던 자녀출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변화된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응답결과에서 한 가지 모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항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외도로 인한 이혼 상황에 대해 아내의 외도가 이혼사유가 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응답자들의 비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즉, 여자의 외도보다 남자의 외도에 대해 더욱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결과로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성, 결혼과 관련된 이중규범이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상황에 따른 이혼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특성별로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각 상황에 대하여 이혼의 허용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이혼허용 정도에 있어 남녀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문항으로는 각 배우자에 대한 외도로 인한 이혼관이다. 남성의 경우,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 대해서는 38.2%가, 부인의 외도에 대해서는 47.5%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들의 응답은 남편과 부인의 외도 모두에 대해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비율이 53.6%와 54.6%로 비슷한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남성들은 성생활이나 자녀출산의 불가능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서 여성들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여성들은 성생활과 자녀출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남성들보다 이혼에 대한 허용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과 가족에 대해 우리사회가 이중규범이 내면화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남자들은 아직도 성에 대한 이중규범과 가계계승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에 반해 여성들은 그러한 가치로부터 남자들 보다는 진보적 관점을 취하고 있어 성간에 의식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이혼 허용적 태도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30대 집단이 다른 연령의 집단에 비하여 모든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이혼허용 정도에 대해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학력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모든 문항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자녀출산에 대한 불가능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서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가구구성에 있어서는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다른 부부가족이나 3세대 가족에 비하여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로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부부가족의 찬성 응답율이 높아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부친밀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계층구분에 의하면 우선 계층구분과는 관계없이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더 높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층 보다는 도시와 농촌의 중간층의 이혼허용적인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혼기간이 짧고 미(비)취업 일수록 이혼에 대한 허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부부간 성 평등성

부부간 성 평등정도에 대해서는 부부권력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와 가족내의 의사결정사안에 대한 결정방법, 재산소유의 불평등은 없는 지 등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했다.

1) 가족내 의사결정

<표 5-43> 가족내 의사결정

단위 : %

특성	본인이 주로	배우자가 주로	부부공동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계(명)
자녀교육문제					
남성	13.0	27.0	58.5	1.5	100.0(406)
여성	36.3	7.6	54.7	1.4	100.0(593)
전체	26.8	15.5	56.2	1.4	100.0(999)
배우자 직장이동					
남성	15.2	21.9	60.7	2.2	100.0(406)
여성	5.1	36.8	55.6	2.5	100.0(593)
전체	9.1	30.8	57.7	2.4	100.0(999)
주거지역 결정					
남성	11.1	9.4	77.1	2.5	100.0(406)
여성	6.2	15.3	74.4	4.0	100.0(593)
전체	8.2	12.9	75.5	3.4	100.0(999)
투자 및 재산관리					
남성	23.9	14.8	59.6	1.7	100.0(406)
여성	15.9	31.4	50.3	2.5	100.0(593)
전체	19.1	24.6	54.1	2.2	100.0(999)
가족여가/여행장소					
남성	8.9	11.4	67.9	11.9	100.0(406)
여성	6.3	15.1	65.0	13.7	100.0(593)
전체	7.3	13.6	66.2	13.0	100.0(999)

가족 내 의사결정에 대한 5가지 항목 가운데 대부분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문제 가운데 주거지역 결정 비율(75.5%)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문항으로

는 투자 및 재산관리(54.1%)였다.

한편 성별간의 차이를 보면, 남성의 입장에서는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주로 아내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 직장이동과 투자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의 결정권은 주로 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내 의사결정사안에 대해서는 양성간의 격차가 존재하였다.

2) 재산소유여부

<표 5-44> 재산소유여부

단위 : %

특성	있다	없다	계(명)
전체	51.6	48.4	100.0(999)
성별			
남성	75.9	24.1	100.0(406)
여성	34.9	65.1	100.0(593)
연령			
20대	39.2	60.8	100.0(74)
30대	53.2	46.8	100.0(340)
40대	52.2	47.8	100.0(381)
50대	52.0	48.0	100.0(204)
교육수준			
중학이하	33.2	66.8	100.0(193)
고등학교	46.7	53.3	100.0(456)
대학이상	68.0	32.0	100.0(350)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29.2	70.8	100.0(72)
도시중간층	59.6	40.4	100.0(527)
농촌저소득층	36.0	64.0	100.0(197)
농촌중간층	53.7	46.3	100.0(203)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있다 51.6%, 없다 48.4% 등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유무에 있어서는 성별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남자는 75.9%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단지 34.9%만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단 1/3만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여성의 권한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조사결과 뿐만이 아니라 전국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고 있다. 여성부가 실시한 전국가족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남성은 94.0%, 여성은 단지 58.5%만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2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는 응답이 50%를 넘고 있다. 한편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계층구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자신이 명의로 된 재산이 도시저소득층은 29.2%, 농촌저소득층은 36.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부권력관계

부부평등 관계에 대하여 물어 본 결과, 평등하더라는 응답은 32.4%였으며 절반 이상이 남편이 약간 우위 (56.4%)이거나 남편이 절대 우위(7.3%)라고 응답하고 있어 본 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부관계를 남성 우위의 불평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본 조사의 결과는 기존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인천시민 919명을 대상으로 물어 본 결과, 남편이 절대 우위라는 응답이 51.9%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천발전연구원, 2004).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자신의 부부관계에 대해 평등하더라는 인식이 37.2%로 여성의 29.2%보다 높았으며 남편이 약간 우위라는 인식에 있어서는 남자는 52.2%에 불과하나 여성은 이보다 좀 높은 59.2%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불평등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신의 부부관계가 더 평등한 관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은 20대 집단에서 평등한 관계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30대 집단에서는 평등한 관계로 인식하는 비율이 37.4%였으며 연령이 많은 5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남편이 절대우위라는 응답이 11.8%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관계를 평등한 관

계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남편이 절대우위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세대간의 인식차이가 현저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표 5-45> 부부권력관계

단위 : %

특성	평등	남편이 약간 우위	아내가 약간 우위	남편이 절대 우위	아내가 절대 우위	계(명)
전체	32.4	56.4	3.8	7.3	.1	100.0(999)
성별						
남성	37.2	52.2	4.2	6.2	.2	100.0(406)
여성	29.2	59.2	3.5	8.1	.0	100.0(593)
연령						
20대	50.0	40.5	9.5	.0	.0	100.0(74)
30대	37.4	54.4	3.2	4.7	.3	100.0(340)
40대	27.3	59.8	4.2	8.7	.0	100.0(381)
50대	27.5	58.8	2.0	11.8	.0	100.0(204)
교육수준						
중학이하	20.7	60.1	1.0	18.1	.0	100.0(193)
고등학교	29.6	61.8	3.3	5.3	.0	100.0(456)
대학이상	42.6	47.1	6.0	4.0	.3	100.0(350)
가구구성						
부부가족	73.5	23.5	2.9	.0	.0	100.0(34)
부부+자녀	31.6	57.3	3.9	7.1	.1	100.0(851)
3세대/기타	26.3	58.8	3.5	11.4	.0	100.0(114)
자녀구성						
자녀없음	70.3	27.0	2.7	.0	.0	100.0(37)
초등학생이하	37.1	55.0	4.2	3.5	.2	100.0(547)
중고생이상	22.9	60.7	3.4	13.0	.0	100.0(415)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36.1	48.6	6.9	8.3	.0	100.0(72)
도시중간층	33.8	53.3	5.7	7.0	.2	100.0(527)
농촌저소득층	26.4	62.9	1.0	9.6	.0	100.0(197)
농촌중간층	33.5	60.6	.5	5.4	.0	100.0(203)
결혼기간						
10년 미만	46.1	44.6	4.7	4.3	.4	100.0(258)
10년-19년	31.0	60.4	3.2	5.4	.0	100.0(407)
20년-29년	22.2	62.7	5.2	9.9	.0	100.0(252)
30년 이상	28.0	53.7	.0	18.3	.0	100.0(82)
취업상태						
취업	31.3	57.5	3.7	7.5	.1	100.0(786)
미취업/비취업	37.6	51.4	4.4	6.6	.0	100.0(168)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평등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특히 학력수준이 낮은 중학이하의 집단에서는 평등하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두 배정도 낮았으며 남편이 절대우위라는 응답이

18.1%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수준과 부부평등관계에 대한 인식은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 및 자녀구성의 특성에 따라서는 부부가족에게서 평등하다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거나 어릴수록 부부관계를 평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 계층구분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 간 격차보다는 같은 농촌 안에서도 저소득층의 평등관계가 다른 계층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혼기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평등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보다는 미(비)취업 집단에서 평등한 부부관계로 보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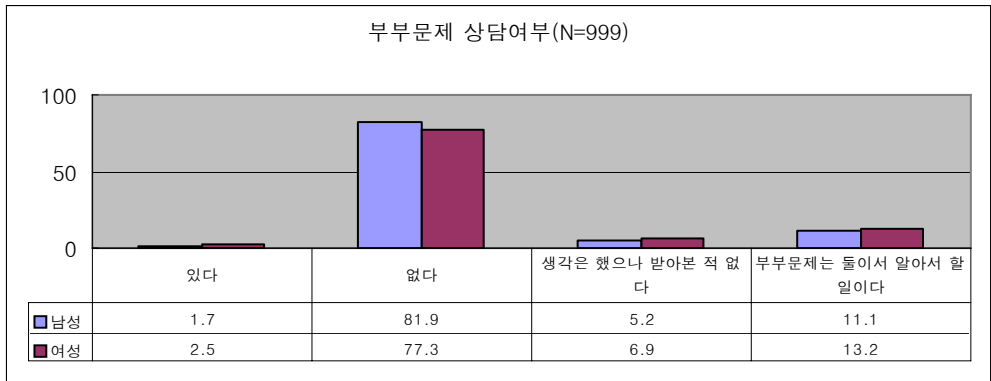
4) 부부문제 상담여부

<표 5-46> 부부문제 상담여부

단위 : %

특성	있다	없다	생각은 했으나 받아본 적 없다	부부문제는 둘이서 알아서 할 일이다	계(명)
전체	2.2	79.2	6.2	12.4	100.0(999)
성별					
남성	1.7	81.9	5.2	11.1	100.0(406)
여성	2.5	77.3	6.9	13.2	100.0(593)
연령					
20대	2.7	90.4	5.5	1.4	100.0(74)
30대	2.6	83.5	8.2	5.6	100.0(340)
40대	2.6	74.1	5.3	17.9	100.0(381)
50대	.5	77.3	4.9	17.2	100.0(204)
교육수준					
중학이하	.0	74.9	2.6	22.5	100.0(193)
고등학교	2.0	79.6	6.4	12.1	100.0(456)
대학이상	3.7	81.0	8.0	7.2	100.0(350)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1.4	79.2	8.3	11.1	100.0(72)
도시중간층	4.0	81.5	8.8	5.7	100.0(527)
농촌저소득층	.0	68.0	2.0	29.9	100.0(197)
농촌중간층	.0	84.2	3.0	12.8	100.0(203)
결혼기간					
10년 미만	3.1	82.9	8.2	5.8	100.0(258)
10년-19년	2.2	81.2	6.2	10.4	100.0(407)
20년-29년	2.0	70.5	6.0	21.5	100.0(252)
30년 이상	.0	84.1	1.2	14.6	100.0(82)
취업상태					
취업	1.7	78.2	6.1	14.0	100.0(818)
미취업/비취업	4.5	83.8	6.7	5.0	100.0(181)

부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을 받으려 한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없다는 응답이 79.2%로 가장 많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부부문제는 들어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응답도 12.4%나 되어 부부문제는 여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생각은 했으나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6.2%나 되었다. 부부문제는 들어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견해는 남성 13.2%, 여성 12.4% 등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부부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나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으며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V-12> 부부문제 상담여부

제 6 절 가정과 직장의 양립

여성들의 취업기회가 증대하고 기혼여성들이 결혼 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직장과 가정에 대한 양립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특히 직장과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열악한 상황에서 부부관계의 지속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에 따르는 문제점 및 상호영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욕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따른 어려움

1)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따른 어려움 정도

본 조사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에 따르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종이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수입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전체 조사자 가운데 여성은 593명이었으나 수입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423명을 대상으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13.9%, 보통이다 24.1%, 어려움이 있다 61.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61.9%의 직종을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는 직종에서 어려움이 가장 많다고 응답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기혼여성들이 정규직에서의 활동보다는 비정규직, 임시직 등에서의 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6개월 이상의 수입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모두에게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서의 어려움을 묻고자 하였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직종 가운데 기타와 서비스 및 판매직이 많은 것은 이들이 비정규직이면서 임시직으로의 활동이 많고 그러한 여성들일수록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더 많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로 보인다.

<표 5-47> 직종별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따른 어려움

단위 : %

직종	없다	보통이다	있다	계(명)
관리직/전문가	7.7	38.5	53.8	100.0(13)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24.4	12.2	63.4	100.0(41)
사무직	11.1	27.8	61.1	100.0(18)
서비스/판매원	12.6	19.8	67.6	100.0(111)
농어업	12.0	31.5	56.5	100.0(184)
기타	17.9	12.5	69.6	100.0(56)
계	13.9	24.1	61.9	100.0(423)

2)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따른 어려운 문제점

다음의 <표 5-48>은 현재 수입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811명 전체에 대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응답은 자기만의 시간부족 24.9%,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 20.0%, 자녀양육 및 육아병행에 따르는 어려움 19.4%, 가사부담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자기만의 시간부족 31.3%,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 22.1%등을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및 육아병행 25.8%, 가사부담 23.9%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역할인지에 있어서도 성별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에서의 자녀양육과 가사일 등은 여전히 아내와 주부의 몫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역시 주부에게 있다고 보는 의식이 높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여성들이 가사와 양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생활주기와 관련된 문제가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으로 거론되고 있다. 즉 취학이전의 자녀양육 시기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 집단에서는 자녀양육 및 육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녀가 학령기에 해당하는 40대 집단에서는 자기만의 시간부족과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이 어려움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자녀양육과 교육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50대 이상에서는 자기만의 시간부족이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에 대한 어려움이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인생과업에 의해 달라짐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도 여성의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5-48> 가정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

단위 : %

특성	자녀 양육 /육아병행	가사 부담	부부공 유시간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	자기만의 시간부족	기타	계(명)
전체	19.4	15.4	7.2	20.0	24.9	13.1	100.0(811)
성별							
남성	12.7	6.4	10.9	22.1	31.3	16.5	100.0(393)
여성	25.8	23.9	3.6	17.9	18.9	9.8	100.0(418)
연령							
20대	43.6	9.1	1.8	7.3	29.1	9.1	100.0(55)
30대	29.2	12.7	10.9	24.7	15.7	6.7	100.0(267)
40대	14.2	17.6	7.1	23.5	25.0	12.7	100.0(324)
50대	6.1	17.6	3.0	9.7	38.2	25.5	100.0(165)
교육수준							
중학이하	5.1	26.6	4.4	12.7	33.5	17.7	100.0(158)
고등학교	20.4	14.9	8.2	24.5	23.1	9.0	100.0(368)
대학이상	26.3	9.8	7.4	18.2	22.5	15.8	100.0(285)
가구구성							
부부가족	3.3	23.3	16.7	.0	43.3	13.3	100.0(30)
부부+자녀	19.8	15.2	7.2	20.8	24.3	12.6	100.0(682)
3세대/기타	22.2	14.1	4.0	20.2	23.2	16.2	100.0(99)
자녀구성							
자녀없음	3.1	21.9	15.6	.0	43.8	15.6	100.0(32)
초등학생이하	31.3	11.3	8.6	25.7	15.8	7.4	100.0(444)
중고생이상	5.4	20.3	4.5	14.3	35.2	20.3	100.0(335)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25.0	11.4	9.1	13.6	27.3	13.6	100.0(44)
도시중간층	24.4	16.2	7.2	17.2	21.5	13.6	100.0(390)
농촌저소득층	9.9	20.3	5.7	21.9	28.1	14.1	100.0(192)
농촌중간층	17.8	9.7	8.1	25.4	28.1	10.8	100.0(185)
직종							
관리직/전문가	25.5	9.8	5.9	13.7	25.5	19.6	100.0(51)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30.6	12.6	5.4	12.6	22.5	16.2	100.0(111)
사무직	25.4	6.8	10.2	20.3	27.1	10.2	100.0(59)
서비스/판매원	24.9	19.3	7.7	18.8	20.4	8.8	100.0(181)
농어업	12.2	17.5	6.3	23.1	29.0	11.9	100.0(303)
기타	13.2	13.2	9.4	23.6	21.7	18.9	100.0(106)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양육과 육아병행에 대해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어려움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사부담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집단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자기만의 시간부족에 대해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어려움이 더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가구구성과 자녀구성별로 보면 자녀의 유무와 학령기와 비학령기에 따라 어려움을 다르게 거론하고 있다. 즉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양육과 육아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학령기인 가정의 경우에는 자기만의 시간부족이 어려움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별계층구별에 따라서는 우선 지역간의 큰 차이로는 도시에서는 자녀양육과 육아병행이 어려움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농촌의 경우에는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기만의 시간부족을 어려움으로 알고 있다. 또한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에 있어서도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심각하게 어려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 따른 계층구별에 있어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농촌저소득층의 경우, 가사부담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직종에 따라서는 각기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 일정한 경향성을 찾을수는 없으나 관리직 및 전문가의 경우, 자녀양육과 육아병행으로 인한 자기만의 시간이 부족한 점을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2. 취업과 가정생활과의 상호영향

취업과 가정생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취업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과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응답은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표 5-49>은 전국조사 결과와 본 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놓은 것으로 취업활동과 가정생활과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긍정적이었으며 부정적인 영향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조사 결과와 본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특히 여성들의 긍정적인 응답

율은 낮은 반면 부정적인 응답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로 나타난 응답결과의 특성을 살펴보면, ‘직업 활동을 함으로써 가정생활에 활력을 갖게 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합쳐 전국조사 결과에서는 76.3%로 나타나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이나 생계벌이로서의 여성들의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에서는 57.2%만이 응답하고 있어 여성들의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생계벌이로서의 당연한 의식에 있어 전국조사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생활에 대한 주체로서의 자각의식이 낮았다. 한편, 가족생활이 직장에 준 영향에 있어서는 업무량이 많아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것과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지장을 준다는 것과 같은 취업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있어서는 전국조사의 응답결과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직업 활동이 가정에 주는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조사의 표본이 유의표집에 의해 비정규직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부정적인 응답이 많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49> 취업활동과 가정생활과의 관계에 대한 성별비교

단위 : %

영향의 방향		영향의 종류	전국조사		본 조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취업→	긍정 영향	1. 가정생활에 활력을 준다	81.8	76.3	79.1	57.2
		2. 식구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77.0	66.3	80.5	52.7
		3. 물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75.1	74.4	84.0	67.4
가족	부정 영향	4.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지장을 준다	29.3	39.8	29.2	44.0
		5.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지장을 준다	21.2	25.8	13.7	22.2
		6. 업무량이 많아서 지장을 준다	19.0	27.3	25.4	37.6
가족→	긍정 영향	1.가정경제의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76.7	67.2	85.3	59.1
		2.식구들이 인정해주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71.1	56.8	61.3	44.0
취업	부정 영향	3.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에서도 힘들다	17.6	35.1	22.7	34.5
		4. 자녀양육으로 일을 그만 둘 생각을 해 본적 있다	12.9	26.3	15.6	21.5

※ “매우 그렇다” 와 “약간 그렇다” 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1) 취업이 가정생활에 주는 영향

취업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물질적으로 도움이 된다에 대해 75.5%가 응답하여 다른 두가지 문항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취업활동이 가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묻는 3가지 문항 가운데 가장 응답율이 높은 문항으로는 일하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36.8%가 응답하고 있다. 또한 취업활동을 인해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하다든지 여가를 공유할 수 없는 등 가족 간의 관계가 소홀해진다는 응답도 31.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취업이 가정생활에 주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응답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물질적인 풍요라는 긍정적인 영향 이외에는 직업활동으로 인해 가정이 활력을 갖는다든지 식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취업이 가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율이 다른 두 문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조사 응답자의 직종이 농업과 서비스 및 판매직의 종사자가 많이 표집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이 가정생활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이 가정생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하는 시간이나 업무량이 많아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진다는 문항에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계층구별에 따른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서는 도시가 농촌의 두 배 정도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계층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농촌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이 가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에서는 도시의 저소득층이 일하는 시간이 많거나 가족관계의 소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취업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이는 반면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가정

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부정적인 응답율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직업적으로 열악한 농민의생활이 가족관계나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50> 취업이 가정생활에 주는 영향

단위 : %

특성	1	2	3	4	5	6
전체	67.8	66.3	75.5	36.8	18.1	31.7
성별						
남성	79.1	80.5	84.0	29.2	13.7	25.4
여성	57.2	52.7	67.4	44.0	22.2	37.6
연령						
20대	78.6	76.8	96.4	39.3	14.3	39.3
30대	69.4	69.4	75.3	35.8	18.1	32.1
40대	63.5	63.2	70.8	38.6	21.0	33.7
50대	70.2	63.7	78.0	33.9	13.7	24.4
교육수준						
중학이하	40.9	36.5	60.4	41.5	18.9	35.2
고등학교	67.9	65.0	72.2	38.0	20.5	31.0
대학이상	82.3	84.0	87.8	32.7	14.6	30.6
가구구성						
부부가족	83.9	87.1	96.8	32.3	16.1	29.0
부부+자녀	68.9	67.6	75.7	36.5	18.2	31.5
3세대/기타	55.9	51.0	67.6	40.2	17.6	33.3
자녀구성						
자녀없음	85.3	88.2	97.1	29.4	14.7	26.5
초등학생이하	71.8	71.0	78.9	37.3	18.8	34.4
중고생이상	60.8	57.8	68.7	36.9	17.4	28.6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72.7	70.5	75.0	43.2	31.8	38.6
도시중간층	82.5	82.8	89.3	36.4	16.7	35.4
농촌저소득층	42.0	36.8	55.4	39.9	17.6	25.4
농촌중간층	61.8	60.2	66.7	32.8	18.3	28.5
직종						
관리직/전문가	84.6	88.5	88.5	42.3	23.1	34.6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93.9	94.8	92.2	29.6	6.1	24.3
사무직	79.0	80.6	91.9	21.0	12.9	24.2
서비스/판매원	73.5	74.6	81.8	42.0	24.3	43.1
농어업	47.7	42.4	58.9	38.8	18.4	29.9
기타	72.7	70.0	78.2	36.4	20.0	28.2

※ “매우 그렇다” 와 “약간 그렇다” 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을 표시.

2) 가정생활이 직장에 주는 영향

가족이란 존재는 직장생활에서의 책임감을 덜어줄 수 있는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취업여성에게 있어 가족 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많은 역할은 직장에서의 업무와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 기혼여성의 취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가부장적 의식과 태도로 인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기피는 결국 취업여성의 역할과다로 이어져 직장생활 수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가정생활이 직장에 주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 5-51>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정생활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볼 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있어 큰 성차를 보이고 있다.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의식’(1번문항)이나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한 식구들의 ‘인정’(2번문항)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3,4번문항)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정이 직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에서도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에 와서도 힘들 때가 많다’(3번문항)에 대하여 남성은 10.2%만이 그렇다 라고 응답한데 비하여 여성의 경우는 이보다 24.3%포인트 더 많은 34.5%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가정에서의 일이 직장의 업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정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4번문항의 자녀를 돌보는 부담 때문에 경제활동을 그만 둘 생각을 해본 여성이 2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자녀양육과 육아로 힘든 20대와 30대 집단에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육아와 자녀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40대와 50대 집단에서의 부정적 응답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양상이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했다가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 M자형의 곡선을 이루게 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20대 연령집단은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한 식구들의 인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어 여성이 경제활동의 주체라는 자각의식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한 식구들의 인정에 있어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에서도 힘들다라는 문항에 있어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율은 낮아지지만 자녀양육과 가족을 돌보는 문제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그만 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직장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흡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취업을 지속하는데 있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여성들의 저출산율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가구구성에 있어서는 부부가족 보다는 3세대 가구에서 가족이 취업에 미치는 긍정적 응답율이 낮으며 집안일로 인해 직장에서의 힘들다에 대한 부정적 응답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자녀양육이나 가족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둘 생각이 있다는 응답율은 3세대 가족에서 더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원에 의한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 계층구분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가족들의 인정항목에 대해서는 농촌이 도시에 비하여 응답율이 낮으며 집안일이 많아서 가정(농사)일이 힘들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농촌의 저소득층이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자녀양육과 돌봄으로 인해 직장(농사)일을 그만 두겠다는 비율은 도시가 높고 계층별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중간층에서 높다. 직종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에게서 가정이 취업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낮은 반면,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집안일(농사일)이 많아서 힘들다에 대한 응답은 다른 직종보다 높지만 자녀양육과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직장(농사일)을 그만 두겠다는 응답은 낮아 일은 힘들어도 생계로 인해 다른 대안이 없는 농촌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표 5-51> 가정생활이 직장에 주는 영향

단위 : %

특성	1	2	3	4
전체	71.8	61.3	22.7	15.6
성별				
남성	85.3	79.6	10.2	9.5
여성	59.1	44.0	34.5	21.5
연령				
20대	80.4	83.9	25.0	19.6
30대	70.5	59.8	21.0	23.3
40대	73.3	61.4	23.7	10.1
50대	68.5	56.0	22.6	12.6
교육수준				
중학이하	57.9	34.6	37.1	7.5
고등학교	71.4	61.7	20.8	14.9
대학이상	79.9	75.2	17.3	20.9
가구구성				
부부가족	71.0	74.2	16.1	20.0
부부+자녀	72.1	62.2	21.9	15.7
3세대/기타	70.6	51.0	30.4	13.7
자녀구성				
자녀없음	70.6	73.5	14.7	18.2
초등학생이하	75.8	66.5	20.8	20.0
중고생이상	66.7	53.1	26.0	9.5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81.8	75.0	22.7	20.5
도시중간층	78.3	72.8	20.7	22.2
농촌저소득층	59.6	34.7	30.6	7.3
농촌중간층	68.3	60.8	18.8	9.1
직종				
관리직/전문가	82.7	86.5	19.2	13.5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83.5	80.9	14.8	20.2
사무직	75.8	72.6	17.7	11.3
서비스/판매원	76.2	66.9	25.4	27.2
농어업	61.5	41.1	27.3	8.2
기타	73.7	69.1	18.1	15.8

※ “매우 그렇다” 와 “약간 그렇다” 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을 표시.

3) 일과 가정생활 병행을 위한 제도

현재 수입이 되는 일을 6개월 이상 하고 있다고 응답한 818명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들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안정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외부적 지원체계로서 시급히 필요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응답결과, 1순위는 직장보육 시설 운영, 2순위에서는 육아 휴직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1순위에서 남녀 모두 직장보육 시설과 보육수당 지급을 원하고 있는 반면 2순위에서는 남성은 육아휴직제, 보육수당지급 등의 순으로 여성은 보육수당 지급과 육아휴직제 등을 거론했다.

여성의 경우 보육수당 지급과 같은 현금적인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본 조사대상자들의 직종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직장이 정규직이 많을 경우에는 보육 인프라와 관련 있는 직장보육시설이나 육아휴직제를 원하는 비율이 높겠지만 본 조사용답자들의 직종이 서비스 판매직이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아 이들의 사회적 지원이나 서비스 요구는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52> 일과 가정생활 병행을 위한 제도

단위 : %

필요한 제도	1순위			2순위		
	남 (N=398)	여 (N=414)	계 (N=812)	남 (N=394)	여 (N=413)	계 (N=807)
직장보육시설	29.6	38.2	34.0	13.7	12.8	13.3
보육수당지급	29.1	25.8	27.5	18.5	22.3	20.4
산전후 휴가제	10.6	6.3	8.4	12.4	7.5	9.9
육아 휴직제	6.5	14.0	10.3	21.1	20.6	20.8
시차 출퇴근제	5.0	6.5	5.8	8.1	7.5	7.8
주5일 근무제	15.3	5.3	10.2	11.7	11.1	11.4
가족간호휴가제	3.8	3.9	3.8	14.5	18.2	1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 7 절 가족여가활동

1. 여가활동 참여 및 만족도

1) 여가활동 참여도

여가활동의 각 항목에 대하여 가족원과 얼마나 함께 참여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자주한다’와 ‘자주한다’에 응답한 결과를 <표 5-53>으로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여가활동 참여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TV/비디오 시청 (56.9%)과 가족과의 대화 (44.6%) 등의 소극적이며 공간 제한적인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응답비율이 작은 활동으로는 가족단위의 봉사활동으로 4.0%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여가문화 활동에 있어 성별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연령별로는 각 여가활동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운동이나 산책, 가족단위의 봉사활동 등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오락 및 문화활동, 가족과의 대화 등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나들이나 여행 및 가족외식은 연령이 낮은 20대와 30대 연령에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은 집단 간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TV/비디오 시청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문화 활동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에 있어서는 부부가족>부부+자녀>3세대 순으로 여가활동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3세대 이상의 가족의 여가활동이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계층구별에 의한 여가활동 차이로는 모든 활동분야에서 농촌의 참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가활동 항목에 있어서도 농촌에서는 주된 여가활동이 TV 및 비디오 시청으로 도시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계층에 따라서는 중간층과 저소득층의 여가활동 참여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계층이 여가활동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53> 여가활동 참여도

단위 : %

특성	운동/ 산책	오락/문화 활동	가족나들이/ 여행	가족 외식 사회봉사	가족단위 시청	TV/비디오 시청	가족과의 대화
전체	21.8	10.3	19.5	25.6	4.0	56.9	42.3
성							
남성	22.2	10.1	20.4	27.1	3.9	58.1	44.6
여성	21.6	10.5	18.9	24.6	4.0	56.0	40.8
연령							
20대	13.5	21.6	28.4	35.1	1.4	63.5	55.4
30대	20.6	13.8	23.8	33.8	3.2	53.8	47.9
40대	21.0	7.6	16.0	19.7	4.7	55.4	36.2
50대	28.4	5.4	15.7	19.6	4.9	62.3	39.7
교육수준							
중학이하	13.5	3.6	6.7	12.4	4.7	68.9	28.0
고등학교	17.3	7.5	15.4	21.5	2.9	54.6	38.4
대학이상	32.3	17.7	32.0	38.3	5.1	53.1	55.4
가구구성							
부부가족	38.2	35.3	38.2	58.8	5.9	73.5	82.4
부부+자녀	21.9	10.0	19.7	25.7	3.8	56.3	41.7
3세대/기타	16.7	5.3	12.3	14.9	5.3	56.1	35.1
자녀구성							
자녀없음	35.1	32.4	35.1	54.1	5.4	73.0	81.1
초등학생이하	19.4	12.2	22.9	30.0	3.3	56.7	47.0
중고생이하	23.9	5.8	13.7	17.3	4.8	55.7	32.8
지역별계층구분							
도시저소득층	29.2	6.9	13.9	11.1	4.2	58.3	52.8
도시중간층	28.3	14.4	26.8	35.7	3.2	49.0	47.2
농촌저소득층	8.1	1.0	2.5	4.1	2.5	69.5	22.8
농촌중간층	15.8	9.9	19.2	25.6	7.4	64.5	44.8

* “매우 자주 한다”와 “자주한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을 표시

다음의 <표 5-54>은 7개 여가활동의 영역의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을 구한 것으로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개 문항의 점수는 각각 5점척도로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문항수로 나눈 값으로, 최저

1점부터 최고 7점까지 분포되어 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참여도가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높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고 가구구성은 부부가구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3세대 가구의 참여율이 가장 낮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보다는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의 여가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54> 여가활동참여정도의 집단간 차이

특성	N	Mean	Std. Deviation	F	Sig.
전체	999	2.7486	.55701		
성별					
남성	406	2.8012	.50946	6.128	.013
여성	593	2.7126	.58505		
연령					
20대	74	2.9170	.56405	9.494	.000
30대	340	2.8437	.52112		
40대	381	2.6757	.55990		
50대	204	2.6653	.57283		
교육수준					
중학이하	193	2.4056	.59244	72.202	.000
고등학교	456	2.7281	.49304		
대학이상	350	2.9645	.51465		
가구구성					
부부가족	34	3.2059	.61035	16.659	.000
부부+자녀	851	2.7517	.53785		
3세대/기타	114	2.5890	.60554		
자녀구성					
자녀없음	37	3.1544	.62213	33.606	.000
초등학생이하	547	2.8352	.50471		
중고생이상	415	2.5983	.57535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72	2.6726	.57115	47.674	.000
도시중간층	527	2.8848	.52994		
농촌저소득층	197	2.3691	.45128		
농촌중간층	203	2.7903	.54468		

2)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우 만족한다에서 매우 불만이다까지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 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5-55>와 같이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재구성 하였다. 대부분은 지금의 여가활동

수준에 만족하는 정도로 보통 51.0%, 만족 30.2%, 불만족 18.8% 정도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들의 만족수준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이 컸다.

<표 5-55> 여가활동 만족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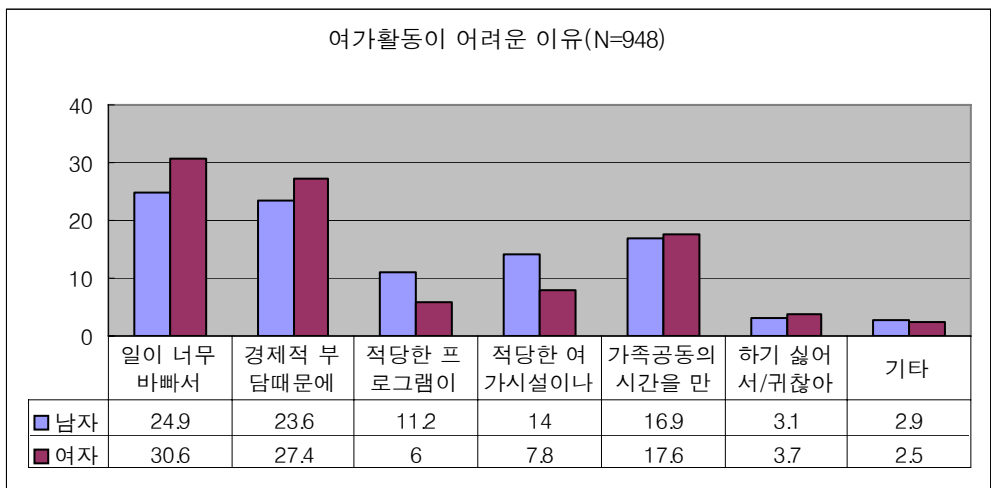
단위 : %

특성	만족한다	보통	불만족	계(명)
전체	30.2	51.0	18.8	100.0(999)
성별				
남성	37.2	50.2	12.6	100.0(406)
여성	25.5	51.4	23.1	100.0(593)
연령				
20대	41.9	37.8	20.3	100.0(74)
30대	35.3	46.8	17.9	100.0(340)
40대	27.0	53.3	19.7	100.0(381)
50대	23.5	58.3	18.1	100.0(204)
교육수준				
중학이하	14.0	56.0	30.1	100.0(193)
고등학교	25.9	55.7	18.4	100.0(456)
대학이상	44.9	42.0	13.1	100.0(350)
가구구성				
부부가족	67.6	26.5	5.9	100.0(34)
부부+자녀	29.1	52.8	18.1	100.0(851)
3세대/기타	27.2	44.7	28.1	100.0(114)
자녀구성				
자녀없음	62.2	32.4	5.4	100.0(37)
초등학생이하	34.0	49.0	17.0	100.0(547)
중고생이상	22.4	55.2	22.4	100.0(415)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25.0	43.1	31.9	100.0(72)
도시중간층	36.6	46.3	17.1	100.0(527)
농촌저소득층	13.7	62.4	23.9	100.0(197)
농촌중간층	31.5	54.7	13.8	100.0(203)
결혼기간				
10년 미만	37.6	45.0	17.4	100.0(258)
10년-19년	31.2	51.6	17.2	100.0(407)
20년-29년	25.8	51.2	23.0	100.0(252)
30년 이상	15.9	65.9	18.3	100.0(82)

가구구성과 자녀구성별로는 여가활동 만족에 있어, 유사한 경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부부가족이면서 자녀가 없거나 어릴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 결혼기간에 따른 만족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만족도가 크다. 지역별 계층구별에 따라서는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소득이 많은 중간층의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

충분한 여가시간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51명을 제외한 나머지 948명에 대해 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일이 너무 바빠서 28.3%, 경제적 부담 때문에 25.8%, 가족공동의 시간을 만들기 어려워 10.3%,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10.3%,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8.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성별로 보면 일이 바빠서와 경제적인 부담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응답이 높은 반면, 적당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및 장소의 부족으로 인한 여가활동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남성들의 이유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3> 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

2. 주5일제 실시 이후 시간변화

주5일제 실시에 해당하는 응답자 227명을 대상으로 주5일제가 실시된 이후의 시간변화를 알아보았다. 응답결과, 주5일제 실시 이후 대부분의 항목에서의 시간의 증가라는 변화가 있었으며 가장 증가한 활동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74.4%가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회봉사나 부부간이 성생활은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각 항목에서 대부분 남자들의 변화가 눈에 띄며 특히 가사와 자녀돌보기 등의 집안일과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등의 활동에서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5-56> 주 5일근무제 실시이후 시간변화

단위 : %

특성	줄어듦	변화없음	증가했음	계(명)
집안일(가사/자녀돌보기)				
남자	15.6	47.8	36.7	100.0(90)
여자	8.8	42.3	48.9	100.0(137)
전체	11.5	44.5	44.1	100.0(227)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남자	4.4	26.7	68.9	100.0(90)
여자	2.2	19.7	78.1	100.0(137)
전체	3.1	22.5	74.4	100.0(227)
나자신을 위한 시간				
남자	6.7	52.2	41.1	100.0(90)
여자	5.1	44.5	50.4	100.0(137)
전체	5.7	47.6	46.7	100.0(227)
TV시청				
남자	4.4	43.3	52.2	100.0(90)
여자	3.6	46.0	50.4	100.0(137)
전체	4.0	44.9	51.1	100.0(227)
사회봉사				
남자	5.6	83.3	12.2	100.0(90)
여자	8.0	79.6	12.4	100.0(137)
전체	7.0	81.9	11.0	100.0(227)
부부간의 성생활				
남자	4.4	83.3	12.2	100.0(90)
여자	4.4	77.4	18.2	100.0(137)
전체	4.4	79.7	15.9	100.0(227)

제 8 절 가족갈등 및 결속력

1. 가족의 갈등

1) 가족의 중요한 기능

가족의 여러 가지 기능 중 오늘날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0%는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키우는 사회화 기능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0.6%는 가족원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 26.7%는 가족원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에 대하여 남녀간의 약간의 성차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자녀양육과 사회화(33.5%)>가족원의 경제적 부양(31.3%)>가족원의 정서적지지(24.9%)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가족원의 정서적 지지(34.6%)>자녀양육과 사회화(31.0%)>가족원의 경제적 부양(23.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성들은 여성보다 가족원의 경제적 부양이라는 가족기능에 비중을 더 두고 있어 성별 역할 분담에 의한 남녀사과의 차이가 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인다. 연령에 의한 차이를 보면 20대의 경우는 자녀양육과 사회화의 기능 및 가족원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나 30대와 40대의 경우는 자녀양육과 가족원의 정서적 기능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50대는 가족원의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부양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연령에 따른 가족의 기능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는 가족원의 생활주기에 따라 가족기능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50대에서 가족원의 경제적 부양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경제규모의 확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과 사회화 기능 및 경제적 기능에 더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 된 핵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과 사회화 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3세대 이상의 가족에서는 가족원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기능을 강조하고 있어 가구구성에 따라 가족 기능에 대한 생각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지역별 계층구별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의 중간층은 자녀양육과 사회화 기능에 대한 비중을 더 중요한 가족의 기능으로 보고 있으나 농촌저소득층은 가족원의 정서적 지지를 도시저소득층은 가족원의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표 5-57> 가족의 중요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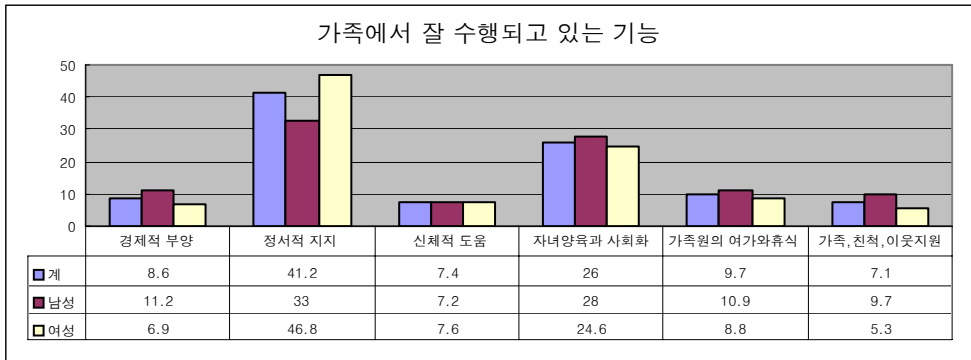
단위 : %

특성	경제적 부양	정서적 지지	신체적 도움	자녀 양육과 사회화	가족원의 여가와 휴식	가족,친척, 이웃의지 원	계(명)
전체	26.7	30.6	5.7	32.0	3.0	1.9	100.0(999)
성별							
남성	31.3	24.9	6.2	33.5	1.2	3.0	100.0(406)
여성	23.6	34.6	5.4	31.0	4.2	1.2	100.0(593)
연령							
20대	29.7	27.0	2.7	32.4	6.8	1.4	100.0(74)
30대	22.9	32.1	4.1	36.8	2.4	1.8	100.0(340)
40대	27.3	29.4	9.2	29.9	3.1	1.0	100.0(381)
50대	30.9	31.9	2.9	27.9	2.5	3.9	100.0(204)
교육수준							
중학이하	24.4	39.9	8.3	23.3	3.1	1.0	100.0(193)
고등학교	25.7	28.3	7.9	33.3	3.3	1.5	100.0(456)
대학이상	29.4	28.6	1.4	35.1	2.6	2.9	100.0(350)
가구구성							
부부가족	29.4	35.3	2.9	14.7	14.7	2.9	100.0(34)
부부+자녀	27.0	30.1	5.8	32.8	2.6	1.8	100.0(851)
3세대/기타	23.7	33.3	6.1	31.6	2.6	2.6	100.0(114)
자녀구성							
자녀없음	29.7	35.1	2.7	16.2	13.5	2.7	100.0(37)
초등학생이하	24.9	28.7	5.7	37.1	1.8	1.8	100.0(547)
중고생이상	28.9	32.8	6.0	26.7	3.6	1.9	100.0(415)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33.3	31.9	1.4	29.2	2.8	1.4	100.0(72)
도시중간층	31.3	27.3	2.5	33.6	2.8	2.5	100.0(527)
농촌저소득층	21.3	39.1	10.7	24.4	4.1	.5	100.0(197)
농촌중간층	17.7	30.5	10.8	36.5	2.5	2.0	100.0(203)

2) 가정에서 잘 수행되고 있는 기능

현대 가족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가족의 기능이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한 질문 (<표 5-57>)과 동시에 응답자의 가족에서 현재 가장 잘 수행되고 있는 가족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족원의 정서적 기능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녀양육과 사회화 기능이 26.0%로 많았다.

한편, <그림 5-14>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족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경제적 부양기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만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다소간의 성차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원의 정서적 지지 기능에 대해 46.8%가 잘 수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33.0%로 응답하고 있다. 경제적 부양에 대해서는 남성은 11.2%가 잘 수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여성은 6.9%만이 응답하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지원에 대해서는 남자는 9.7%가 응답하였으나 여성은 이보다 낮은 5.3%만이 응답하였다.



<그림 5-14> 가족에서 잘 수행되고 있는 기능

3) 가족의 폭력정도

가족폭력을 묻는 문항은 남편이나 아내의 주벽(2문항), 남편이나 아내가 가족에게 가하는 폭언 및 욕설(2문항),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들에게 가하는 폭력(2문항), 부부 상호간의 폭력(2문항), 남편이나 아내가 노부모에게 가하는 폭력(2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결과, 전반적으로 폭력의 양상이 낮은 편이나 폭력의 경향이 높은 문항으로는 남편의 주벽> 남편의 폭언> 아내의 아이들 폭력> 남편의 아이들 폭력 순이었다. 가족폭력 양상 중 주로 남편의 문제가 상위순을 차지하고 있고, 자녀구타에 있어서는 남편들의 자녀구타보다 아내의 자녀구타가 상위순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5년전에 실시한 전라북도 가족실태(이성희, 1999)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편의 주벽과 그로 인한 폭언은 동시에 이루어 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남편들의 음주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녀에 대한 아내의 폭력은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책임이나 자녀들과 상대하는 시간이 남편들에 비해 주로 아내에게 주어져 있거나 지나치게 여성들에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개입은 자녀교육 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지고 있어 아버지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가 증대되어 질 필요가 있다.

<표 5-58> 가족의 폭력정도에 관한 집단간 차이

특성	N	Mean	Std. Deviation	F	Sig.
전체	966	4.7758	.31378		
성별					
남성	393	4.7756	.32018	.000	.987
여성	573	4.7759	.30960		
연령					
20대	61	4.7918	.27343	2.611	.050
30대	326	4.7699	.30304		
40대	378	4.7513	.33609		
50대	201	4.8264	.29437		
교육수준					
중학이하	190	4.7216	.37727	4.054	.018
고등학교	445	4.7793	.29868		
대학이상	331	4.8021	.28977		
가구구성					
부부가족	8	4.9750	.07071	1.630	.196
부부+자녀	846	4.7743	.31272		
3세대/기타	112	4.7723	.32913		
자녀구성					
자녀없음	9	4.9778	.06667	2.282	.103
초등학생이하	545	4.7661	.30493		
중고생이상	412	4.7842	.32700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70	4.6943	.35463	2.236	.083
도시중간층	505	4.7897	.30055		
농촌저소득층	191	4.7880	.29364		
농촌중간층	200	4.7575	.34560		

<표 5-58>에서는 가족폭력에 대한 각 문항의 평균점을 응답자의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가족폭력에 있어서는 연령과 학력수준에 따라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폭력 양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50대 집단에서는 폭력의 양상이 20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대 집단에서 폭력이 많은 이유는 결혼생활이 진행됨에 따라 가족 규모 커지고 그에 따른 가족 간에 문제가 많아지나 이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가족생활이 진행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이성희, 1999).

또한 학력수준이 낮아질수록 가족폭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과 가족폭력과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지역별계층구별에 따른 각 집단 간의 폭력양상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이 낮은 도시저소득층에서 폭력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가족의 결속력

1) 가족의 건강성 정도

가족의 건강성과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가족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건강성을 묻는 8개의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8문항으로 된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전체평균은 3.6295로 비교적 높은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 8개의 문항 가운데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 문항은 ‘우리 가족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협력한다’로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76.2%이다. 반면 가장 응답율이 낮은 항목으로는 ‘우리 가족은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 한다’로 47.7% 와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로 43.6%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정서적 친밀감이나 상호협력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족원의 대화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표 5-59> 가족의 건강성 문항별 빈도분포

단위 : %

항 목	응답자의 성별		
	전체 (N=999)	남자 (N=406)	여자 (N=593)
1)우리가족은 가족내에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풀고 지나간다	59.0	63.3	56.1
2)우리 가족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66.5	70.9	63.4
3)우리가족은 서로에게 편안하게 느낀다	65.5	67.0	64.4
4)우리 가족은 세대나 성에 상관없이 똑같이 아끼고 존중한다	65.9	67.5	64.1
5)우리 가족은 서로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57.1	60.8	54.5
6)우리 가족은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 한다	47.7	50.5	45.9
7)우리 가족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협력하여 해결한다	74.2	74.1	74.2
8)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43.6	45.1	42.7

*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을 표시

한편, 가족의 건강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특성별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다음의 <표 5-60>에서 제시하는 모든 변수에 따라 각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가족 건강성이 높은 편이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의 건강성은 높았으며 교육수준 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이 높은 편이다.

가구구성에 있어서는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의 건강성이 가장 높았으며 3세대 이상의 가족 건강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핵가족 보다는 확대가족에서의 가족의 친밀도나 대화정도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구성에 있어서는 자녀가 어릴수록 가족의 건강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와 부모와의 상호접촉이 많기 때문에 자녀와의 정서적 접촉이나 대화로서 가족의 건강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60> 가족의 건강성 정도(평균)의 집단간 차이

특성	N	Mean	Std. Deviation	F	Sig.
전체	999	3.6295	.61243		
성별					
남성	406	3.6829	.60524	5.218	.023
여성	593	3.5930	.61515		
연령					
20대	74	3.7939	.60691	7.181	.000
30대	340	3.7143	.60804		
40대	381	3.5358	.61465		
50대	204	3.6036	.58977		
교육수준					
중학이하	193	3.3951	.60797	33.618	.000
고등학교	456	3.5855	.57925		
대학이상	350	3.8161	.60328		
가구구성					
부부가족	34	4.1654	.63045	14.412	.000
부부+자녀	851	3.6182	.60207		
3세대/기타	114	3.5537	.61372		
자녀구성					
자녀없음	37	4.1791	.62676	26.930	.000
초등학생이하	547	3.6858	.58778		
중고생이상	415	3.5063	.60661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72	3.5278	.62031	20.093	.000
도시중간층	527	3.7488	.60222		
농촌저소득층	197	3.3725	.63172		
농촌중간층	203	3.6053	.52952		

지역별 계층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지역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지역과 관계없이 비교적 중간층의 건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촌의 저소득층이 도시의 저소득층보다 가족의 건강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가족원의 접촉이나 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2) 가족의 화목 정도

<표 5-61> 가족의 화목 정도에 대한 인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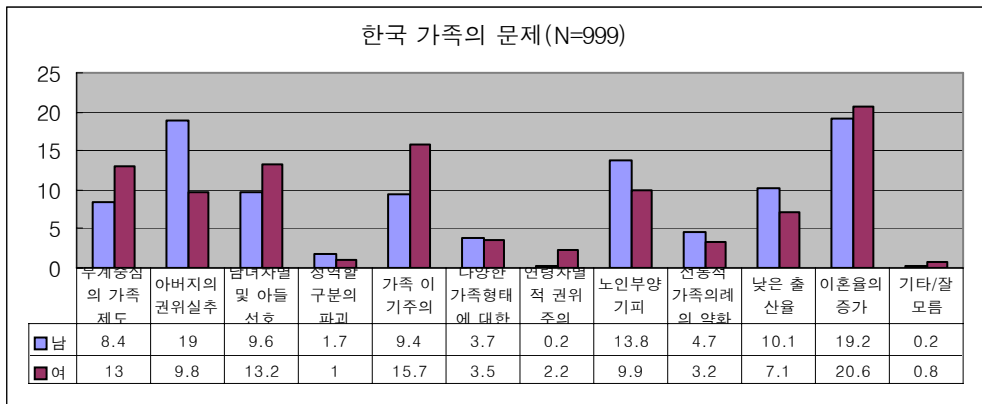
특성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계(명)
전체	73.0	21.6	5.4	100.0(999)
성별				
남성	78.1	18.5	3.4	100.0(406)
여성	69.5	23.8	6.7	100.0(593)
연령				
20대	82.4	16.2	1.4	100.0(74)
30대	82.9	14.1	2.9	100.0(340)
40대	66.7	26.2	7.1	100.0(381)
50대	64.7	27.5	7.8	100.0(204)
교육수준				
중학이하	46.6	39.9	13.5	100.0(193)
고등학교	74.8	21.5	3.7	100.0(456)
대학이상	85.1	11.7	3.1	100.0(350)
가구구성				
부부가족	91.2	8.8	.0	100.0(34)
부부+자녀	72.5	21.4	6.1	100.0(851)
3세대/기타	71.1	27.2	1.8	100.0(114)
자녀구성				
자녀없음	89.2	10.8	.0	100.0(37)
초등학생이하	80.8	16.1	3.1	100.0(547)
중고생이상	61.2	29.9	8.9	100.0(415)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58.3	27.8	13.9	100.0(72)
도시중간층	79.7	16.7	3.6	100.0(527)
농촌저소득층	55.3	35.0	9.6	100.0(197)
농촌중간층	77.8	19.2	3.0	100.0(203)
결혼기간				
10년 미만	83.7	14.3	1.9	100.0(258)
10년-19년	75.9	19.9	4.2	100.0(407)
20년-29년	61.5	30.2	8.3	100.0(252)
30년 이상	59.8	26.8	13.4	100.0(82)
취업상태				
취업	73.6	21.0	5.4	100.0(818)
미취업/비취업	70.2	24.3	5.5	100.0(181)

가족의 화목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못하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결과는 <표 5-61>에서 보는바와 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화목정도가 높게 인식되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화목정도가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화목하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 보다는 부부중심의 가족이, 자녀가 어릴수록 가족화목정도에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기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가족화목의 정도도 높은 편이다. 지역별 계층구별에 따라서는 지역 간의 차이는 없으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층 모두 가족 간의 화목정도가 도시와 농촌의 중간층에 비하여 낮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농촌의 저소득층은 가족화목정도의 인식수준이 낮아 농촌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관계 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개발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 9 절 가족지원 정책 및 복지욕구

1. 가족 문제

1) 한국 가족의 문제



<그림 5-15> 한국 가족의 문제

위의 <그림 5-15>은 현재 한국의 가족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가장 높은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혼율의 증가로 20.0%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아버지의 권위실추 (13.5%)>가족 이기주의 (13.1%)>남녀차별 및 아들선호(11.7%)>노인부양기피(11.5%)> 부계중심의 가족제도(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이혼율의 증가(19.2%)> 아버지의 권위실추(19.0%)>노인부양기피 (13.8%)> 낮은 출산율(10.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이혼율의 증가(20.6%)>가족이기주의(15.7%)>남녀차별 및 아들선호(13.2%)> 부계중심의 가족제도(13.0%) 등으로 응답하고 있어 성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이혼율이 가족문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혀, 우리 사회의 이혼문제의 심각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응답에 있어서는 남자는 우리사회의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실추, 노인부양기피, 낮은 출산율이라는 보편적인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이혼율 이외에는 가족이기주의, 남녀차별 및 아들선호, 부계중심의 가족제도 등을 들고 있어 가부장적인 성 억압적인 태도와 질서가 한국가족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자보다 더 높았다. 한편 남성들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한 아버지의 권위실추(19.0%)를 여성들은 9.8%만이 응답하고 있고 여성들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계중심의 가족제도에 대해서는 여자는 13.0%가 응답하였지만 남자는 8.4%만이 응답하고 있어 가족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남녀의 의식차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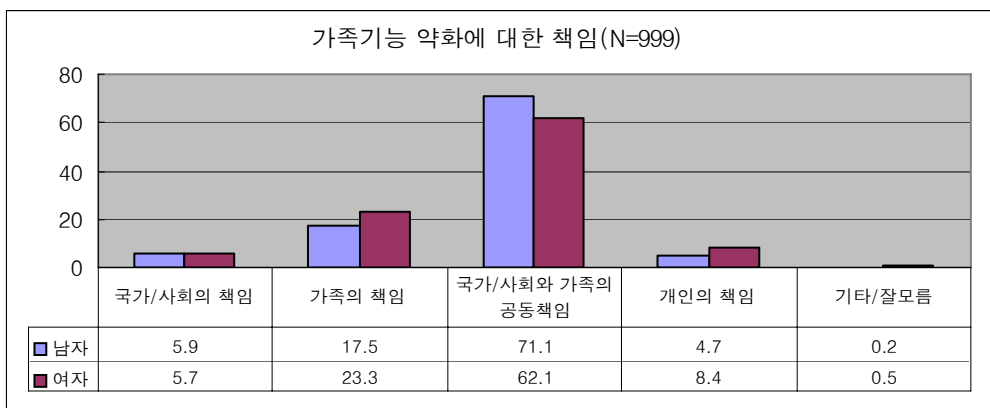
이러한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성간의 괴리를 보이는 현상은 타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18세 이상 성인 남녀 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실태 조사(인천발전연구원, 2004)에서는 아버지의 권위실추에 대해 남성들은 14.8%의 응답율을 보인 반면 여성들은 5.1%만이 응답하였다. 다만 인천시의 조사결과와 다른 점은 가족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 성간의 차이보다 여성내부에서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본 조사에서 여성들이 현재의 가족문제를 이혼율의 증가>가족이기주의>남녀차별 및 아들선호>부계중심의 가족제도로 보고 있으나 인천의 여성들은 이혼율의 증가>노인부양기피>부계중심의 가족제도>가족이기주의라고 응답하고 있어 전라북도 여성의 경우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체감정도가 타 지역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표본에 있어 인천은 18세 이상의 미혼여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혼여성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조사의 표본으로 인한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들이 직접 경험과 현실을 토대로 응답한 결과로 본다면 여전히 우리의 가족내부에서는 가부장적 질서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족기능 약화에 따른 책임

최근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그로인한 많은 가족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에 대해 대다수인 66.0%는 국가, 사회, 가족의 공동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20.9%는 가족의 책임, 개인의 책임 6.9%, 국가와 사회의 책임 5.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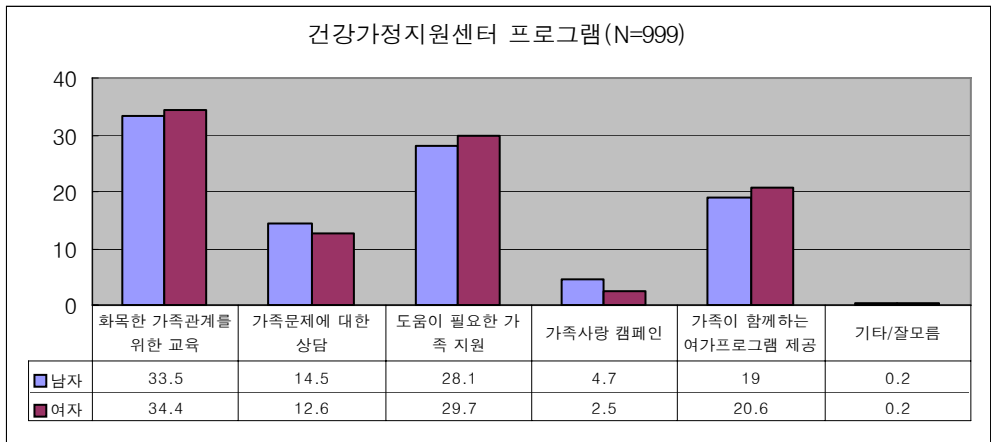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가족은 국가와 사회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식에 대해서는 남성의 응답율이 높으나 가족문제는 가족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에 대한 책임은 정부나 국가의 개입보다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거나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의식에 있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전통적인 사고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6> 가족기능 약화에 대한 책임

3) 건강가정지원 센터 프로그램 지원

현재 중앙과 일부지역, 대학의 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교육, 문화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본 조사에서도 향후 각 시·군에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이 기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에 알아본 결과, 화목한 가족관계를 위한 교육 34.0%,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 29.0%,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프로그램 제공 19.9%,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 13.4%, 가족사랑 캠페인 3.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5-17>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4) 가족생활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및 참여도

현재 각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대학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생활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참여했는지의 여부 및 필요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응답결과 전반적으로 각 교육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의 응답율이 높았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필요도에 있어서는 성간 차이가 없

이 비교적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가족변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각 생활주기마다 직면하는 가족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가족교육이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각 교육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인지도와 참여도, 향후 필요정도를 보이고 있는 문항은 유아, 아동, 청소년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이었다. 인지도나 참여도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높았으나 향후, 필요도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90%가 넘는 응답을 보이고 있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세대간 화합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교육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인지도나 참여도는 낮지만 향후 필요정도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다.

<표 5-62> 가족생활주기별 교육 인지도, 참여도, 필요도

단위 : %

교육내용	인지도		참여도		필요정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예비부부들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24.4	31.0	6.4	5.7	70.6	72.4
신혼기, 중년기, 노년기 부부관계 향상교육	21.4	19.7	9.9	7.4	76.6	77.6
유아, 아동, 청소년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58.6	65.3	22.2	30.2	91.7	91.0
세대간 화합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교육 (고부관계, (조)부모-(손)자녀관계 등)	22.9	19.7	9.4	9.4	82.5	81.5

*인지도(알고 있다), 참여도(참여한 적 있다), 필요도(필요하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 표시함.

2. 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1) 가족생활지원

응답자가 처해 있는 지금의 가족현실에서 볼 때,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필요정도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족생활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은 모두 5가지에 해당하며 각각에 대하여 전혀 불필요에서 매우필요하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응답결과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실직자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상담서비스와 같은 대인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다른 현물지원적 서비스와는 달리 수요가 낮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주거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으나 여성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한편, 가족상담 서비스는 여성에 비하여 남성들의 욕구가 더 많았다. 연령별에 의하면 연령이 낮은 20대 집단에서는 주거지원이 더 많았으나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는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각 연령별 특징을 보면 30대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족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을 끈다. 30대 집단은 앞서 여러 가족관계나 부부관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다소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30대 집단은 가족생활주기에 있어서 새로운 가족원의 출생과 아동기, 학령기라는 아이들 중심의 생활이 강조되고 있어 인생의 주기로 보았을 때 가장 과업이 많은 시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업이 많은 반면 가족원과의 갈등과 충돌도 예측할 수 있어 문제해결 능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볼 때 가족상담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당연한 결과로 보여 진다. 한편 40, 50대 집단에서는 생계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특히 50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학이하의 집단에서는 의료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63> 가족생활 지원에 대한 욕구

단위 : %

특성	가족 상담 서비스	생계비 지원	실직자 지원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전체	42.2	69.5	66.8	67.2	75.4
성별					
남성	44.1	66.7	68.0	72.4	71.0
여성	41.0	71.4	66.0	63.6	78.3
연령					
20대	39.2	64.9	63.0	79.7	66.7
30대	45.6	65.6	64.0	68.5	76.2
40대	43.0	71.5	66.7	62.7	74.7
50대	36.3	74.0	73.0	68.6	78.2
교육수준					
중학이하	37.3	84.5	70.5	71.0	86.5
고등학교	41.9	72.9	69.9	66.9	78.3
대학이상	45.4	56.9	60.7	65.4	65.3

특성	가족 상담 서비스	생계비 지원	실직자 지원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가구구성					
부부가족	35.3	70.6	70.6	85.3	66.7
부부+자녀	43.8	68.4	67.4	66.6	74.9
3세대/기타	32.5	77.2	61.4	65.8	81.6
자녀구성					
자녀없음	37.8	67.6	67.6	81.1	63.9
초등학생이하	44.2	65.9	65.0	68.0	73.4
중고생이상	40.0	74.4	69.2	64.8	78.9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56.9	83.1	81.9	83.3	79.2
도시중간층	46.3	63.5	69.0	66.8	70.0
농촌저소득층	32.0	86.3	68.5	69.0	88.2
농촌중간층	36.5	64.0	54.0	60.6	75.4

* “매우 필요”와 “약간 필요”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을 표시.

대학이상의 집단에서는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가족상담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구구성에 있어서는 부부위주의 가족은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게서는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상담서비스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집단에서 다른 가구구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상담욕구가 높은 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표 5-63>에서 보는바와 같이 초등학생 이하의 집단에서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3세대 이상의 가구구성에서는 노부모 부양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계층구별에 따라서는 도시저소득층에서는 주거지원과 생계비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중간층에서는 의료비 지원과 실직자 지원에 대해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도시저소득층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지원은 다른집단에서의 응답율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이다. 농촌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 항목으로는 가족 상담서비스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대체로 도시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농촌지역일수록 낮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가족상담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지가 낮거나 가족문제는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며 가족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 가족문화지원

가족문화에 대한 지원정책 항목으로는 가정폭력 개입 및 피해자 보호서비스,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 가족단위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등 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결과, 가정폭력 개입 및 피해자 보호서비스에 대해서는 40.3%,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 48.6%, 가족단위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지원 48.4%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문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원욕구는 다른 가족지원 정책들에 비하여 요구도가 낮았다. 이는 가족문화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고 경제적 문제와 같은 시급한 사안에 가리워지기 쉬운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가지 문항 모두 응답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응답율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최근 평등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표 5-64> 가족문화지원에 대한 욕구

단위 : %

특성	가정폭력 개입 및 피해자 보호서비스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	가족단위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참여
전체	40.3	48.6	48.4
성별			
남성	40.9	49.8	48.0
여성	40.0	47.9	48.7
연령			
20대	45.9	55.4	50.0
30대	43.2	52.9	51.2
40대	40.4	47.0	48.3
50대	33.3	42.2	43.6
교육수준			
중학이하	31.6	44.6	32.6
고등학교	39.9	49.3	48.5
대학이상	45.7	50.0	57.1

특성	가정폭력 개입 및 피해자 보호서비스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	가족단위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참여
가구구성			
부부가족	41.2	52.9	47.1
부부+자녀	41.5	49.7	48.4
3세대/기타	31.6	39.5	49.1
자녀구성			
자녀없음	40.5	51.4	48.6
초등학생이하	43.9	51.2	51.7
중고생이상	35.7	45.1	44.1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47.2	54.2	59.7
도시중간층	46.1	48.2	56.7
농촌저소득층	28.4	46.2	26.4
농촌중간층	34.5	50.2	44.3

* “매우 필요”와 “약간 필요”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을 표시.

각 여성단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부부관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48.6%의 응답율을 보였다. 가족문화에 대해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 본 교차분석 결과에서는 성별, 지역계층별 변수를 제외하고 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응답자의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자녀가 어린 집단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에서 가족문화에 대한 지원욕구가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가족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젊은 세대와 교육을 받은 세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즉 과거 가족 안에서의 폭력은 은폐되거나 가족 내에서 해결 될 문제로 보았지만 최근 들어 가족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식도 적절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여성들의 사회참여증대로 인해 평등한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의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지역별 계층구분에 따른 각 집단 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평등한 부부관계를 제외한 다른 두 가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가족폭력 개입 및 피해자 보호 서비스와 가족단위 봉사활동에 대해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족단위의 봉사활동과 지역사회에의 참여에 대해서는 도시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어 농촌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향후 가족단위의 캠페인이나 가족문화 교육이 이루어 질 경우 농촌을 중심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에 대한 의식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3) 가족부양지원

가족원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 확대, 가사도우미, 가족간호 휴가제도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족부양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가족지원 정책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는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 확대 78.7%, 가족간호 휴가제도 73.1%, 가사도우미 67.9% 순이다. 각 지원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 확대에서는 성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와 가족간호휴가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간호휴가제 등은 취업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 조사의 표본특성상 정규직 직업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수적으로 적은 이유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으나 50대에서는 각 지원제도에 대하여 다른 연령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노인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반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욕구는 당연한 것이다.

가구구성에 따라서는 다른 가구구성보다도 3세대 이상의 가구에서 각 지원제도에 대해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계층구별에 의하면 농촌저소득층은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 확대와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복지시설은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수준이며, 아울러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 가사도우미 제도도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욕구는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중간층의 경우에는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 확대와 가족간호 휴가제도에 대해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표 5-65> 가족부양지원에 대한 욕구

단위 : %

특성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 확대	가사도우미	가족간호 휴가제도
전체	78.7	67.9	73.1
성별			
남성	79.1	71.4	77.6
여성	78.4	65.4	70.0
연령			
20대	64.9	59.5	70.3
30대	80.0	69.4	74.4
40대	77.4	63.8	69.8
50대	83.8	76.0	77.9
교육수준			
중학이하	79.3	74.1	69.9
고등학교	78.7	66.0	71.9
대학이상	78.3	66.9	76.3
가구구성			
부부가족	79.4	67.6	79.4
부부+자녀	78.4	66.7	71.6
3세대/기타	80.7	76.3	82.5
자녀구성			
자녀없음	78.4	64.9	78.4
초등학생이하	77.7	67.6	72.4
중고생이상	80.0	68.4	73.5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66.7	52.8	65.3
도시중간층	82.0	65.1	77.0
농촌저소득층	79.2	79.2	73.1
농촌중간층	73.9	69.5	65.5

* “매우 필요” 와 “약간 필요” 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을 표시.

4) 자녀양육지원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각 항목에 대해서는 학비지원(85.1%)> 무료급식지원(77.2%)> 자녀양육비 지원(74.6%)> 방과후 보육서비스(69.3)>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감면(68.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각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감면에

92.2%라는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30, 40대 연령집단에서는 학비지원에 대해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학비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구성이나 자녀구성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으나 학비지원에 대한 욕구가 다른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계층구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학비지원에 대해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촌저소득층에서는 학비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92.4%가 응답하고 있다.

<표 5-66>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욕구

단위 : %

특성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감면	방과 후 보육서비스	학비지원	자녀 양육지원	무료급식 지원
전체	68.0	69.3	85.1	74.6	77.2
성별					
남성	69.1	72.2	85.5	75.9	77.4
여성	67.2	67.3	84.8	73.7	77.1
연령					
20대	92.4	77.3	66.2	87.7	69.7
30대	79.7	81.6	83.7	81.6	79.7
40대	59.6	63.5	90.2	70.3	77.1
50대	54.7	55.9	84.0	65.7	75.4
교육수준					
중학이하	59.5	57.5	90.3	67.6	74.9
고등학교	65.4	69.5	86.1	76.3	79.7
대학이상	75.7	75.1	81.0	76.0	75.1
가구구성					
부부가족	88.9	77.8	77.8	83.3	88.9
부부+자녀	66.9	69.0	84.8	73.8	76.4
3세대/기타	72.7	70.0	88.2	79.1	80.9
자녀구성					
자녀없음	80.0	70.0	70.0	75.0	80.0
초등학생이하	78.5	80.8	83.7	83.3	80.1
중고생이상	52.3	53.0	87.9	62.3	72.9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64.7	60.3	80.9	64.7	73.5
도시중간층	71.5	74.8	84.6	74.8	78.3
농촌저소득층	67.0	69.8	92.4	81.0	84.2
농촌중간층	60.6	62.4	80.8	71.5	68.8

* “매우 필요”와 “약간 필요”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을 표시.

제 6 장

요약 및 정책과제

- 제 1 절 주요결과 요약
- 제 2 절 가족기능 강화 방안

제 6 장 요약 및 정책과제

제 1 절 주요결과 요약

1. 전라북도 가족구성의 특성

가족형태에 있어 전북은 핵가족의 비율은 낮고 1세대 부부가족, 3세대가족, 1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취업이나 취학으로 부모와 떨어져 노부모가구, 형제자매가구로 사는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음을 의미 한다.

실업과 고용불안, 만혼 등의 영향으로 1인가구가 감소하는 전국적인 추세와 달리 전북은 농촌지역의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혼가구주와 미혼가구주의 증가로 인해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조혼인율의 감소, 조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64(97년)에서 1.26(2003년)으로 인구감소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2. 경제생활 실태

응답자 전체 가구의 약 45%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었으며 월평균 가계비 지출 규모는 월평균 183.3만원이다. 가계비지출규모가 100만원이하인 경우는 농촌저소득층에서 78.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월평균 가구의 저축액은 60.1만원으로 저축액의 규모가 클수록 저소득층 보다는 중간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정 경제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약 45%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도시저소득층에서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려움을 느끼는 가계비 지출항목으로는 자녀양육비와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53.0%)가 가장 많았고 이는 도시중간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며 이는 수입이 많은 계층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대비는 적금이나 저축(46.3%)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각종 연금에 의한 비율은 25.8%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노후에 대한 별다른 준비가 없다는 비율도 20.2%나 되었으며, 남성(15.3%)보다는 여성(23.6%)의 비율이 높아 노후의 여성 빈곤이 예상된다.

3. 출산 및 자녀양육

1) 자녀출산에 관한 사항

가구당 평균 출산자녀수는 2.27명이며, 남아 1.15명, 여아 1.11명으로 남아출산율이 약간 더 높다.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그 이유로는 자녀의 형제자매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43.8%)가 가장 높았으나 아들을 낳기 위해서 (14.1%)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4.7%) 등도 상당 수 차지하고 있어 남아선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랜 정서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가부장적 인식의 소유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는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아(41.9%)와 나이가 너무 많아(28.3%)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19.9%)에 응답하였으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고비용의 일로 생각되어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 최근의 우리사회가 염려하는 저출산의 현상이 경제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대다수는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한다 (98.0%)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부모가 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므로(45.9%), 결혼하면 자녀를 두는 것이 당연 하므로(23.8%)등의 이유를 들었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적 지원 사항으로는 보육비의 무상지원(19.9%), 출산비용과 산전, 산후의료비 지원(19.1%), 자녀양육비지원 및 세제혜택(16.7%), 사교육비경감대책(15.1%) 등에 대한 현물적 지원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녀 출산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은 남성들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며, 농촌지역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를 두는 것이 가치 있는 일로 인식하는 경향은 높으나,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사람들의 가치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과 자녀 지원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안인 만큼 보육인프라와 모성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

본 조사에서는 초등이하의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있어 어떠한 문제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을 초등이하로 정 한 것은 영유아의 사회적 보호 장치와 제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취업모의 양육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여성들의 저출산 원인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초등이하 가장 어린 자녀가 주로 다니는 곳으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는 것은 학원, 과외, 학교 등이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히 다니는 곳이 없다(집에서 돌본다)는 25.2%를 차지하고 있다.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에서 보호되는 비율이 높고,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원에서 보호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보호가 전적으로 학원에 의존되어 있는 현실은 전인격적인 아동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아동의 보호방식의 다원화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농촌지역 거주자의 경우, 특별히 다니는 곳이 없다는 비율(33.8%)이 도시의 중간층(18.9%)보다 높아 대부분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여성의 경우, 자녀보호에 대한 인프라의 부족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가족 내외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돌봐지지 않는 경우가 15.7%, 형제자매가 돌보는 경우 3.1%나 되어 자녀보호가 방치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시설에 보낸 시간 외의 자녀를 돌보는데 따로 사례하는 비용부담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24.1%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자녀보호 및 양육은 전적으로 과도하게 가족에 의해 맡겨져 있으며 그동안 자녀보호의 큰 몫을 담당해왔던 조부모의 세대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더 이상 자녀보호의 대체인력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부담은 취업과의 단절이나 출산기피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4. 돌봄 및 가사노동

1) 요보호 가족원에 대한 돌봄노동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속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가족원이 있는 경우는 22.6%(226명)로 보살피는 주된 이유는 질병 61.9%, 고령 27.0%, 장애 8.0%, 기타 31% 등 이었으며 응답자가 요보호 가족원을 직접 수발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는 37.2%(84명)이었다. 요보호 가족원을 주로 돌보는 일에 있어 외부의 도움(과출부나 간병인)을 받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가족이 수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딸(13.4%), 며느리 (28.2%), 어머니 (0.7%) 등 여성이 돌봄 노동의 중심에 있었다. 여성은 딸로서, 며느리로서, 배우자로서, 어머니로서 가족원을 보살피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을 본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요보호 가족원을 수발하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부담(34.7%)> 육체적 피로나 수면부족(28.4%)> 가족 간 갈등(14.9%)> 직장일 수행곤란(6.8%) 등으로 육체적 피로 및 직장생활에의 제약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발로 인한 수입활동이나 취업활동에의 지장은 있다 28.3%, 없다 71.7% 등으로 이 가운데 남자는 11.8%, 여자는 22.6%가 응답하고 있어 가족원 수발에 따른 부담은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부시설 이용경험은 대부분이 없었으며(71.7%) 그 이유로는 가족이 돌봐야한다고 생각해서 (39.8%)> 필요를 못 느껴서 (19.9%)>비용이 부담돼서 (16.8%)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정부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는 지역복지 시설 및 요양시설 확대 34.1%,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30.5%, 경제적 지원 및 혜택 22.4%, 가정봉사원(간병인)서비스 확대 30.5% 등 이었다.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수단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장기적으로 돌봄 노동을 둘러싼 가족원 간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요보호 가족원에 대한 돌봄 노동의 주담당자로서 대부분 전업 주부이거나 시간제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노후가 배우자나 기타 가족 구성원에 의해 보장되지 않을 때 여성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2) 가사노동

가사노동의 주수행자는 여성(93.3%)으로 2002년 사회통계조사 결과(88.9%)와 여성부의 결과(93.0%, 2003)보다 본 조사결과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평일 가사노동 시간은 1시간 이하 28.6%, 3시간 이하 27.4%, 3-5시간 26.8%, 5시간 이상 17.2% 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취업여성보다는 미(비)취업의 경우 가사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여성의 가사시간 단축은 가족원들의 가사분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취업주부의 시간압박으로 인한 제약이 증가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가사노동의 각 항목에 있어 부부간의 역할분담은 부부간에 동일하게 분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참여는 시장보기와 자녀돌보기와 같은 '성편중적' 경향이 있으며 음식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과 같은 '여성중심형 과업'(female-typed tasks)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분담에 관한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23.4%가 갈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미취업여성보다는 취업여성이 가사노동을 둘러싼 부부간의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 근무실시 이후 가사노동 변화에 있어서는 더 줄었다는 11.4%에 불과하였으며,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44.1%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에는 52.5%가 주5일제 실시이후 가사노동이 더 늘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주 5일제가 성평등한 가사노동의 분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여성취업이 일반화 되면서 일-가정의 양립에 있어 가사분담을 둘러싼 부부간의 갈등은 부부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가사분담의 평등한 재구조화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5. 부부관계 만족도 및 가치관

부부관계 만족도는 가족관련 태도의 여러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를 측정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그 차이의 내용, 차이의 경향성 및 함의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1) 부부관계 만족정도

부부관계의 만족정도는 부부간의 대화정도와 내용, 부부관계 문제에 대한 인식(11문항), 배우자 만족도(7문항) 등을 통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배우자와의 대화정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34.6%는 자주하는 편이었으며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어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시 중간층에서 대화를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의 주된 내용으로는 자녀와 관련된 일(62.3%), 하루의 일과(16.3%), 직장과 관련된 일(7.0%), 부부 두사람에 관련된 일(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문제에 있어서는 성격 및 생각차이>가족 공유시간 적음>지나친 음주>가사분담 불형평성>일방적인 대화방식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부문제에 대해서는 양성간의 격차가 컸으며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불만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남성들은 가족과의 공유시간이 적다라는 불만이, 여자들의 경우는 주로 배우자의 성격이나 지나친 음주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또한 도시저소득층은 생활비에 대한 불만이, 농촌저소득층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의 만족정도는 여성들의 배우자 만족정도가 낮아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데 여성들의 만족정도가 낮은 이유는 가부장적 가족문화에서 여성들이 희생한다는 의식이 강한 반면, 남성들은 보수적으로 가족내에서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배우자의 만족정도를 묻는 각 문항 가운데 성간의 격차가 극심한 것은 가사분담(남성 63.1%, 여성 32.5%)으로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부부가 상호 존중하는 양성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사분담에 대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 문화생활에 대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의 저소득층은 부부간의 문화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는 부부관계의 만족도에 있어 양성간의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여성의 불만족이 높다는 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의 가부장적 의식과 태도의 전향이 아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부만족도에 대해서는 특히 세대간의 격차가 극심하여 20대는 애정 친밀한 관계 및 양성평등한 성향이 높았고, 30대는 부부관계보다는 자녀관계에 비중을 두면서도 의식과 태도에 있어 전향적이며 전통과 진보가 혼재되어 있는 성향이 높았다.

2) 성 평등성

부부간의 평등성은 가족내 의사결정, 재산소유여부, 부부권력관계 등을 통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가족내 의사결정은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문제 가운데 주거지역 결정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문항으로는 투자 및 재산관리였다.

재산소유여부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유무에 있어서는 남자는 75.9% 여성은 단지 34.9%만이 응답하여 여성의 단 1/3만이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소유가 많았다.

부부평등 관계는 평등하다라는 응답은 32.4%였으며 절반이상이 남편이 약간 우위 (56.4%)이거나 남편이 절대 우위(7.3%)라고 응답하고 있어 본 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부관계를 남성 우위의 불평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부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남성(37.2%)이 여성(29.2%)보다 높았으나, 남편우위에 대해서는 남편(52.2%)보다 여성(59.2%)들이 조금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부부관계를 평등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가족내 의사결정 등은 부부 평등관계를 많이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재산소유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히 남성 중심적이었으며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부평등에 대한 인식은 남성들은 자신의 부부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평가하는 경향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성차가 존재하였으며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평등한 관계로 보는 의식이 높아 세대간의 인식차이가 현저하게 존재하였다.

3) 부부갈등 및 해결노력

부부갈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부부싸움 정도, 부부싸움의 주된 이유, 이혼에 대한 생각 및 고려해 본 경험, 이혼에 대한 허용정도(7문항)와 상황에 따른 이혼관(10문항)을 통해 이혼에 대한 부부들의 태도 및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부싸움 정도는 별로 안한다는 응답율(70.9%)이 전국의 비율(40.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싸움의 주된 이유는 가족의 생활주기와 관련이 있었으며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둘러싼 부부싸움이, 도시저소득층은 경제문제로 인하여, 도시중간층은 자녀교육문제, 농촌중간층은 생활습관에 의한 차이, 농촌저소득층은 자녀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부부싸움의 주된 이유로 거론하고 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은 이혼은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여성, 연령이 낮은 집단, 교육수준이 높고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혼에 대한 허용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아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으며 지역간의 격차도 커서 농촌에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더 높았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이 많아 이혼과 경제적인 이유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알아보면, 다른 조사에서는 부부간의 심리적, 애정적 관계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의 허용정도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부부관계보다는 배우자의 친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 높은 이혼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친족과의 관계가 아직은 결혼적응 및 가족관계에 영향력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 한국 가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남성들은 성생활 불만이나 자녀출산 불가능 등으로 응답하여 가부장적 이중규범을 내면화 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부부간의 신뢰나 애정 문제와 같은 부부문제에 의한 이혼에 대해 높은 찬성을 보이고 있어 이혼을 둘러싼 남녀간의 의식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가정과 직장의 양립

본 조사에서는 취업과 가정생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가정생활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각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선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물질적 풍요(75.5%)를 부정적 영향으로는 일하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36.8%)를 들고 있다.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성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남성들의 응답율이 높은 반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생활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양성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한 식구들의 '인정'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에 와서도 힘들 때가 많다'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있어서도 남성(10.2%)보다 여성(34.5%)의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주체로서의 자각과 같은 긍정적 응답율이 높았으나 자녀양육과 가족을 돌보는 문제로 경제활동을 그만 둘 생각을 해보았다는 부정적인 응답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족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취업을 지속하는데 있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농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의 가정이 취업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낮은 반면,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7. 가족여가활동

전반적으로 여가활동 참여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TV/비디오 시청 (56.9%)과 가족과의 대화 (44.6%) 등의 소극적이며 공간 제한적인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응답비율이 낮은 활동으로는 가족단위의 봉사활동으로 4.0%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령이 낮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문화 활동 참여가 많지만 3세대 이상의 가족과 농촌의 저소득층은 특히 여가활동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30%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로는 일이 너무 바빠서 28.3%, 경제적 부담 때문에 25.8%, 가족공동의 시간을 만들기 어려워 10.3%,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10.3% 등이다. 주5일제가 실시된 이후의 시간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시간의 증가라는 변화가 있었으며 가장 증가한 활동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74.4%)이었으나 사회봉사와 부부간의 성생활은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각 항목에서 대부분 남자들의 변화가 눈에 띄며 특히 가사와 자녀돌보기 등의 집안일과 자신을 위한 시간 등의 활동에서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8. 가족갈등 및 결속력

가족의 여러 가지 기능 중 오늘날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키우는 사회화 기능(32.0%)> 가족원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30.6%)> 가족원의 경제적으로 부양(26.7%) 등으로 응답하였다.

가족폭력 양상은 낮은 편이나 폭력의 경향이 높은 문항으로는 남편의 주벽> 남편의 폭언> 아내의 아이들 폭력> 남편의 아이들 폭력 순이었다. 가족폭력에 있어서는 연령과 학력수준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폭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건강성과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가족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고, 가족의 정서적 친밀감이나 상호협력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

으나 가족원의 대화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건강성에 대해 각 변수별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에게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족, 자녀가 어릴수록, 도시의 중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화목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중심의 가족에게서,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저소득층의 화목정도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인식수준이 낮아 농촌가족에 대한 가족관계 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개발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9. 가족지원 정책 및 복지욕구

한국의 가족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혼율의 증가(20.0%)>아버지의 권위실추(13.5%)>가족 이기주의(13.1%)>남녀차별 및 아들선호(11.7%)>노인 부양기피(11.5%)>부계중심의 가족제도(11.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에 대해 성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데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가부장적인 성역압적 태도와 질서가 한국가족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가족생활지원 교육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필요도에 있어서는 양 성간 차이 없이 비교적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각 교육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인지도와 참여도, 향후 필요정도를 보이고 있는 문항은 유아, 아동, 청소년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과 세대간 화합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교육이었다.

가족생활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등 현물지원에 대한 응답율이 높았으며 가족상담 서비스는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가족문화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개입 및 피해자 보호서비스(40.3%),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48.6%), 가족단위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지원 (48.4%)등으로 가족문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원욕구는 다른 가족지원 정책들에 비하여 요구도가 낮았다.

가족부양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가족지원 정책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는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 확대

(78.7%), 가족간호휴가제도 (73.1%), 가사도우미 (67.9%) 순이다.

자녀양육지원에 대해서는 학비지원(85.1%), 무료급식지원(77.2%), 자녀양육비 지원(74.6%), 방과 후 보육서비스(69.3%),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감면(68.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감면에 30, 40대 연령집단에서는 학비지원에 대해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제 2 절 가족기능강화 방안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의 삶의 방식은 일정하지 않으며 각 가정마다 처한 상태나 문제점, 욕구 등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삶을 영위하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문제를 겪게 될 경우 이를 위기상황으로 판단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가족에게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가족의 기능만으로 위기를 넘기지 못하는 가정에게는 이들의 기능을 지지·보완·대리하는 방법으로 정책과 서비스를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가구를 가족단위로 보면서 가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종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역할수행과 대처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방적 차원의 건강한 가정문화를 형성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및 해당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복지정책의 추진 방향

1) 보편적·예방적 차원의 가족복지정책

그동안 국가의 가족정책은 전체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오기 보다는 일부 선별적인 대상들, 즉 모자 혹은 부자가정이나 가정폭력 등에 한정하여 사후관리적인 서비스가 반 이상이 될 만큼 취약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은 가족문제를 최소화하고 가족관계를 증진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족이 최대한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인 차원의 개입이 일차적인 목적이며, 문제가 발생한 가족은 적절한 개입과 조절을 통하여 이를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방과 치료의 개입은 특수 가족유형을 표본모델로 삼아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가족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상태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가족정책은 이제까지의 저소득주민이나 장애아동, 모·부자 가족 등 취약계층의 잔여적 서비스보다는 그 대상을 전체가족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물론 취약계층 대상의 접근이 시급한 것은 인정하나 단순히 잔여적 차원의 접근은 가족이 위기를 겪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사후에 이를 치료하고 보완하는 데에 그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듯이 취약한 가족에게 지원을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오늘날 가족은 과거의 가족이데올로기로나 가족의 역할로부터 자유로운 전향적인 인식과 태도를 지닌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의 변화가 단기간 안에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전개입적인 가족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가족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5년에 한번 가족의 욕구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부에서 대대적으로 전국가족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변화하는 가족내부에서의 의식과 다양한 가족들 간의 문제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가족실태조사가 정례화 되어야 한다. 가족에 대한 정례화된 조사연구는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에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가족의 행동을 예견할 수 있어 가족의 위기에 대한 예방지원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생애주기 단계별로 차별화된 가족복지정책

기존 가족정책의 문제점인 취약가족 중심의 잔여적, 사후치료적인 단점을 극복하고 보편적·예방적 가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족정책을 수립해야 한

다. 가족생애주기는 최근의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저출산, 고령화, 소자녀화 등에 의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즉, 결혼관의 변화와 교육 및 취업기회의 증대 등으로 결혼연령이 상승하여 가족형성 시기는 늦어지고 있으며 출산력 저하 등에 의해 자녀출산기는 단축되는 추세이며,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킨 후 부부만이 남는 축소완료기는 점차 연장되고 있다. 또한 가족해체기의 시작시점이 되는 남편사망 시 부인연령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의해 점차 늦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가족주기 각 단계를 구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당시의 가족의 욕구는각 가정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충분히 감안한 차별화된 가족정책이 요구되어진다.

결국 신혼부부가정, 중년부부가정, 노인부부가정, 노인단독가구, 모·부자가족 등 가족의 다양성과 가족의 형성기, 확대기, 축소기 등 가족 및 가구의 구성원의 특성변화에 기초한 생애주기별 가족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여성친화적 가족복지정책

어느 사회를 불문하고 가족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으며, 특히 전통적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전업주부 뿐만이 아니라 취업주부도 여성의 가족내 역할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의 우리사회의 격동적인 변화 즉 미혼율 증대, 출산율 감소, 여성경제활동 참가의 증대 등 가족 및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가치관의 잔존으로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역할은 의존적, 종속적인 측면과 다중적 역할 부담이 병존하고 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갈등과 스트레스는 결국 가족의 위기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가족 내 기능과 역할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가족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취업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며 이는 미혼여성에게는 결혼기피, 기혼여성에게는 출산기피로 다가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서의 역할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자녀보호를 위한 가정도우미 제도, 가족 돌봄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간호제도, 육아휴직의 확대 및 급여지급의 상향조정,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 아동양육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 및 급여지원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방지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일시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아이 하나 더 낳을 때마다 지원되는 소액의 현물지원은 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은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주택정책과 교육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현재 여성에게 과중하게 부담되어 있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등을 경감시키는 여성친화적인 정책과 서비스에 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친화적 정책은 결국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정책과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서구 유럽의 경험을 볼 때 가족정책의 발달을 가져 온 직접적인 요인은 출산률 감소와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이 남녀평등에 대한 욕구와 맞물려 여성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의 발달을 가져 왔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가족기능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1) 지역사회 가정복지자원 연계망 구축

지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족관련 복지서비스의 주체는 지역내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가족관련 상담소(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센터, 가족치료예방센터 등) 등이 있으며 이외에 건강가정지원법에 근거하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확대 되어 지는 추세에 있으며 전라북도에는 아직 공식적인 기관은 없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이러한 기관을 유치할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 일부 있다.

이러한 지역센터는 그동안 사업대상에 있어서 가족구성원들, 즉 아동, 청소년, 여성, 남성, 노인, 장애인 각각에게 나누어져서, 이 기관 저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사업들을 중복하여 진행해 온 문제점들이 있다. 즉, 현재 존재하는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각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전달체계상의 중복 및 기능상의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이는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통합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재정의 낭비와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내의 복지공급주체들의 다원화 현상을 극복하고 복지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과 민간간의 지역복지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이 중요하다.

지역단위 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사업의 특성은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그리고 보다 긴급하고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할 경우 행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가족지원센터와 여타 가족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의뢰과정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의뢰는 쌍방향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 파악, 상호연계망 형성, 정보 공유 시스템의 정착이 필수적이다. 즉, 같은 지역에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 서로 가까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가족 관련 복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합적 연계망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의 연계망 구축이나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2) 전문적 가족상담 서비스 강화

가족관련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서비스의 영역을 조사한 결과,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서비스, 가족지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결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상담 인프라 구축의 측면이 현재의 서비스에서 충분한 질적인 수준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과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복지관에서 가족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가족상담이 주된 서비스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족관련 상담소에서도 상담을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 가족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가의 훈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문상담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가족관련 상담소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코올이나 가정폭력, 미혼모를 위한 쉼터 등으로 대부분 제한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가족, 재혼가족, 한부모 가족, 소년가장 가족, 무자녀 가족, 노인가족, 기러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 가족 상담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족의 문제는 가족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족개입적 치료,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남성직장인 대상의 이동식 교육 강화

과거에 비하여 남녀간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은 제도권 안에서는 많이 진보하였으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불평등이나 성차별은 아직도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의 증대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족내의 양육과 가사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는 여전히 여성에게 과중하게 부담이 지워져 있는 게 현실이다. 가족의 부양기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역할부담을 공유하고 존중하는 평등한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새롭게 주목해야 하며, 특히 가사와 양육의 부담에 대한 양성평등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민주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내 권력구조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가족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민주적 가족규범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성평등한 부부관계 및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하여 가부장적 의식과 성 편견이 강고하지만 양성평등 교육이나 학습의 기회가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며 여성의 경험을 상상할 있는 성인 지적 상상력 또한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특히 남성 직장인의 경우, 양성평등한 부부관계나 민주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과 학습 및 훈련의 기회가 제약적으로

주어져왔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직장근무로 인한 물리적·환경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찾아다니며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동식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정규교과 및 생애학습 과정으로의 건강가족문화 도입

최근 대학의 교과과정으로서 가족사회학이나 가족학의 교과목개설은 변화하는 가족을 이해하고 개인이 가족 생활주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과업에 대한 준비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적응훈련은 더 이상 사회교양으로서의 덕목이 아니라 실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은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평생교육과정으로서 이어져야 한다. 양성평등한 부부관계와 민주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민주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족규범과 태도 등을 교육을 통하여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가치관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생애교육과정으로서 가족에 대한 이해와 훈련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건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방향

1)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부부관계의 만족도는 가족의 응집력, 가족위기시의 대응능력 등에 영향을 주는 등 가족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변수이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족형태 및 가족생활 주기에 부합되는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나 부부참여·부부활동 프로그램이 개발, 확산 보급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가족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발달주기에 부합하는 부부교육 및 부부관계 상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적으로 부족하고 교육내용의 포괄성이나 특성화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부부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상담기관을 전국의 복지센터와 연계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상담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부부 상담기관의 수를 점차적으로 늘려서 부부간의 갈등이나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양성평등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부부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단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인생의 과업에 맞게 갈등해결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신혼초기에는 부부간의 상호이해를 도울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이해’라든지 ‘부부 성격차이 극복하기’, ‘부부대화교실’, ‘부부싸움 잘하기’등을 준비한다. 자녀가 생기면 육아와 가사를 양성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프로그램’, ‘양성평등 화목한 가사일’, ‘우리아이 이해하기’ ‘효과적인 부모역할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중년기와 노년기에 들어서면 ‘부부공동 여가의 중요성’, ‘우리가족 알뜰 제테크전략’, ‘노년기 부부역할’,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등과 같이 과거에 비해 중년기와 노년기가 길어진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등을 실시한다.

2) (조)부모와 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핵가족화와 소자녀화로 인해 자녀에 대한 양육과 훈육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공부만을 강조하는 교육적인 풍토로 인하여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있다. 따라서 (조)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더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익혀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도록 하고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세대간의 교류를 통하여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을 완화 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손자녀와 함께 하는 전통문화 체험’, ‘손자녀와 함께하는 인터넷서핑’, ‘손자녀와 함께 만드는 지역병원 조산아용품 만들기’, ‘노인이 들려주는 과거역사 이야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녀이해에 대한 프로그램으로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프로그램과 청소년기 부모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가족세대 통합 프로그램은 가족원 개별로 접근하기보다는 전체가족의 상호작용과 가정성에 대한 문제로서 접근해야 한다. 즉 각 대상별 노년아동, 청

소년 등에 대해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개별 대상별 접근은 지양하고 부부문제 상담, (조)부모자녀문제 상담, 가족스트레스 문제, 가족원의 의사소통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3) 가족여가문화 증진 프로그램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 특히 중요한 여가집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여가활동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가정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현상으로는 컴퓨터의 보급에 따른 인터넷문화의 확산 및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주5일 근무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인터넷문화의 역기능은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단절하거나 자녀의 지나친 인터넷 활동으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증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5일제의 실시는 가족의 여가문화가 보급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시간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여가프로그램과 생산적인 여가활동이 필요하다. 가족의 기능강화를 통한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가족단위의 여가정책이 앞으로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저소득빈곤 가정, 모부자가정, 저소득노인가족 등 여가취약계층의 가족여가는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최근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가족의 결속력을 증진해주는 부가적 순기능이 있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가족봉사활동은 생산적인 여가활동의 한 방식으로 세대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건전한 시간관리를 통하여 가족의 화목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가족단위의 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5일제 휴무에 대응하여 매월 4주째 토요일을 ‘가족봉사의 날’로 지정하고 산업체와 학교 등의 지원을 통하여 파급효과를 기하도록 한다.

4) 가정경제 기능향상 프로그램

가족에서 수행하는 경제기능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의 기회는 많지 않다. 최근에는 주부들이 창업 및 재테크, 노후대책 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장소는 제한적이다. 여성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일회적인 행사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들의 신용카드의 남발과 규모 없이 소비하는 지출 습관 등에 대하여 최근 예비대학생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교육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경제교육, 저축의 중요성 등 어린이 경제교실 등을 열어 경제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의 저축습관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통한 재테크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문가들의 추천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예비지식이 많지 않다. 가족의 재무전략과 전자가계부 작성, 절세전략, 알뜰소비전략, 노후대책 재테크 등에 관련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도울 수 있는 가정경제 기능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제교육의 중요성은 어린이 시절부터 가르쳐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모든 가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고정자·김갑숙(1993), “부부갈등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3(1).
- 공세권·조애저·허남영(1995), 『가족결혼의 유형별 특징과 가족정책의 접근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희완(1992),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사회문화연구소.
- 김만두(1997), “21세기 한국가족의 문제점과 복지적 대응”, 『사회복지』 132.
- 김미숙 외(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김명자(1999),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 김성천(1995),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성천·윤혜미(2000), 『가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 보건복지부.
- 김성천 외(2000),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2003), “한국 가족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5월호.
- 김승권 외(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현(1993), “다양한 가족생활유형”, 『가족학』,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하우출판사.
- 김홍주(1994), “한국의 가족문제와 가족복지의 방향”, 『한국청소년연구』 19,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민선(1995), “다양한 가족생활”, 『가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경문사.
- 박민자(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 『가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사회문화연구소.
- 박병석(1998), “한국의 가족복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13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박충선·남정림(1996), “노인단독가구의 생존전략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2).
- 변화순(1995), “가족해체와 재구성”,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사회문화연구소.

- _____ (1999), “노인의 부부관계”, 『노인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사회문화연구소.
- 변화순 외(2000a),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2000b),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보건사회부·한국여성개발원.
- _____ (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2004), 『가족정책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백경희·김현주(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2004), 『전국가족실태조사 척도개발』.
- 손승영(1992), “노부부의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사회문화연구소.
- 신화용(1996), “1980년 이후의 노년기 가족 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 여성부·한국여성개발원(2003), 『2003년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2001),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당.
- 유영주(1979), “한국도시가족의 부부간 만족도 연구”, 『서울가정대 논문집』 4.
- 유영주 외(2000), 『현대 결혼과 가족: 건강 가족적 접근』, 신광출판사.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동원(1986), “가족제도(2): 부부관계 및 안정성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재단.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영숙(1990), “부부간의 지위부조화와 갈등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 장혜경·김영란(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김영란(2000), 『전업주부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정기선(1997), “생애주기를 통해서 본 한국가족”, 『산업화과정에서의 한국가족의 실태와 전망』, 집문당.
- 정순돌 외(2005), “가족지원서비스의 방향모색”,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조흥식 외(1997), 『가족 복지학』, 학지사.
- 최경석 외(2001),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최재석(1983),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한남제 외(1994), “가족가치관의 변화”, 『한국가족관계의 문제점』, 다산출판사.

부 록

- 1. 가정복지 프로그램개발 예시
- 2. 대학부설 및 기타 건강가정지원센터 목록

1. 가정복지 프로그램 개발 예시

<부표-1> 가족생활주기별 프로그램

중분류	소분류	비고
미혼기를 위한 프로그램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 이해증진 프로그램 미혼모를 위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 결혼 준비교육 프로그램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대학생의 성 교육프로그램 결혼 준비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신혼기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농촌 부부평등교육 프로그램 결혼 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부부폭력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자 재발예방 프로그램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 맞벌이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며느리를 위한 고부관계 향상 교육 프로그램 부부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아동의 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초등학교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 아동의 책임 있는 행동선택 프로그램 입양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정서지능 향상 교육 프로그램 편부모가정 아동의 또래집단 프로그램 아동소비자 화폐관리 교육 프로그램	

중분류	소분류	비고
<p>청소년기 부모자녀를 위한 프로그램</p>	<p>폭력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REBT집단프로그램 청소년 자녀와 부모관계 향상 프로그램 세대간 이해증진프로그램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 비행청소년의 자아성장 프로그램 재혼준비 교육 프로그램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이혼가정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이혼적응 교육프로그램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자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여성의 자율성 향상을 위한 어머니 교육프로그램 초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상상적 청중감소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빈곤여성가장 가족의 모-자녀관계 증진프로그램 비행청소년을 위한 집단치료프로그램 실직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약물남용 재활교육프로그램 초기 청소년을 위한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p>	
<p>중년기를 위한 프로그램</p>	<p>실직자 가정의 복지지원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퇴직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대처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부부의 갈등해결 교육프로그램 성인자녀를 위한 노인부양 교육프로그램 중년여느리를 위한 고부관계 향상 교육프로그램 중년남성 대상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노부모 부양가족 교육프로그램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중년기 주부 대상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부부친밀감 증진 프로그램</p>	
<p>노년기를 위한 프로그램</p>	<p>노년기 준비교육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가족생활프로그램 노년기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치매가족 부양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노인기 적응프로그램 치매노인의 심리 사회적 재활을 위한 집단프로그램</p>	

자료 : 가정복지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부표-2>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대 상
"성장하는 아버지, 행복한 가족 "	성장기 자녀를 둔 아버지
고부관계 화합 프로그램	시어머니와 며느리
예비부모 임신, 출산교실 "행복한 임신, 행복한 가정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부부
부부 대화교실 "더 나은 결혼생활을 꿈꾸는 부부	부부
노부모님과 알콩달콩 살기	노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
부자되세요!	누구나
행복면허 취득하기	예비 부부
부부 성격차이 극복하기	부부
내 아이 마음 읽기	유치원 및 저학년의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
우리가정 건강한가?	누구나
"이제 뭐 할래?"	지역에 거주하는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결혼 꿈꾸기	지역 기업에 근무하는 미혼남녀
알면 편안한 노후관리	지역주민
알면 돈이 되는 가정경제	지역주민
알면 용서되는 부부관계	지역주민
알면 이해되는 부모자녀관계	지역주민
우리 아이 초등학교 준비하기	지역에 거주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부모
PET 공개강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화조절 능력 강화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중년의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	지역주민
부부갈등 예방하는 법	지역주민
방문가족생활교육	김해시 면단위에 거주하는 가정
우울증 탈출	지역주민
치매의 이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알코올중독에 대한 이해와 가족/전문가의 역할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부표-3>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대상
수험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법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와 수험생
부부갈등 예방하는 법	부부생활 중 갈등과 고민을 경험한 부부
'화'조절 능력강화 부모교육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갈등과 문제를 경험한 부모
시설아동 집단상담	가정해체를 경험한 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집단상담	보호 관찰소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자살예방 세미나	심리/경제적 고통, 갈등, 고민을 경험하거나 자살 충동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 자
A.A 공개모임	가정 내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족
"새롭게 시작하는 나, 그리고 우리(집단상담)"	중년의 기혼남성
부부 대화법(집단상담)	부부
어미니 미술치료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노인을 위한 표현예술 치료	일반 노인
한부모 가족캠프	한부모 가정
"행복으로 가는 길(학교부적응 청소년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가족과 교사
이혼예방을 위한 가족치료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려중인 여성
방주원아동집단상담	방주원 아동 초등 3~4학년
MBTI부부성장집단	부부
PET부모집단상담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애우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미운 오리 이야기"	장애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부표-4>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이야기가 있는 가족캠프	누구나
추석맞이 가족단위 송편 만들기 행사	가정봉사원 및 희망가족
우리 가족 미술 한마당	누구나
외국인 가족 우리 전통문화 체험하기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코리아 태보 I,II,차차차	일반 노인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가족봉사단)	초,중,고,대학생을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전통 혼례문화 체험하기	누구나
가족과 함께 여가를-박물관 여행과 가족 레크리에이션	자녀를 둔 부모 및 자녀
21세기형 어린이 리더쉽 - 리더쉽과 예절	초등생 어린이
가족사랑 걷기대회	누구나
"추석맞이 양성평등, 화목한 가정만들기(지역사회 인식전환 캠페인)	누구나

<부표-5> 서울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교육 프로그램

제 목	내 용
부부 성격차이 극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배우자 성격이해 - 열린 마음, 열린 대화 - 부부싸움 잘하기 -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다짐
내 아이 마음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 청소년기 자녀의 특성과 청소년기 부모의 역할 - 자녀와의 세대차이 극복 - 자녀와의 효율적인 대화
알콩달콩 노부모와 함께 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 - 노년기 부부 역할 - 부부공동 여가의 중요성 - 건설적인 갈등해결과 열린 대화
행복면허 취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의 의미와 결혼의 동기 - 결혼의 의무와 권리 - 결혼생활에서의 현실적인 기대 -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요소들
웰빙시대 우리 가족 재테크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빙시대의 재무문제 극복하기 - 우리 가족 재무관리전략, 전자가계부 작성 - 우리 가족 절세전략 - 우리 가족 알뜰 소비전략 -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우리 가족 건강 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빙시대 올바른 식습관 - 다양한 질병예방을 위한 식생활

<부표-6> 서울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상담 프로그램

제 목	대상자	내 용
미술치료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역할 -부모의 고민과 해결은?
부부 대화법	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자신 돌보기 -부부간의 효과적인 말하기, 듣기 기술 습득하기 -효율적인 갈등해결하기 -대화스타일 선택하기

<부표-7> 서울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내 용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 보내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의 유래 및 세배에 대하여 - 설날 옷차림(한복과 양복 바르게 입기) -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차례지내기 - 온 가족이 즐거운 명절 캠페인
어르신을 위한 건강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댄스 익히기 - 차차차, 포크댄스 - 지역 어르신을 위한 공연
가정의 날(5월 15일)행사 -성년례와 건강가정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거한 성년례 - 가정의 날 행사 - 건강가정 관련 글쓰기 대회 시상 및 가족관련 퍼포먼스
가족봉사활동 (가족봉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단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 가족봉사단 교육 - 가정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 건강가정관련 행사 지원
건전 혼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대상 실제 혼례 - 초자례, 초녀례, 개식, 주례입장, 양가부모 입장, 신랑신부 입장, 신랑신부 맞절, 혼인서약, 성혼선언, 혼인신고서 날인, 주례사, 축하행사, 내빈께 인사, 신랑신부 행진, 폐식 - 주민 한마당
가족사랑 걷기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가족사랑 걷기대회 - 건강가정 선언문 낭독 및 행사

<부표-8>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상담사업

제 목	대상자	내 용
개인상담	가족구성원 모두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상담
집단상담	시설아동 김해시 지역 주민 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지개 이야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MBTI를 활용한 우리가족 성격 이해하기 -부부 감수성 집단 프로그램

<부표-9>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생활교육

부모교육

교육명	대상
화조절능력 강화	부모교육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효과적인 부모역할훈련 (P.E.T.)	부모교육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사랑의 아버지 교실	부모교육에 관심 있는 아버지

건강한 가정생활교육 시리즈

교육명	대상
알면 돈이되는 가정경제	지역주민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지역주민
삶의 새로운 동반자-요가	지역주민
마음을 전하는 대화법	청소년

<부표-10>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기관 연계 공개강좌

교육명	대상
지역기관 연계 공개강좌	지역주민

<부표-11>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읍면동 방문교육

교육명	대상
읍면동 방문교육	지역주민

<부표-12>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문화사업

사업명	내용
이야기가 있는 가족 캠프	가족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발굴
함께해, 고마워, 사랑해	가족관계의 강화 및 정서적 밀착을 위한 행사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 설, 추석캠페인 실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함께 하는 명절만들기!
가족사랑 걷기대회	걷기대회를 통한 가족사랑 키우기
조손세대와 함께하는 “세대통합 원예활동”	텃밭가꾸기와 원예활동을 통해서 세대가 함께 어울리기

<부표-13>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교육사업

제 목	대상자	내 용
결혼준비 교육	20세 이상 미혼남녀	효율적인 대화방법/사랑과 성/자신과 배우자 간의 이해
청소년 자녀 부모교육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및 교사	효율적인 대화기법/청소년의 발달특성
노년기 준비교육	50세 이상 남녀 어르신	건강/가족관계/경제준비
이혼상담 전문가 워크숍	상담관련시설 종사자 및 초대졸	상담이론과 기술/가정법률
한 부모 가족캠프	한 부모 가족	의사소통/인간관계훈련/부모자녀 협동놀이
부부 대화법	부부	말하기/듣기/갈등해결하기/자기표현하기
이혼 후 적응교육	별거중이거나 이혼한 사람	자아존중감 향상/부모교육/재혼준비/스트레스 관리
부부감성 훈련	부부	부부사랑표현하기/부부사랑체험/부부학
남성을 위한 가족생활향상 프로그램	30~40대 기혼남성	부부함께 가기/부모교육/의사소통훈련

<부표-14>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문화사업

제 목	대상자	내 용
전통문화 체험교실	일반시민	다도란/실용다법/전통예절 강의
가정의 날 행사	일반시민	가정의 날 기념식/유공자 시상/강연
어린이 경제교육	초등학생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교육
추석맞이 가족단위 송편 만들기	일반시민	송편 만들기/어려운 가정 위문
외국인 가족 우리 전통문화 체험하기	여수거주 외국인 가족	우리 전통문화 체험
건강가정 수기 공모	일반시민	건강가정 수기 공모 및 시상

2. 대학부설 및 기타 건강가정지원센터 목록

-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계명대학교)
-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경희대학교)
-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대학교)
-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성신여자대학교)
-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앙대학교)
-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고려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천안대)
-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본오종합사회복지관)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시직영)
- 원광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 전주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 인천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 대구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 군산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 안동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발연 2005-R-17

전라북도 가족실태 조사
- 건강한 가정과 가족기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5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전화:(063)286-9201 팩스:(063)286-9206

<http://www.jd.re.kr>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